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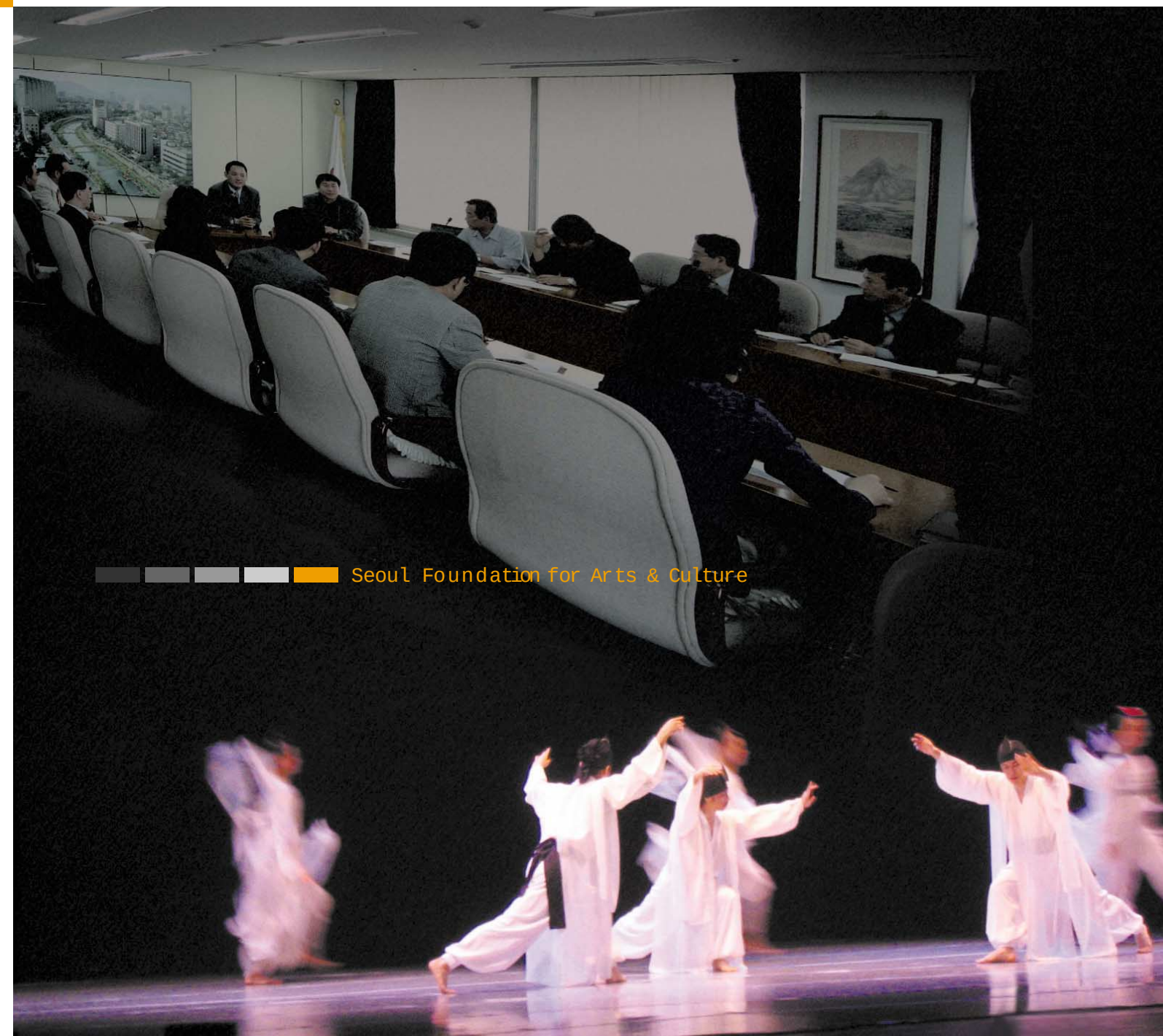
(재)서울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태어났습니다.
합리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문화사업으로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2004사업보고서

(재)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중구 예장동 4-6번지 T 02)3789-2144 F 02)3789-2150 www.sfac.or.kr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04 서울문화재단

사 업 보 고 서



희망과 원대한 계획을 안고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이 벽찬 1년을 딛고 올라왔습니다. 숨차게 달려 온 자리에서 1년의 결실을 돌아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연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문화, 그 설레는 문패를 걸고, 욕심을 자제해가며, 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의 기틀이, 민족의 정기가, 든든하게 딛고 일어서는 문화의 터를 다지기 위하여 저희로서는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문예지원공모사업을 비롯하여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문화예술집중육성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창동의 열린극장,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책 읽는 서울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 시민 모두가 관심과 사랑, 뜨거운 참여로 서울문화재단을 북돋우어 주시어 이루어진 열매임을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민이 문화시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까지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참여와 새로운 문화 설계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경쟁력은 문화에서 승부가 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국력의 바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나 경제, 외교나 군사력을 뛰어 넘어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재단이 참다운 문화재단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국가,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화를 위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아우르고 세계로 뻗어 나갈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정연희

“서울시민이 문화시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까지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참여와 새로운 문화 설계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들을 통해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만은 사람들이 서울문화재단에 물어봅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서울의 문화운동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문화란 바로 우리 삶이고 믿음이고, 기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문화는 거창한 이벤트도 아니며, 문화활동이 따로 존재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문화예술도시 서울로 가는 시작입니다.

2004년은 서울문화재단이 출범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들을 통해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예지원사업을 다양화하는 것을 비롯, 풍요로운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참여형 생활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도시는 바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이 녹아있는, 지금 서울, 그리고 미래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우리 모두가 차별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생활 속의 문화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문화예술의 창을 열고, 가까이는 내 이웃부터 시민, 예술가 그리고 모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문화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서울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문화재단은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의 문화 사랑, 생활 속의 문화예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춘

C o n t e n t s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 서울문화재단의 개요

설립취지	008
연혁	010
조직도	012
이사회	013
출범식	014

II. 서울문화 창조와 재단의 비전

서울문화 창조와 서울문화재단	020
서울문화재단의 비전과 과제들	026

III. 2004 서울문화재단의 활동

생활속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034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046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	056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070

IV. 결산

2004 재정보고	090
-----------	-----

V. 부 록

기부금 현황(기부자)	094
임·직원 및 재단을 도와주신 분	102
2004 재단 간행물·홍보물	110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114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128

서울문화재단의 개요

설립취지	008
연혁	010
조직도	012
이사회	013
출범식	014

‘문화가 꿈이 되는, 문화가꿈’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에 태어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고

예술 속에 살아있는 세상을 향해

서울문화재단은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정보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반과 함께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는 등 더욱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보다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문화사업으로 서울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서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

‘서울문화’ 창조

서울은 인구가 천백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이면서, 600년 고도(古都)로서의 전통과 최첨단의 현대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또한 서울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을 통해 나타나는 생동감 있는 문화와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서울의 특성을 문화적으로 회복시키고 가꿔서 문화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 활기차고 표정 있는 도시, 좀 더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서울로 만들고자, 2004년 서울시로부터 500억원을 출연받아 비영리 문화예술전문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향수 기반을 구축하고 일상의 삶과 밀착된 생활문화를 창조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의 예술가들이 예술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04년에는 ‘아름다운 서울문화 창조’를 정책목표로 하여, 풍요로운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참여형 생활문화를 창출하며,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허브를 구축하고 문예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등의 4가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새로이 발돋움한 서울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 예술과 함께 숨쉬고, 예술가들이 보다 더 열정적으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 책 목 표

「아름다운 서울문화 21」 창조

서울, 문화예술, 휴먼네트워크 창출, 나눔의 문화예술 추구



중점 추진방향

풍요로운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시민참여형 생활문화 창출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구축
민간협력을 통한 문예지원 방식의 다양화



실 천 과 제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재단의 탄생까지

2004년의 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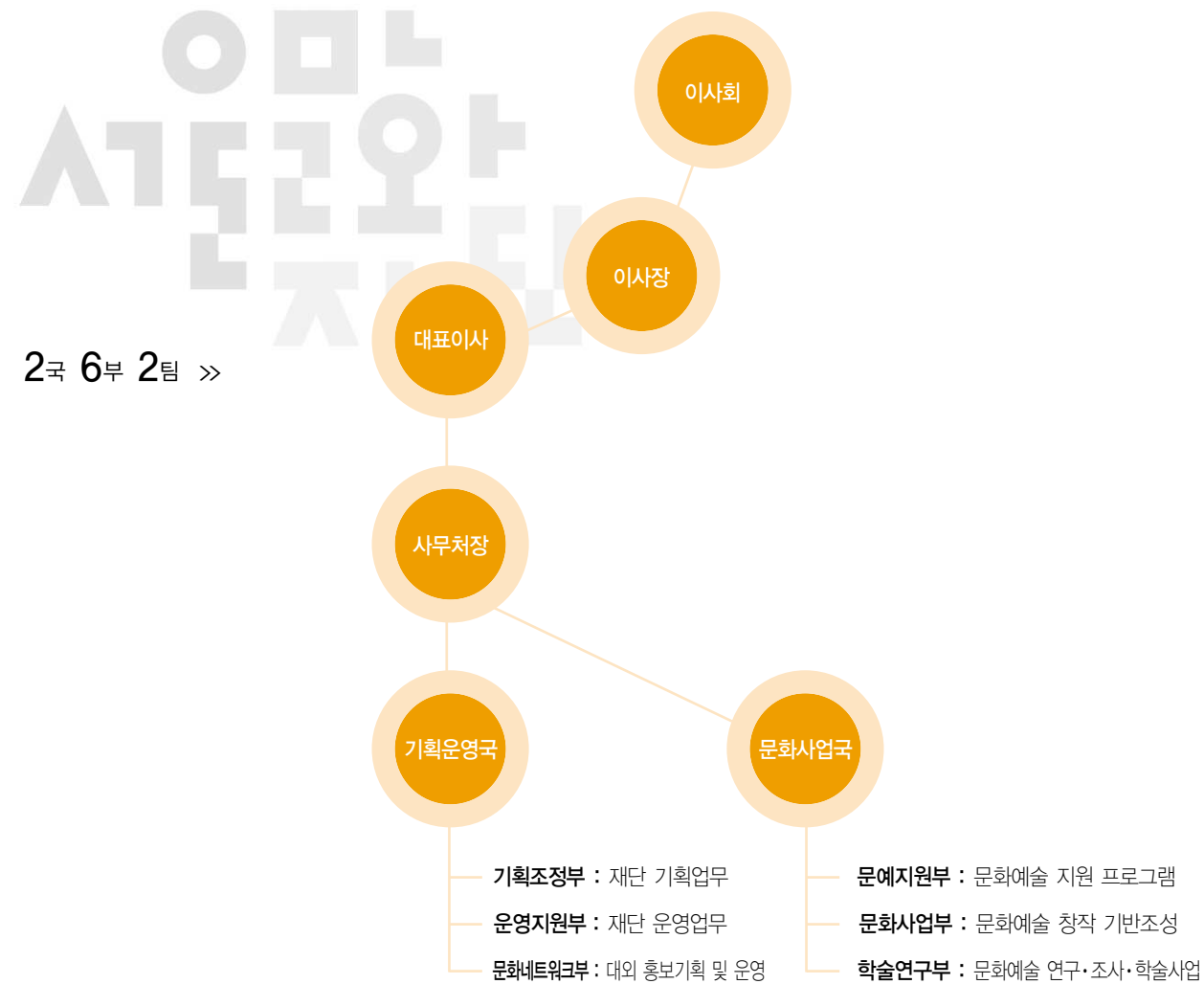
2002 ~ 2003

2002. 7. 19	서울문화재단 구성 검토보고
2002. 12. 11	서울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 계약
2003. 1~3	서울문화재단 설립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 문화관련단체, 전문가 등 - 2차 자문회의 : 문화분야 교수 등 - 3차 자문회의 : 문화예술단체 등 - 4차 자문회의 : 문화예술전문가
2003. 4. 3	시민 공청회 개최
2003. 4. 4	시의회 설립조례(안) 상정
2003. 6. 28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03. 7. 15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3. 8. 1	서울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2003. 9. 25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폐지에 관한 조례안 개정
2004. 1. 19	이사 임명 및 임시 이사회 개최
2004. 3. 12	이사장 임명
2004. 3. 12	제1차 이사회 개최
2004. 3. 13	대표이사 임명
2004. 3. 15	서울문화재단 설립
2004. 5. 18	출범식

~ 2004

2004. 5	Hi Seoul 페스티벌 2004
2004. 5	서울문화재단 출범식
2004. 6 ~ 12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운영
2004. 7	문화마을가꾸기 워크숍
2004. 7 ~ 12	서울 문화포럼 운영
2004. 7 ~ 12	문화가꿈 행사
2004. 8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지원단체 선정
2004. 8	청소년 문화벤처단 발대식
2004. 9	서울 열린극장 창동 개관
2004. 9	재단 웹사이트 구축
2004. 9 ~ 10	책 읽는 서울 진행
2004. 9 ~ 10	「2005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시행
2004. 11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
2004. 11	문화사회공헌과 기업이미지 전략 세미나
2004. 11 ~ 12	서울국제축제기획자네트워킹세미나 및 쇼케이스
2004. 12	문화예술집중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사업(연극, 무용) 선정
2004. 12	예술현장 실무 매뉴얼 시리즈1 『홍보』 - 발간
2004. 12	문화가 있는 놀이터 설명회
2004. 12	홍보마케팅 실무교육
2004. 12	청소년문화벤처단 페스티벌
2004. 12	대학로연습실 개관식

재단의 구성



- TF팀 : 청계천 문화사업팀 (청계천 문화관 및 청계천 문화성금), 이동식공연장 운영팀 (공연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사업)

이 사 장		정 연 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대표이사		유 인 춘	중앙대 연극학과 교수, 극단 유시어터 대표	
선 임 직	이사(방송)		김 재 철	MBC 보도제작국장
	이사(문학)		유 종 호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연세대 국문과 특임교수
	이사(학계)		이 정 춘	(사)한국출판학회 고문,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사(여성)		이 조 안	(주)여성신문사 이사장, (주)스타커뮤니케이션 회장
	이사(여성)		이 춘 호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주)모아킹인터내셔널 회장
	이사(언론)		장 명 수	한국일보 이사
	이사(문화정책)		전 택 수	한국학정보센터 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사(사회단체)		최 경 희	주부환경단체 푸른솔희 회장
	이사(문화사업)		한 용 외	삼성재단 사장
당 연 직	이사		김 충 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이사		조 규 성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이사		이 철 수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이사		권 영 규	서울시 문화국장

재단의 탄생..



서울문화재단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2004년 5월 18일. 이 날은 시민과 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감격의 날이었다.

한 편의 공연으로 진행한 출범식

서울문화재단의 출범식은 행사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될 정도로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온 방식에서 탈피하여 출범식 행사 자체를 사회자 없이 음악과 영상, 퍼포먼스가 결합된 한 편의 공연으로 제작하였다. 무대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었다.

비나리 공연으로 풀어간 서막을 시작으로 현대무용, 사물놀이, 국악, 오케스트라 등 마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문화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무대였다. 특히 유인촌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출범을 선포하면서 활을 쏘는 퍼포먼스를 함께 연출하는 등 재단출범의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출범식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김덕수 한울림예술단의 사물놀이, 정의숙 아지드 현대무용단의 무용, 테너 신동호씨의 애국가 독창,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의 피아노 독주, 서울예고 합창단과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노래 등으로 꾸며졌다.

그리고 소설가이자 재단 이사장인 정연희 씨의 축하 글 낭송이 있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 역시 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시를 낭송하는 이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출범식의 전체적인 연주는 대구시 국악단과 대구 필하모닉이 맡아, 지역을 넘어 서울문화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 깊은 자리로 빛내주었다.



천여명의 관객과 함께

이날 행사에는 이성림 예총회장, 차범석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김후란 문학의 집 서울 대표, 김용배 예술의전당 사장, 김의준 LG아트센터 극장장,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탤런트 최불암 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물론 서울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각 분야의 주요인사 및 시민 일천여명이 서울문화재단의 발족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서울문화재단은 출범식을 통해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출범식 무대공연 프로그램
○ 일시 : 2004년 5월 18일 18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 |
|----------------|--|
| 1. 프롤로그 | - 한울림예술단의 비나리 공연 |
| 2. 침묵 속의 문화예술 | - 유인촌 대표이사의 출범선포 및 퍼포먼스 |
| 3. 탄생하는 문화예술 | - 정익숙 무용단의 출범을 상징하는 현대무용 |
| 4. 국민의례 | - 신동호(테너) 애국가 독창 |
| 5. 영상 | - 경과보고
- 축하 인터뷰 (각계각층 인사 및 일반시민) |
| 6. 영상에 의한 내빈소개 | |
| 7. 역동의 문화예술 | - 김덕수 사물놀이팀 |
| 8. 축하음악 | - 서울예술고등학교 합창단 (지휘: 양재무) |
| 9. 영상 | |
| 10. 탄생의 글 | - 정연희 이사장의 문화재단 탄생을 알리는 글 낭송 |
| 11. 축하연주 | - 서혜경 피아노 독주 |
| 12. 시낭송 | - 이명박 서울시장 |
| 13. 환희의 문화예술 | - 서울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 모든 출연진이 함께하는 합창 및 피날레 |

※ 연주 : 대구시 국악단 • 대구 필하모닉 (지휘 : 박상진)

서울문화 창조와 재단의 비전

서울문화 창조와 서울문화재단	020
서울문화재단의 비전과 과제들	026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서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난 압축적 경제성장시대에는 전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 결집한 중앙집권의 상징이었고, 지금의 서울 또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세계적 거대도시라 일컬을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고 지역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서울 역시 분권의 객체로서, 그동안 서울이 상징했던 ‘중앙’의 개념과 ‘지역’이라는 이중성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에 앞서 한 도시로서 지역성을 회복해야 한다.

서울이라는 지역성의 회복은 다시 말해 서울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역성 회복의 중심에는 중앙집권의 체계를 공간적으로 뒷받침해온 서울을 재구조화하는 동시에, 서울이 중앙이라는 인식을 해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서울의 정체성을 찾는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특히 분권의 관점에서 그 핵심은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어떻게 살려나가는가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문화정체성은 삶의 수준과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에서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되어버렸다. 문화는 이제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제반 현상이 그러하듯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도 매우 빠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의 개념과 수요층이 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고전적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정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달은 이 사회 전 부분에 걸쳐 삶의 운영과 그 문화적 소통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문화정책도 중앙에서 지역으로, 관에서 민간으로, 생산자에서 수용자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문화정책의 변화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인다.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시설 공급에 주력해온 서울시는 9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지역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서울시 차원의 문화정책이 성립되기 시작한 시점도 그 즈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주도의 한계점이 지적되었으며, 무엇보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혁신과제로 문화분권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문화정책의 결정 및 집행 체계 또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시민참여의 큰 틀 아래에서 창조적 전문가들에 의한 문화 코디네이트 및 네트워크화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분권과 서울의 문화정체성 찾기,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의 본격화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1997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경기도가 334억원의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 11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증가하는 정책적 수요에 대한 대응과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그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재단 설립의 목표를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진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 국제교류 등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성남문화재단이나 고양문화재단같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주요 대상사업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설립목표로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서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기초예술의 전면적 위기에 따른 ‘기초예술살리기 범문화예술인연대’가 출범하고, 문화도시와 서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은 지금 문화예술의 진흥과 서울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창조적 전문역량의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서울시 문화예술의 구심적 역할을 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원기구로 태어났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역할분담차원으로 보는 시각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서울의 역사성과 현대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된 문화코드를 끌어내야 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지역 문화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이 되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서울은 이제 양적인 팽창을 앞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문화예술의 도시 서울의 가능성을 위하여, 아래로부터 서울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진흥시키는 문화창조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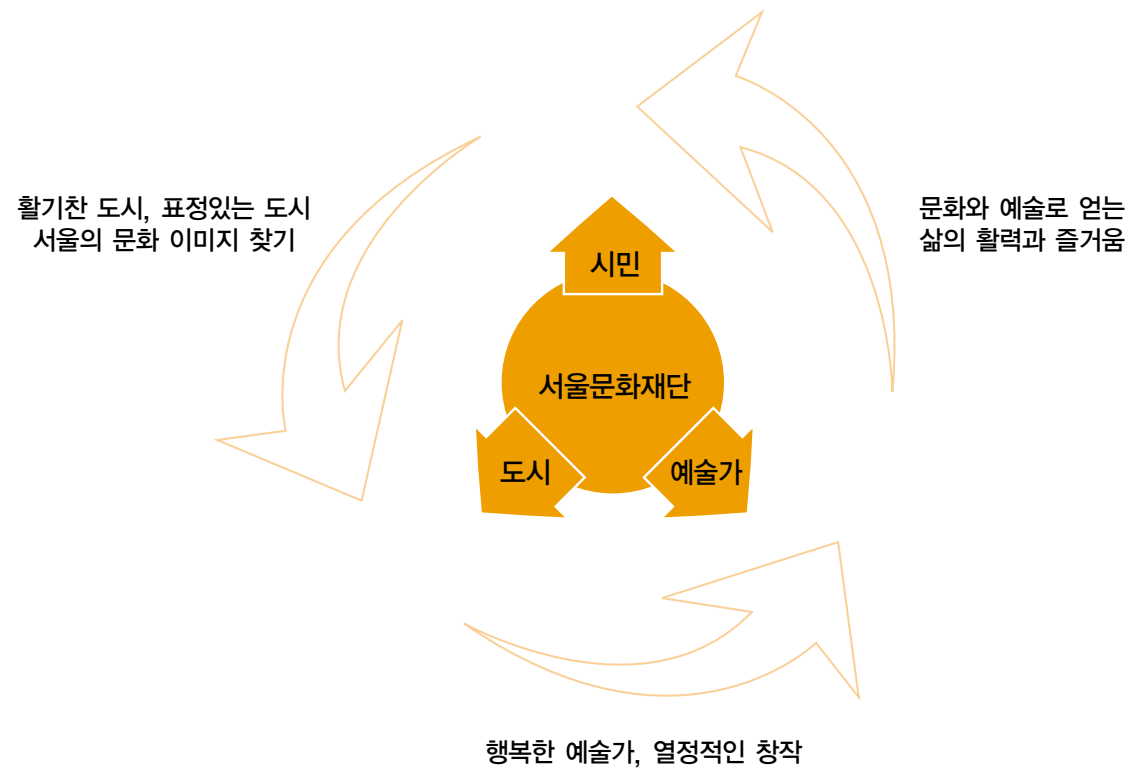
2004년 서울문화재단

2004년 3월15일, 서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전담기구로서 서울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두달 후인 5월18일 공식적으로 발족하면서 출범 첫해인 2004년은 재단의 발전기반을 다지는 뜻 깊은 기간이었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은 재단의 미션을 ‘서울, 문예, 진흥’으로 두었다. 예술가, 시민, 도시를 세 개의 축으로 이들간의 통합적 관계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이 삶의 활력과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도시적 환경으로 발전하며, 국내외 문화예술네트워크 형성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아름다운 서울문화21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창작기반 조성’과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네트워크허브기능 강화’,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라는 네가지 실천과제가 형성되었다.

정책비전(VISION)



사업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문예진흥에 집중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문예지원공모사업’과 서울시 위탁사업인 ‘무대공 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이관 받은 관계로 시기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차이를 둘 수는 없었다. 다만 재단에서는 기존의 사업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목표와 성과측정, 다면적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제 시작한 시스템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질 높은 예술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재단의 방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재단에서 새로 실시한 지원사업은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예술단체의 집중지원과 시민예술지원사업이 있다. 전문예술단체 집중지원의 경우, ‘문화예술집중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지원방식을 시도하였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각 장르의 특성과 요청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방식으로는 최초로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다년간지원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단순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각 분야의 학술적, 예술적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식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외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벤처활동 지원’이나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사업’ 등 일반인 및 아마추어 예술인의 참여를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일차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돕고 또 내용면에서도 시민참여와 청소년,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혹은 통합적 관계 속에서 진흥정책의 전망을 담는다는 서울문화재단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문화예술지원에서 전문예술인과 일반인 혹은 아마추어 예술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다년간지원인 ‘문화예술집중육성 프로그램’의 경우, 최초로 시도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준비작업과 성과가 타 지원사업보다 더욱 충실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책임감이 뒤따른다. 지원이라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또 새로운 예술을 실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면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 개발되고 제시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창작기반 조성 사업은 문화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다.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전문 예술단체의 창작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서울열린극장 창동’과 ‘대학로 연습실’ 개관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경우,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적은 강북지역에 이동식 극장을 설치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반응이 매우 좋다. 반면 ‘대학로 연습실’은 전문 예술단체들을 위한 간접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연예술단체들의 경우, 개인의 창작작업보다 집단의 작업을 요구하는 반면 실제 연습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하여 그들의 중심 활동지역인 대학로에 연습실을 마련, 저렴하게 대관함으로써 공연예술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만 이들 사업은 공공기관의 시설운영이라는 면에서 관리와 경영, 또 극장의 경우 우수프로그램 및 관객유치라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특히 현지주민 및 이용자의 편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시설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각 지역의 대안공간까지 흡수하는 장기적 계획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재단과 문화예술관련 단체, 예술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았다.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문화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따라서 가까이는 국내 관계기관 및 문화재단부터 멀리 해외 재단까지 교류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충실히 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예술단체들과 서로 협력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보마케팅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문화예술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다지기라 할 수 있는 문화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메세나 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으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 특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은 중요한 과제이다. 네트워크 구축은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향후 재단의 역할

과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도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를 위한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서울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시책과 함께 하였다. 시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Hi Seoul 페스티벌'이 2회째 진행되었고,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새로 만들어진 서울광장에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신진예술단체에게는 발표의 장으로, 기성 예술단체에게는 사회에 공헌하는 장으로, 55회나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생활 속의 문화를 가꾸기 위한 기초사업으로 기획된 '책 읽는 서울'은 서울시 31개 공공도서관과 연계, 독서활성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짧은 기간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나운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낭독회와 여러 독서 단체들이 참여한 다양한 행사, 재단과 함께 각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등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창조를 위한 여러 사업들 중에는 이벤트성 사업도 일부 진행되었다. 이는 재단 출범 첫해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재단의 인지도를 단기간에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경우도 있었고, 반면 사업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재단에서는 서울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결국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시민들도 단순히 문화소비자로 머무는 수동적 개념이 아닌 능동적 참여와 창조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 또한 재단에서 유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은 출범한 후 8개월 동안에 몇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짧은 기간 내에 조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서울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한 해였다. 그리고 문화인프라 활용, 문예진흥사업개선, 축제의 집중육성 등 지원업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복지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맡아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주력했던 한해였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은 '아름다운 서울문화21' 창조를 정책목표로 하여 문화예술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허브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Hi Seoul 페스티벌', '서울열린극장 창동', '책 읽는 서울' 등 시민생활 속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반면 2004년도 사업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러한 출범 초기의 괄목할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개발을 통해 서울시 문화국과 차별화 된 서울문화재단만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재정자립 기반 구축과 공공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기부 및 제휴 활성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새로운 재단이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 앞서 서울의 정체성을 가꾸기 위한, 그리고 서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역할에 더욱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이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은 예술의 새로운 대응과 변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4년은 서울과 서울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을 시도하면서 서울과 시민과 예술이 함께하며 서울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민간법인으로 문화예술 진흥의 선도적인 위치를 향한 노력은 재단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성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태어났다. 따라서 명칭에서부터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필연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은 하나의 지역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도시이다.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주(宗主)도시의 성격을 지니기에 서울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서울의 강북과 강남 혹은 일정지역 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빈부격차와 문화격차가 매우 큰 도시이다. 또한 서울은 단순한 한 지역이라기보다 행정의 수도이자 모든 자원을 우월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패권적 도시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 되면서 그 파급력은 타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서울에는 국내의 대부분의 좋은 공연장과 명망 있는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단체들이 포진해 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문화 발전을 정책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문화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과제이다. 따라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을 맡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역할범위는 지역이면서도 중앙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게 되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의 공공성

서울문화재단은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지만 공공기금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는 공공재단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공공성이란 예술의 질적인 발전, 문화적 평등, 교육기회의 제공과 같은 복지적 관점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공자금이 지닌 책임성을 의미하는 현장용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선택이 공공성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예술지원의 목표에 있어서 접근성과 수월성의 지속적인 논쟁처럼 쉽게 만족스러운 해답이 찾아지지 않는 과제이다.

서울문화재단이 한정된 재원을 갖고 문화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따라서 그 명확한 사업범위를 한정하여 선정된 분야의 지원을 전문화하고 특화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범위 확정을 위해서는 지원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철학이 필요한 바 이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기준이 바로 이 공공성이란 개념인 것이다. 재단은 서울시의 공공영역과 협동을 하면서도 업무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찾아 사업들을 전개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역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굳어진 합의와 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공공지원의 영역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지원 영역과 활동 중 취사선택을 하여야 하다. 이때 판단기준으로 공공성의 실현과 관련된 방향과 성취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기금을 사용하는 공공문화재단으로서의 존재의 정당성이 획득된다는 것이다.

재단의 공공성은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기본철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혹은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권 보장과 같은 절차상의 공공성의 실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론절차를 통한 재원의 배부 혹은 지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수립 등이 이러한 절차상의 공공성 실천의 한 예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은 그 실천과 점검의 차원에서 책임성과 연결된다.

서울문화재단의 책임성

재단과 관련된 책임성이란 양 방향의 개념이다. 재단은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서울시와 기부자들에 대해, 그리고 재단의 수혜자들에 대해 책임성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 재단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둘째 >> 재단의 지원결정과 평가 등 과정을 잘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셋째 >> 지원프로그램의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은 재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회계와 관련된 책임은 법적으로 재단의 감독기관이 물을 수 있고 필요시에 감사를 행한다. 과정에 대한 책임은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재단에 부과하고 요구하는 책임인데 최근에는 재단 자체에서도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성과와 관련된 책임은 사실상 문화나 예술 자체가 계량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질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책임성의 실현을 위해 재단은 다양한 성과지표들(Performance Indicators)의 도입을 요구 받고 있다. 위의 3가지 책임성의 실현여부를 정리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연간사업보고서(Annual Report)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재단에 대해 이러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드시 1년에 한번 회계보고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발행하여 배포해야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이러한 책임성 이외에도 궁극적으로는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나 기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관심을 넘어서는 비전을 추구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도전을 안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앞으로의 과제들

2005년 3월 15일이면 탄생한지 일 년이 되는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한 해 간 바쁘게 움직여 왔다. 안으로는 창립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규정의 제정과 제반 여건의 조성 등 조직의 안정에 주력하여 왔으며, 밖으로는 시민과 예술단체 혹은 예술가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만큼 빠르게 걸어서 단기간 내에 목적지에 다다르겠다는 생각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재단의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 기본재산의 안정적인 확충이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일정액씩 3년동안 1,000억원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이후의 재단의 기본재산 증액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재단의 펀드레이징 능력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낮은 이자율 속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1,000억이란 기본재산은 1,100만 서울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운영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재단 직원이 모두 수익의 창출과 관련된 업무에 매달리는 것은 앞서 언급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지우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단의 기금의 효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단에서도 다양한 민간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재단의 역할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러한 역할 모델에 적합한 다양한 제휴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둘째 >> 재단의 고유한 정책을 개발하여 서울문화재단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는 부서별로 많은 단편적인 사업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 초기단계인 재단이 현재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재단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으로는 지원정책의 구축, 다양한 지원의 형태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운동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재단은 설립 초기에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관광부의 무대예술지원기금을 받아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심의의 객관화, 표준화, 공개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원한 공연과 전시 등의 결과물에 대한 방문평가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개별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 할지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한다. 즉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서울문화재단 나름대로의 색깔을 보일 수 있는 분명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철학의 기저에는 문화다양성, 접근성, 수월성,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목적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 이에 재단은 2005년도에 “재단의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이러한 장기비전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메타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재단의 기능을 살리고 서울시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 앞서 언급한 서울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수행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이 아닌 재단의 정책 및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 풀을 확보하여 이들의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업 건별로 필요시에 자문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문은 특정 사업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단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정체성 형성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이면서도 넓은 시각으로 재단사업 전체를, 더 나아가 서울시의 문화정책 전반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단은 2005년도 상반기에 문화예술정책 무크지 “문화+서울”(가제)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무크지는 지금의 서울시 문화예술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아서 그 방향성을 자리매김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서울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서울의 문화 현실을 진단하여 21세기의 문화지형학적 전망을 만

들어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전문지의 간행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은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문화행정가들을 만나서 교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의 교류를 주선하는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이다. 재단은 자체 모임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을 만들어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 주는 허브 기능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접근성과 기능성이 있는 사옥의 확보이다. 현재의 재단은 사무실 공간만 협소하게 확보되어 있고 이 정도 규모의 재단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회의실, 강당, 세미나실 등이 없어서 외부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업무자체의 내용과 방향성보다 장소 섭외와 불편한 행사진행에 직원들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여건은 재단의 사무실이 통합되고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면 많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문화포럼”을 실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의 창구를 마련해 나아가고 있는 바, 2005년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재단은 물리적인 공간을 통한 다양한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재단 자체 간행물 지면이나 재단의 홈페이지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다양한 학술적 의견 및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섯째 >> 재단은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지원에는 재원 중심의 금전적 지원, 정보구축 및 서비스 지원, 네트워킹의 허브로서의 매치메이커로서의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포함된다. 재단은 튼튼한 재원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재단은 다른 곳에 지원을 하여 일을 하게 하기보다 자신들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든 사업을 직접 해 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맞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단이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하게 되면 그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소규모 민간단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즉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의 양분을 독식하여 “문화 분야 독과점 비영리 기업”의 역할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급하거나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공공성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재단의 모습일 것이다.

2004 재단의 활동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문예지원 공모사업
- 문화예술 집중육성 프로그램
-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청소년 문화벤처 활동지원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
- 문화마을 가꾸기
- 대학로 연습실 운영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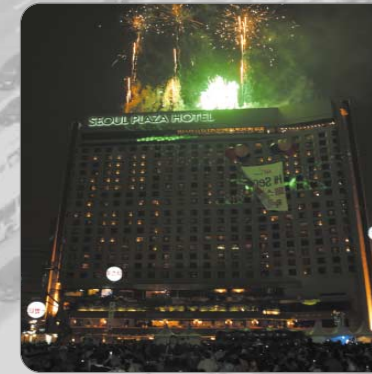
- 문화기부 및 제휴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 서울 문화포럼 운영
-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
- 홍보마케팅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 국제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사업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 책 읽는 서울
-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운영
- 재단 브랜드 이미지 구축 사업
- Hi Seoul 페스티벌 2004
-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



1



2



3



4



5



6



7



8

1. Hi Seoul 페스티벌 한류백야축제 / 2. Hi Seoul 페스티벌 불꽃놀이 / 3. Hi Seoul 페스티벌 한류백야축제 /

4. 뉴욕 ISPA 참석 / 5. 서울열린극장 창동 전경 / 6. 복원된 청계천 조감도 / 7. 문화가 있는 놀이터 / 8.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2004 재단의 활동



Hi Seoul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의 관중들



Hi Seoul 페스티벌 쇠머리대기 놀이



Hi Seoul 페스티벌 지구촌 한마당



책 읽는 서울 아나운서 도서관 투어



대학로연습실 조감도



Hi Seoul 페스티벌 지구촌 한마당



서울광장 분수대에서의 아이들



문화가 있는 놀이터 조감도



청계천 문화가꿈 행사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획공연예술단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양천구민 전통예술단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어린이 희망시장



대학로연습실 개관



서울올림픽장 청동



AIG생명, 기부금 전달



아트다이어리



서울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크 1차 세미나



문화사회공헌과 기업 이미지 전략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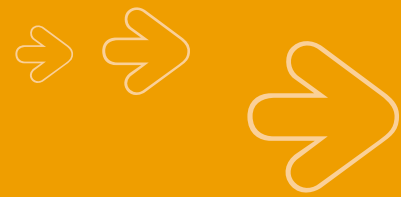
Hi Seoul 페스티벌 명동거리 댄스파티



책 읽는 서울 포스터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36 _ 문예지원 공모사업
- 038 _ 문화예술 집중육성 프로그램
- 040 _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042 _ 청소년 문화벤처 활동지원
- 044 _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문예지원 공모사업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1994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운영되어온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이 2004년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2004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 공모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문예지원공모사업은 연간 열리는 전문단체 및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4년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영화 등 8개 장르 248개 사업에 1,760백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전년대비 15개 사업, 131백만원 증가하였다. 지원건수 및 지원액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사업규모의 증대가 있었으나, 내용면에서는 ‘2004년 문예지원 공모사업’은 재단출범 전 서울시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지원금 지급부터 맡게 되면서 재단의 지원방향과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2005년부터는 문예지원공모사업의 지원방향, 지원절차, 평가시스템, 지원효과의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전반을 개선하였다.

예술창작지원 중심인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차별화하여 시민문화향수기회확대에 지원목적을 두고 그 명칭 또한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연중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하고 사업의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을 위해 지원공고는 12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선정은 익년 1월~2월에서 전년 11월말로 앞당겼으며, <장르별 구분>을 기준으로 <문예일반·문학미술·축제 등 3분야 구분>으로 개선하였고, 분야별 전문심사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였다.

추진방향

- 전문예술단체의 문화향수기회확대사업 및 시민 아마추어 문화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시민문화 향수기회확대를 위해 소액다건 지원
- 지원결정의 조기화로 연중 지원 및 활동 체계 확립

2005년도 주요 개선내용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차별화하여 전문예술단체 및 시민동호회의 시민문화향수 및 참여활동에 소액다건 지원 :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
- 분야별 전문심사로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지원대상 선정시기 개선 (익년 1~2월 ⇒ 전년도 11월 조기지원 결정)
 - 선정발표 후 충실하게 사업 실행할 수 있는 준비기간 확보
 - 조기선정으로 1월부터 지급·수행·평가하는 연중 문화예술 활동체계 확립
- 기타 사항
 - 타지역 소재 단체 지원 불가 (예산부족 등)

2004년 추진실적

- 사업별 지원현황 (2004년)

지원대상	지원 내역		
	신청	지원 결정	최종지원 내역
8개 분야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영화	- 655건 - 26,088,000천원	- 248건 - 1,760,000천원	- 232건 - 1,641,800천원

※ 사업포기건수 및 금액 : 16건 / 1118,200천원

- 지원 및 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9회(2004. 4. 23 ~ 5. 15)
- 2005년도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04. 8
- 2005년도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설명회(시청별관) : 2004. 10. 5
- 2005년도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 2004. 9. 1 ~ 10. 22
 - 670건 접수, 1개 단체 1사업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5건 증가
- 2005년도 지원대상사업 발표(재단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04. 11. 18
 - 지원결정 : 293개 사업 / 1,753,000천원
- 2005년 지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2004. 12. 15
- 2004년 지원사업결과 보고서 발간 : 2005. 2

집행예산 : 1,641,800천원

- 지원금 232건 : 1,641,800천원



▶ 지원서류 접수현장

문화예술 집중육성 프로그램

서울시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각 시·도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지원원은 기초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들을 중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방식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1년 단위 일회성 지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회성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또 지원의 방식도 여러 가지로 모색할 수 있지만 그 효과나 방법면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원방식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문화예술집중육성프로그램은 다년간지원사업으로 유망 예술단체의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시스템이다. 따라서 일회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향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타 공모사업과 달리 재단에서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재단의 정책 및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회적 지원사업이 되지 않고, 성과가 축적되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기뿐 아니라 이론적 성과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지원방식은 직접지원인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하며, 간접지원은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프로그램 실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선정, 정기적인 실적평가를 하여 익년도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년간지원사업은 최초로 시도되는 지원방식으로 2004년 연극, 무용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기초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추진방향

-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 : 집중지원 및 학술적 접근 시도, 성과축적
- 공공예술분야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예술장르를 우선적으로 발굴
- 프로그램 실행단체(기관) 선정 후 재정지원 및 집중관리 실시
 - 지원평가 결과를 익년도 지원에 반영, 지원등급 결정

사업내용

- 프로젝트 개발 : 재단의 비전 및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연구
 - 2004년도 지원공고 분야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및 시각예술분야(미술)
 - 자문회의 구성(16명) : 각 장르별 전문가 및 재단간부로 구성
 - 자문회의 개최(3회) 및 프로젝트 테마 결정
- 프로젝트 공모테마 선정
 - 공연예술 : 한국 공연예술의 원형모색과 현대적 계승
 - 시각예술 :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실적

- 지원단체 공모 : 2004. 10. 1 ~ 10. 22
 - 재단 홈페이지, 한국연극협회 및 공연관련 전문잡지 광고 게재
- 지원접수 : 총 45건
 - 연극(32건), 무용(9건), 미술(4건)
- 1차 서류심사 : 11. 2
- 2차 프리젠테이션 : 11. 5
 - 연극(6건), 무용(1건), 미술(4건)
- 미술 추가심사 : 11. 26
- 연극 추가심사 : 12. 15
- 최종결과
 - 연극 : '연극발전연구소' 선정
 - 연구테마 : <가면과 사람> 프로젝트
 - >> 전통과 실험의 충돌에 의한 대안적 공연 프로젝트
 - 무용 : '한누리 춤 연구회' 선정
 - 연구테마 : 한국 근대춤의 원형모색과 현대적 계승
 - 미술 : 해당사업 없음

집행예산 : 98,312천원

- 지원금 : 90,000천원
- 심의 및 평가운영비 : 8,312천원



▶ 무용분야 1차 서류심사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004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고, 여기에 참여까지 가능해야 한다.

재단에서는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예술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들 기초단체들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직접 참여기회 역시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봉사 역량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누구나 문화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추진방향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문화 역량 증진
- 순수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동호회의 활동 활성화
-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욕 고취

사업내용

- 사업성격
 - 일반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 시민참여로 개최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사업
 - 비전문 또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원신청자격 및 조건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만 신청 가능
 - 일반시민(비전문 예술인)의 단체구성 비율이 80% 이상인 단체
 - 문화원,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기획사업을 계획 중인 단체 또는 기관
 - 시민문화예술단체의 분야별 단위 협회 및 산하 회원단체
 - 기타 일반시민 문화예술 동호인 단체(직장인동호회 / 주부클럽 등)
 - 비영리성 시민참여사업을 기획 중인 문화예술 기획단체

- ※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 함
- 활동경력 2년 미만의 신설단체
 - 학교(초중고교) 소속 단체나 특정 종교성을 띠는 사업
 -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 기타 지원금이나 기금 등을 수혜 받은 전문예술단체



▶ 용마루 풍물패



▶ 어린이 희망시장

- 지원분야
 - 순수·기초 예술분야 중심
 - 공연예술 : 음악, 무용(전통무용 포함), 연극 등
 - 전통예술 : 판소리, 풍물, 민요, 기악 등
 - 축 제 성 : 상기 2개 분야와 관계된 장르에 한함
 - 교육강좌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강좌의 경우 장르 구분 없이 지원신청 가능)



▶ 금천문화원 자원봉사팀

- 지원금 지급규모
 - 지원금 규모 :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1개단체 1개사업 지원 원칙

추진실적

- 지원단체 공모 : 2004. 7. 1 ~ 7. 15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안내자료(자치구 25개, 문화원23개, 문화의집 28개, 구민회관 21개) 발송
- 지원접수 : 총 35건 - 음악(9건), 전통(12건), 교육(8건), 축제(4건), 연극(2건)
- 심사일시 : 2004. 8. 2
- 최종결과 : 총 24건 - 음악(6건), 전통(9건), 교육(4건), 축제(3건), 연극(2건)

〈 자치구별 신청건수 및 지원건수 〉

연번	자치구	신청건수	지원건수	연번	자치구	신청건수	지원건수
1	중구	2	1	10	광진구	3	2
2	마포구	3	3	11	금천구	2	2
3	서대문구	2	1	12	성북구	1	1
4	강북구	1	1	13	관악구	3	3
5	동대문구	1	0	14	종로구	1	1
6	성동구	2	1	15	영등포구	1	0
7	중랑구	5	2	16	구로구	2	1
8	양천구	3	3	17	서울지역순회	2	1
9	도봉구	1	1				
지 원 합 계				24			

집행예산 : 75,998천원

- 지원금 지급 23단체 : 67,360천원
- 심의 및 평가운영비 : 8,638천원

청소년 문화벤처 활동지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 단체 및 대안학교 혹은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통해서 국지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단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방식 또한 공간지원 및 기관을 통한 간접적 재정지원들이 대부분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다양하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문화벤처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대안학교, 자생적 청소년 동아리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을 하고자 하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좀 더 심화된 관심으로 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강사 파견의 지원을 병행한다.

둘째,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하여 발표를 하되 단순 발표가 아닌 지역사회와 문화소외계층을 연계한 발표를 진행하게 하여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서의 청소년의 모습을 심어준다.

셋째, 청소년 문화벤처단의 이름으로 네트워크 및 활동(외부 섭외 활동 및 페스티벌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단체 교류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소년 및 지도교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멘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
각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문 강사의 지도와 함께 2004년도에 지역사회 및 문화 소외계층과 연계하여 공연 및 행사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 지원 분야
 - 순수기초예술
 - ▷ 연극 : 소규모 뮤지컬 및 마당극 포함
 - ▷ 음악 : 기악, 합창, 중창 등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장르
 - ▷ 무용 : 독무가 아닌 단체 참여의 순수무용(현대무용 및 발레)
 - ▷ 전통예술 : 풍물, 기악, 탈춤, 전통무용 등 단체 참여의 장르
 - ▷ 미술 : 순수미술(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 등)
 - ▷ 문학 : 순수문학(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
 - ▷ 대중엔터테인먼트 : 힙합, 재즈, 스포츠댄스, 음악밴드 구성 등 단체참여의 장르
 - ▷ 영상예술 : 상영이 가능한 영상장르(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 ▷ 사진예술 : 전시가 가능한 사진장르
- 신청자격
 - 14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소년으로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단체(재학생이 아닌 경우 포함). 단,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한하여 가능
 - 그룹을 이끄는 리더를 반드시 선정해야 함(리더로는 지도교사 및 책임교사 등이 가능하며,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 내에서 리더를 선정해야 함)

- 종교성을 띠는 기획안 및 종교 전도를 위한 내용으로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강사 파견 및 발표를 위한 제반 경비 (최고 500만원 한도, 전문 강사 파견비 포함) / (1단체 1장르 지원)
 - 전문 강사 파견비 : 1회 10만원(두 시간 기준 / 최장 20회까지 가능)
 - 자체 지도교사가 있어 전문 강사 파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문 강사 파견을 제외하고 지원금만 수혜 가능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4. 6 ~ 12
 - 선정단체 : 총 27개 동아리(학교소속 13단체 / 기관 및 대안학교 12단체 / 자생동아리 2단체)
 - 분야별 구성 : 연극(뮤지컬 포함) - 8단체 / 음악 - 2단체 / 전통 - 7단체 / 영상 2단체 / 미술 - 1단체 / 사진 - 1단체 / 엔터테인먼트 - 6단체
- 지원내용 : 활동 지원금 및 전문강사 파견비
- 단체 별 활동 내용 : 방문공연 및 초대행사 - 22단체, 자료 및 결과물 배포 - 2단체, 전시 - 3단체
 - ▷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 지역구민회관, 장애우학교, 고아원, 양로원, 청소년 쉼터, 지하철 역, 지역내 공원 등 방문공연(전시)
 - ▷ 탈북청소년, 불우청소년(소년, 소녀 가장) 초청 공연
 - ▷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 및 학교에 배포
- 청소년 문화벤처단 발대식 : 시청 후생동 강당 (2004. 8. 10)
- 지원평가위원회 구성 : 총 10인 - 최윤진 교수 외 (2004. 9)
- SK 농구단 개막전 오프닝 행사 초청 공연 (10. 31)
- 청소년 문화벤처단 페스티벌 - 서울열린극장 창동 (12. 28)
 - 참여동아리 : 총 14개 단체 / 찬조 출연 2팀,
 - 관객 : 청소년 및 부모, 교사 등 600여명
- 언론보도현황
 - 청소년 문화벤처단 발대식 : YTN, EBS, 경향신문
 - 소속동아리 중 3개 단체 언론에 보도
 - ▷ 어울림(댄스) : 유한공고 & 성베드로 학교(장애우 학교)
 - 경향신문, 십대들의 저널, KBS 세상의 아침 등
 - ▷ 가양별곡 : 스스로넷 -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
 - ▷ 웃도드리 : 명지중학교 - EBS 사랑의 PC 보내기 초청공연

소요예산 : 169,085천원

- 지원금 27단체 : 98,500천원
- 발대식 및 페스티벌 : 36,900천원
- 심의 및 평가운영비 : 33,685천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기초예술의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04년 3월 이후 서울시로부터 이 사업의 집행을 위탁받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서울시의 공동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예술은 총체종합예술의 성격을 띠는 데다 가장 대중적인 기초예술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해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좋은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든다.

특히 공연예술분야는 장르의 특성상 제작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창작활성화를 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무대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또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창작현장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4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연극 51건, 무용 24건, 음악 43건, 국악 28건 등 총 146건이 지원되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1 ~ 12
(지원받은 공연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다음년도 2월말 까지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지원분야
 - 연극 :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 무용 : 한국무용(전통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 음악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적 작품,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국악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 음악분야
- 신청자격
당해 서울시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의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로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작품선정방식
일반공모를 통한 작품 접수 및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작품 선정
- 최대지원가능금액
 - 연극분야 : 연극 6천만원, 창작연극(마당극포함) 1억원, 뮤지컬1억원
 - 무용분야 : 무용 8천만원, 창작무용극(신곡사용) 1억원, 편집음악(창작 및 전통)사용 6천만원
 -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1억2천만원,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4천만원, 관현악 3천만원, 실내악적 작품 2천만원, 합창 2천만원
 - 국악분야 : 창극 8천만원(창작창극 최고 1억원), 국악관현악 3천만원, 국악실내악 및 전통예술 음악 2천만원

추진실적

- 사업시행공고 : 2003. 12. 4 - 문화관광부에서 2개 일간지에 공고
- 신청안내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한국연극협회 등 관련단체에 신청안내문 발송
- 신청접수 접수 완료(2003. 12. 30) : 총 448작품
 - 연극(207건), 무용(87), 음악(86건), 국악(68건)
- 작품심사 : 2004. 2. 9 ~ 2. 23 - 총 448작품 중 146개 작품 선정
- 심사결과 통보 및 대표자 회의 소집
 - 총 146개 단체 선정 결과 통보 : 2004. 2. 28
 - 대표자 회의 소집 : 2004. 3. 10
- 지원금 교부
 - 2004. 3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관광부 → 서울시)
 - 2004. 4 : 서울문화재단 위탁 체결 (사업비 이관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2004. 4 ~ 2005. 2 : 교부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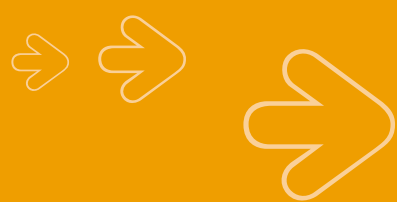
집행예산 : 3,985,000천원

- 지원금 146개 사업 : 3,900,000천원
- 심의 및 평가운영비 : 85,000천원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048_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

052_ 문화마을 가꾸기

054_ 대학로 연습실 운영

서울열린극장 창동

» 이동식공연장 운영사업

“찾아가는 공연장, 동북부 서울을 빛낼 문화명소!”

서울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취약한 강북지역에 이동식 공연장이 설립되었다. 이동식 공연장이란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공연공간이다. 건물이 지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이동식 공연장은 흔히 천막극장이라고 해서 설치 및 해체가 수시로 가능한 극장이다.

여기에 시설도 첨단이다. 객석 800~1,200석의 중극장 이상의 규모이며, 장기간 공연이 가능한 전문 공연장으로의 시설 뿐 아니라 각종 부대시설도 갖추었다. 도봉구 시립 창동운동장 부지 내에 설치된 이동식 공연장은, 부족한 공연장 시설로 인한 공연단체의 어려움 해소와 시민들의 공연예술 접근기회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강북지역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식공연장 - '서울 열린극장 창동'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뮤지컬, 콘서트, 가족극 등 가장 보고 싶어하는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연 외에도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

서울시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울 열린극장 창동'은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업에는 효과적인 문화마케팅의 장으로, 예술가에게는 저렴한 대관료로 공연할 수 있는 아트센터로서 공연문화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위 치 : 도봉구 창동 1-6 (시립창동운동장 조성부지)

개 관 일 : 2004. 9. 10

시설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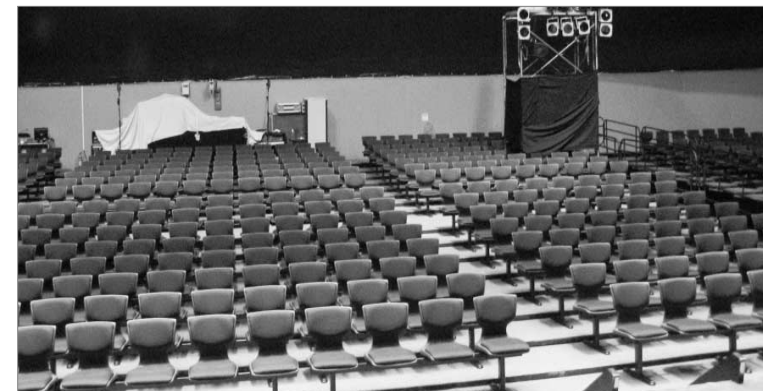
- 관람석 : 879석(가변식 가능)
- 주요시설
 - 텐트 : 메인텐트(무대/객석), 로비텐트, 링크텐트, 엔트런스텐트, 회랑텐트, 파고라텐트
 - 부대시설 : 놀이방, 매표소(Box Office), 화장실, 사무실, 분장실 / 의상실

추진현황

- 제작·설치 구매 발주 및 계약 : 2004. 3 ~ 6
- 공연장 제작 및 설치 : 2004. 6 ~ 8
- 공연장 개관 : 2004. 9
- 개관기획공연 : 2004. 9 ~ 12

극장운영방향

-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지역에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새로운 공연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 공연단체 집중 유치 및 뮤지컬, 아동극 등 지역 수요에 맞는 대중적 공연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프로그램,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한 공연장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장소로의 기여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1) 공연프로그램 추진방향
 - 지역 관람 성향에 맞는 장르와 작품의 선택(가족형 관람성향)
 - 참신성과 작품성, 대중성을 갖춘 작품을 우선 선택
 - 시즌별 특화프로그램은 자체기획으로 추진
 -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기 프로그램 섭외 추진
 - 공연장 환경에 맞는 레퍼토리 가능 작품을 개발하여 특화
- 2) 공연장르 : 뮤지컬, 마당놀이, 너버벌퍼포먼스, 대중콘서트 등
- 3) 공연기간 : 중장기 우선(1개월 내외), 시기성 단기 공연 추진
- 4) 공연공급형태 : 자체기획 및 공동주최를 우선으로 공급

서울열린극장 창동

» 이동식공연장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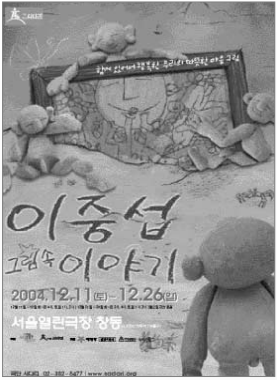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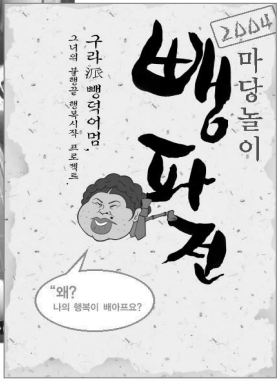
5) 2004년 공연추진실적

순번	공 연 명	공연기간 및 횟수	장 르	주요관람대상	추진방법
1	개관축하공연	9.10 ~ 12(3회)	팝콘서트, 국악콘서트 대중가요콘서트	가족단위	자체기획
2	정글이야기	9.17 ~ 9.29(17회)	뮤지컬	가족단위	공동주최
3	어둠의 힘	10.7 ~ 10.9(5회)	연극	성인	대관
4	점 프	10.13 ~ 12.5(38회)	넌버벌 퍼포먼스	가족단위	공동주최
5	시민의 날 행사	10.26(1회)	난타, 매직쇼, 점프	-	대관
6	뽕 파 전	11.13 ~ 12.5(30회)	마당놀이	실버계층	공동주최
7	시민을 위한 해설이 있는 무용공연	12.7(1회)	무용	-	자체기획
8	이중섭 그림속이야기	12.13 ~ 12.26(24회)	음악극	어린이	공동주최
9	청소년 문화벤티처단 페스티벌	12.28(1회)	페스티벌	청소년	자체기획

※ 공동주최 기획공연의 공연개최 횟수는 번외단체 포함수치임.

집행예산 : 526,000천원

- 공연프로그램 운영비 : 161,704천원
- 일반운영비 : 341,145천원
-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23,151천원



문화마을 가꾸기

‘문화마을가꾸기’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고, 그 안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통해 각박해진 도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풀뿌리 문화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일상적인 생활공간들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마을, 문화도시’의 꿈에 가까이 가고자 추진되었다.

‘문화마을가꾸기’는 시민과 예술가, 건축전문가, 행정기관,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긴 시간을 투자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를 위해 재단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자이자 연결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마을가꾸기’의 2004년 중점추진과제로 진행된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는 기존의 획일화되고 문화적 고려가 결여된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복돋울 수 있는 어린이의 놀이공간이자 주민들의 문화활동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놀이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으로 문화적인 놀이터 모델 연구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델연구개발의 특징은 문화놀이터의 개념적 논의나 이상적인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주택가, 보육시설 등 3개 유형의 구체적인 장소를 개발대상으로 삼아 공간디자인 및 프로그램 계획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연구개발 성과발표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재단은 2005년에도 유관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문화놀이터 모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놀이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방향

- 시민단체, 예술가, 도시환경디자인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문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재단은 환경모델 제시와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역할에 중점
- 2004년에는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문화적인 놀이터의 모델 제시 및 사회적 관심 유도
- 공공성이 있는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마을가꾸기 붐조성 및 확산 도모



▶ 문화마을가꾸기 워크숍

사업내용

-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 2004년 문화마을가꾸기 중점과제로 추진
 - 기존의 놀이터 환경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바꾸어나가는 작업
 - 놀이터 모델 연구개발 및 매뉴얼 제작
- 문화적인 아파트 환경만들기
 - 서울시 임대아파트 공부방 문화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안

추진실적

- 관계기관 협의 (문화국, 주택국, 뉴타운사업본부, SH공사) : 2004. 6. 4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 3회
- 문화마을가꾸기 워크숍 개최 : 2004. 7. 9 문학의 집 서울 세미나실
 - 워크숍 패널 : 김보성(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김진숙(열린사회북부시민회 사무국장), 김태선(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사람들 사무국장), 이무용(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영범(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연(중앙디자인 디자인기획연구소장, 한국여성건설인협회 이사),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 서울시 임대아파트 공부방 관련 문화프로그램 제안 : 2004. 10
 - 공부방 문화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안서 송부(시 보육지원과)
-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모델연구개발 :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추진
 - 아파트, 주택가, 보육시설 등 3개 유형별 놀이터 모델개발
-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설명회 개최 : 2004. 12. 30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설명회 패널 : 김영현 (공공문화개발센터 URART 대표), 김유석 (아트레시피 대표),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해연 (중앙디자인 디자인기획연구소장, 한국여성건설인협회 이사)
- 매뉴얼 책자 발간 : 1,000부
 - 배포 : 시민단체, 관련문화예술단체, 건설유관기관 등

집행예산 : 47,483천원

- 모델 연구개발비 : 29,900천원
- 매뉴얼 제작 : 10,170천원
-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7,413천원



▶ 문화가 있는 놀이터만들기 설명회

대학로 연습실 운영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도에 비해 우리의 창작여건은 늘 열악하다고 한다. 특히 개인적인 창작작업보다 집단의 작업을 요구하는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가장 기초가 되는 연습공간마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창작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터전이 부족하고, 또 있다고 해

도 높은 비용으로 인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공연예술단체들이 연습공간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 창작연습공간인 ‘대학로연습실’이 탄생하였다.

특히 ‘대학로연습실’은 공연예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활동 중인 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예술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단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학로연습실’에는 총 4개의 연습공간이 있으며, 각 연습실마다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도 갖추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연습공간뿐 아니라 리딩룸(Reading Room)을 겸용할 수 있는 소규모 세미나실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연습실 지원은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민간 공연단체의 예술창조활동을 위한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점차 공연 예술단체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모임터가 될 것이다.

설치개요

- 연습실명 : 대학로연습실
- 개 관 식 : 2004. 12. 27
- 설치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43 한석빌딩
- 면 적 : 총 310평(46, 52, 72, 72평 : 4개소)
- 대관형태 : 1일 3타임 4시간씩
- 주요시설 : 공연연습실 4개, 세미나실(리딩룸 겸용),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

사업추진경위

- 2004. 3 ~ 7 : 대학로 주변 부동산 시장 조사
- 2004. 8 : 최종후보지와 임대차계약 체결
- 2004. 9 ~ 10 : 대학로연습실 시설설계 발주 및 시설설계
- 2004. 11 ~ 12 : 대학로연습실 시설공사 발주 및 시설공사
- 2005. 12. 27 : 대학로연습실 개관식



운영방향

- 무대공연 분야의 환경개선
 - 저렴한 비용의 공연연습실 공간 제공
 - 공연연습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학로 중심지 역할
 -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세미나실 운영
 - 문화예술인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민간공연 단체에 대한 간접지원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
 -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과 연계된 문화예술공간 창출

대관료 및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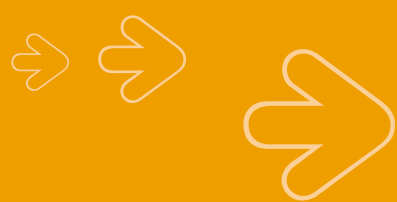
층수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연습실	제 1연습실	제 2연습실	제 3연습실	제 4연습실	세미나실
임대평수	72	52	72	46	24
대관료	오전	20,000	17,000	20,000	15,000
	오후	28,000	23,000	28,000	20,000
	야간	28,000	23,000	28,000	20,000
운영시간	오전	09:00 ~ 13:00		09:30 ~ 13:30	
	오후	13:30 ~ 17:30		14:00 ~ 18:00	
	야간	18:00 ~ 22:00		18:30 ~ 22:30	

집행예산 : 34,000천원

-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 20,000천원
- 연습실 운영비 : 14,000천원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58_ 문화기부 및 제휴프로그램 개발·운영
- 060_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 062_ 서울문화포럼 운영
- 063_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
- 064_ 홍보마케팅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066_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 068_ 국제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사업

문화기부 및 제휴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이미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나눔(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교육·복지·환경 등과 연계되어 문화에 대한 지원 수요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자선이나 복지에 비하여 문화에 대한 기부는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기부 및 제휴프로그램 개발은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일방적 시혜차원의 문화기부를 탈피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 문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적 Win-Win 제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에는 운영계획 및 기부금 관리 규정 등을 제정하여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인쇄물 및 기부 유치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다졌다. 이 사업은 “문화가 꿈이 되는, 문화 가꿈”이라는 재단의 이미지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화기부 사업을 통하여 서울의 문화생태계를 ‘함께 가꾸어 같이 나누는’ 문화 참여에 대한 의의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재원확충의 효과보다는 재단의 이미지 구축 효과에 집중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 ‘문화자원의 연결자’로서 조건부기부 및 협찬유치 등이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하였다.

앞으로 문화에 대한 기부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재원을 확보하고 예술인과 기업인이 모두 상생하는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방향

- ‘문화자원의 연결자’ (Hub of Network)로서 자원이 필요한 문화예술단체와 기부자를 적절히 연결하는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 기부자와 수혜자가 Win-Win할 수 있는 문화제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자’ (Promotor)로서 독창성 홍보
- 지속적인 문화재원 조성을 위한 기반 및 대내외 시스템 구축에 주력
-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및 문화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 문화기부 프로그램 운영
 - 서울문화사랑 기금 : 서울의 문화생태계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
 -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 : 청계천 문화콘텐츠 개발, 청계천 문화관 운영 등
 - 문화마을 가꾸기 기금 : 일상 속 문화환경 조성 및 풀뿌리 문화 참여활동 지원
 - 문화희망 기금 :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의 향수 기회 제공
- 문화적 win-win 제휴 프로그램 개발
 - 기업의 문화마케팅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예술인과 기업을 연결하여 줄 수 있는 매개프로그램 개발
- 기부자(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재단의 공식행사에 VIP로 초청
 - 재단지원 공연·전시행사 초대권 우송

- 감사장 및 감사의 선물 증정 및 명예의 전당 명판 부착
- 재단 홈페이지 및 인쇄물에 기부관련 내용 명시
- 예술가 후원자상 수여와 기부자를 위한 후원의 밤(모임) 행사 개최 등

추진실적

- 기부금 모금실적 (청계천 문화성금 제외)
 - 순수 기부금 : 개인기부 32건, 기업기부 1건 (재단 기본재산 편입)
 - 조건부 기부금 : 기업기부 5건 (Hi Seoul 페스티벌 및 공연예술분야 관련), 개인기부 1건(문화마을가꾸기기금)

종 류	건수	기부금액	비 고
순수기부금	33건	22,502천원	개인기부 32건, 기업기부 1건
조건부기부금	6건	630,100천원	개인기부 1건, 기업기부 5건
계	39건	652,602천원	

- 협찬유치 실적 (화폐가치 ≍ 44,125천원)
 - ‘책 읽는 서울’ 행사관련 현물협찬 : 우리은행 (도서수첩 16,000부)
 - 서울열린극장 창동 현물협찬 : LG전자 (대형 PDP TV 2대, 홈씨어터 2대 및 일반 TV 11대)
- 기부유도 관련 행사 개최
 - ‘문화사회공헌과 기업이미지 전략’ 세미나 개최
 - ▷ 일시 및 장소 : 2004.11.26. 14:00-18:00 /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대회의실
 - ▷ 주 최 : (재)서울문화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 ▷ 성 과 : 기업임직원 및 문화예술단체 120명 참석
 - 제1회 ‘문화가꿈 CEO클럽’ 모임 개최
 - ▷ 일시 및 장소 : 2004.12. 7. 18:30-22:00 / 유시어터
 - ▷ 주 최 : (재)서울문화재단
 - ▷ 성 과 : 사회지도계층 50인 참석, 기부금 5,600천원 모금

집행예산 : 27,764천원

- 사업운영비 : 20,044천원
- 문화기부 관련행사 : 7,720천원



▶ 문화사회공헌과 기업 이미지 전략 세미나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 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문화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재단은 참여 프로세스를 통한 문화행정시스템 개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단의 장기비전 및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활동 시장규모, 시민의 문화욕구 등 문화수요 환경에 적합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문화예술계, 시민 등 공공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토대로 민간과의 문화제휴를 위한 전략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정책모토인 “문화가꿈, 문화나눔” 실현을 위한 방향정립 및 향후 실천과제들의 세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추진방향

- 국내외 유사한 기관의 다양한 제휴프로그램 사례연구
- 다양한 제휴 프로그램의 제안, 컨설팅 및 실행방안 연구
- 문화네트워킹 가용재원의 연결방안 연구
- 기업의 문화적 이윤, 시민의 문화 참여,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계획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
- 기업의 문화마케팅, 고객지향 마케팅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내용

- 문화제휴이론 및 논리 개발
- 문화거버넌스 및 비영리조직마케팅 연구
- 문화제휴에 대한 수요 및 욕구 조사 분석 (기업 및 예술단체)
- 국내외 문화재단 및 관련단체 문화제휴사례분석
- 문화제휴 전략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실적

- 연구용역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연구기간 : 2004. 7. 20 - 2005. 1. 31
- 연구진행과정
 -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 2004. 8. 17
 - 외부전문필진연구 : 2004. 8. 1 - 2004. 10. 31
 - 설문조사 및 분석 : 2004. 10. 1 - 2004. 12. 20
 - 토론회 개최
 - ▷ 1차 토론회 : 2004. 12. 10 (기업인 참석)
 - ▷ 2차 토론회 : 2005. 1. 20 (관련분야 전문가 참석)
 - ▷ 3차 토론회 : 2005. 1. 21 (기업인 참석)

-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 2005. 1. 28

- 최종보고서 발간 : 2005. 1. 31

• 연구참여자

- 연구책임자 : 이무용 (서울시정개발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 연구원 : 박종빈 (서울시정개발원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자 : 민동원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유덕중 (한화구조조정본부 홍보실 부장)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조은아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연구 자문위원 : 김보성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김영애 (다홀미디어 대표)

박은실 (추계예대 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박찬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기획운영국장)

손경년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조사연구팀장)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집행예산 : 32,900천원

- 연구용역비 : 32,900천원



서울 문화포럼

운영

‘서울문화포럼’은 문화예술계 원로 및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런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 문화예술계 정보 교류의 공식 창구를 다원화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인간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사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회 서울문화포럼은 ‘서울의 문화예술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단의 정체성 및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 2회에는 지역문화재단 간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 현 재단별 현황과 문제점 연계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임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3회 서울문화포럼은 ‘문화가꿈 CEO클럽’ 모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대표와 문화예술계 네트워크와 문화기부 유도를 위해 추진되었다. 2004년 서울문화포럼은 재단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구성이 미루어짐으로 인해 추진 성과면에서 미진함이 있으나, 재단 출범 첫해로서 각 사업별 자문 및 문화예술인 모임과 면담이 진행되어 그 기본 사업취지의 구현은 보완된 측면이 있다.

사업내용

- 주요참석자 : 자문위원 100여명 구성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예술인, 기자 등 그룹별 구성)
- 진행방안 : 재단 및 문화공간 (서울시 문화시설 등)에서 월별 정기적인 행사로 기획
- 월별 테마를 정하여 문화예술계 정보교환 및 서울 문화예술 정책방향 토론
- 주제 발제 및 식음료를 곁들인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진

추진실적

- 제1회 서울문화포럼 개최: 2004. 7. 15 (대학로 중앙대 공연영상예술원)
 - 주 제 :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대 상 : 문화관련 시민단체, 문화예술관련 기관 등 100여명 참여
- 제 2회 서울문화포럼 -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모임 : 2004. 11. 12 (재단 회의실)
 - 주요내용 : 지역문화재단간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목적
 - 참석대상 : 제주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재단 8곳 참석
- 제 3회 서울문화포럼 - 문화가꿈 CEO클럽 (2004. 12. 7 유씨어터)
 - 주요내용 : 재단을 중심으로 한 기업,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기부 유도 목적
 - 참석자 : 기업 CEO를 비롯 문화예술인 등 70여명 참석



▶ 제3회 서울문화포럼 - 문화가꿈 CEO클럽 행사장 모습

집행예산 : 9,350천원

- 사업운영비(문화포럼 4회) : 9,350천원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재단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사업내용을 전달하는 웹사이트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 기업, 시민의 문화예술 정보를 매개하는 정보중개(매치 메이커) 역할수행을 궁극적인 사업목표로 하였다.

2004년 5월18일 재단 출범에 맞춰 재단을 홍보하는 임시 홈페이지가 제작되었으며, 6~10월까지 재단 사업소개 및 홍보용 정식 웹사이트를 비롯 청계천 문화기부 관련 온라인 결재시스템과 웹3D서비스, 재단 내부용 사이버오피스 등이 구축되었다. 이밖에 문화예술인 및 단체, 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arts@net 서비스를 개발,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매치메이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웹 사이트는 청계천 문화기부 회원 2,000여명과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과 일반 회원 5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주일 평균 20,000건의 페이지뷰와 2500여명의 방문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내용

- 재단의 홈페이지(www.sfac.or.kr) 개설을 통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보가 제공되는 ‘arts@net’ (서울 문화예술정보 사이트)의 구축을 통한 정보서비스 확대
- 생산자, 소비자, 자원자간의 문화예술정보 매치메이커 시스템 개발

추진실적

- 출범식에 맞춘 재단 임시 홈페이지 구축 : 2004. 5. 18
 -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소개 및 주요사업 안내
- 재단 정식 웹사이트 구축 완료 : 2004. 9. 25
 - 청계천 문화기부 시스템 구축, 온라인 지불결재 시스템 오픈 : 7. 25
 - 재단 웹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공 : 8. 25
 - 개발진행 : (주)이토그램
- (주)KTH 파란닷컴과 업무협약 체결
 - 서버지원 및 시스템 지원
- 서울문화예술정보 사이트(arts@net) 구축
 - 문화예술인에게 공연장 대관정보, 공공지원금, 기업협찬 정보 등 제공
 -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및 기업, 재단 등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 매치 메이커 기능 담당
 - 사이트 유지보수 진행 : (주)미디어포스



▶ 서울문화재단 웹사이트(www.sfac.or.kr) 메인페이지

집행예산 : 72,328천원

- 웹사이트 구축개발사업 : 59,128천원
- 웹사이트 유지보수 : 13,200천원

홍보마케팅 능력개발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기획자 및 예술가, 예술행정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형 지원책으로 기획되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문화예술계의 취약부분이라고 평가돼 온 ‘홍보 마케팅’ 분야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현장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시리즈를 기획하였으며, 제1편 『홍보』를 발행했다. 이어 2005년 『국제교류』편, 『마케팅』편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 분야별로 철저히 전문화된 실무 지식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매뉴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현장 실무자 및 자치구 문화공보 담당자, 비영리단체 홍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홍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실무 교육에 대한 관련 종사자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실무매뉴얼 시리즈의 발간과 함께 실무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홍보마케팅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한 홍보 전술 노하우 전달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 및 단체, 관련 공무원들의 문화마인드를 소비자, 즉 문화향수자 중심의 전략적 마인드로 전환케 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한편 600년 역사의 도시 서울의 홍보매체로서 새로운 감각의 간행물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 2004년 12월에 창간준비호로 나온 『지금 여기 서울』은 ‘서울 문화’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서울문화재단 홍보 및 사업을 소개하는 동시에 서울시 문화예술기관 및 재단지원 문화예술행사와 문화예술단체 홍보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담는데 공을 들였다.

서울의 생동감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담아보기 위해 ‘서울’을 촉감으로 느껴보는 신선한 시도를 꾀해 ‘오돌토돌한 서울’ ‘말랑말랑한 서울’ 등 서울의 느낌을 소설가 신경숙, 시인 반철환 등 작가들의 글과 사진작가 구성연 등의 사진작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지금 여기 서울』은 기존 공공기관지의 성격과 디자인 등을 탈피해 출판과 디자인, 시각예술분야 등에 있어 창의적인 발상으로 문화예술계 관련 분야를 리드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방향

- 홍보마케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인의 자생력 형성 및 창작환경 조성
- 기획자 및 관련 공무원의 재교육을 통한 전략적 문화마인드 형성
- 서울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다양한 문화예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 문화 마인드 제고

사업내용

- 홍보마케팅 매뉴얼 발간
 - 문화예술 기획 분야의 실무 노하우 및 최신 트렌드 소개 등
- 홍보마케팅 실무 교육 실시
 - 기획자 및 관련 공무원 대상 홍보마케팅 마인드 강화 교육
- 문화예술정보지 발간
 - ‘서울의 재조명’ :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기간행물 제작
 - 재단 사업방향 및 서울의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해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

추진실적

- 홍보마케팅 매뉴얼 발간 : ‘예술현장 실무매뉴얼 시리즈 1 『홍보』’
 - 추진일정 : 2004. 8. 1 ~ 12. 24
 - 편집위원 : 재단을 도와주신 분 참조(108쪽)
 - 편집디자인 : (주)노가
 - 제작부수 : 2,000부
 - 배 포 : 서울시 관계기관 및 문화예술기관, 자치구, 도서관 등에 무료배포
 - 판 매 : 재단 직접 판매 및 하이서울북스토어 등 외부 판매처를 통한 위탁 판매 추진(정가 5,000원)
 - * 2004년 판매실적 : 120부
- 홍보마케팅 실무 교육
 - ‘홍보’ 교육 실시
 - ▷ 일시 : 2004.12.27 (15:00 ~ 18:00)
 - ▷ 장소 : 문학의 집 서울
 - ▷ 수강인원 : 52명
 - ▷ 강의내용 : 미디어 메카니즘의 이해 (정재왕, 엘지아트센터 운영부장)
홍보 실무 노하우 (윤동진, 예술의 전당 전 홍보과장)
마케팅으로 접근하는 홍보전략 (정철진, 매일경제 기자)
- 정기간행물 창간준비호 『지금 여기 서울』 발간
 - 추진일정 : 2004. 10. 15 ~ 12.31
 - 편집자문위원 : 재단을 도와주신 분 참조(108쪽)
 - 참가편집팀 : 편집 디자이너 박우혁, 편집기획 박사
 - 제작부수 : 5,000부
 - 배 포 : 서울시 관계 기관 및 문화예술기관, 자치구, 도서관, 시민(서울시청 홍보관을 통해 500권 무료 배포) 등



▶ 예술현장 실무자를 위한 홍보마케팅 교육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세미나

서울이 국제적 문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과제로써 서울문화재단은 축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도시마케팅의 활로 개척에 관심을 기울였다.

‘서울국제축제기획자네트워킹세미나’는 국내의 많은 축제관계자 및 공연예술기획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로 활용, 접근될 수 있는 자리였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 상하이 등 아시아권 4개 도시의 핵심적 축제와 공연예술 축제의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는 에딘버러프린지축제 위원장을 초청하여 첫째, 아시아권 각 축제의 도시 마케팅 전략 및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권 내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둘째, 멀게만 여겨지는 구미진출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정보교환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의 축제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교류의 장을 열어보고자 기획되었다. 2004년 6월에 창립된 아시아공연예술축제연맹(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 이하 AAPAF)의 집행위원회 서울 개최에 시기를 맞추어 진행된 이번 행사 기간 중 재단은 AAPAF 부회원으로 등록하고, 행사 운영을 AAPAF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함께 진행된 “쇼케이스”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은 초청된 인사들에게 우리의 우수하고 개성있는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향후 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했다. 또한 우리에게도 공연예술전문시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이번 쇼케이스는 비록 규모는 작으나 참가 단체의 수준이나 국내외 참관자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쇼케이스와 네트워킹세미나를 통해 쇼케이스 참가 8개팀 중 <그 림>과 <LDP 무용단>은 2005년도 싱가포르 아트마켓에 공식 초청되었으며, 문화마을 <들소리>는 마카오예술제에 공식 초청되었다. ‘서울국제축제기획자네트워킹세미나’는 매년 10월경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작업을 통해, 서울의 국제적 문화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시아권의 문화적 허브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네트워킹 형성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추진방향

- 해외 유명 축제 기획자 초청, 축제 관련 교육의 장 마련
- 수강생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재단과 사업에 대한 국내 관계자간 네트워킹 및 관심 제고
- 해외 인사와 기획자들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수강생들에게 직접적인 네트워킹 혜택 제공
- 도시축제와 도시 마케팅의 연관성에 대한 주제로 2005년도 이후 해외문화교류 시장 및 진출에 대한 관심도 제고

사업내용

- 제1차 세미나 - 아시아권 4대 축제(싱가폴, 홍콩, 중국, 일본)
 - 일시 : 2004. 11. 26(13:30 ~ 16:00) / 2004. 11. 27(13:30 ~ 16:00)
 - 장소 : 코엑스 아셈홀 회의실
 - 참석자 : 연 인원 300명
 - 부대행사 : 쇼케이스
 - ▷ 일시 : 2004. 11. 26 ~ 27(19:00 ~ 21:00)
 - ▷ 장소 : 코엑스 아트홀
 - ▷ 참가 단체 : 극단 <꽃>, <사다리>, <뛰다> / 무용단 <김영희 무트댄스>, <LDP무용단> / 퓨전국악그룹 <동화>, <그 림> / 창작 뮤지컬 <더 플레이 엑스>
 - 참석자 : 국내외 관계자 150여명

- 제2차 세미나 - 에딘버러프린지축제
 - 일시 : 2004. 12. 8(18:30 ~ 20:30)
 - 장소 : 주한 영국문화원 이벤트 스페이스
 - 참석자 : 연인원 130명
 - 부대행사 : 에딘버러진출관련 공연기획자 간담회
 - ▷ 일시 : 2004. 12. 7(14:00 ~ 17:00)
 - ▷ 장소 : 주한 영국문화원 이벤트 스페이스
 - ▷ 사회 : 최석규(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 ▷ 참석자 : 국내 공연기획자 70여명

추진실적

1) 행사 관련

- 등록자 및 참석 관련자 네트워킹 확보
 - 네트워킹 수첩 수록 300명
- 행사관련 인쇄물 3종 제작
 - 세미나 자료집(유료판매 1권당 5,000원, 96부 판매), 쇼케이스 자료집, 네트워킹수첩
- 언론 보도 내역
 - 1차 세미나 관련 ▷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 2차 세미나 관련 ▷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 ▷ 한국일보, 연합뉴스 기자회견 스케치 ▷ 잡지 <도베(DOVE)> 단독 인터뷰 ▷ 아리랑TV <Heart to Heart> 인터뷰 출연 ▷ 설문조사 참가 : 150명

2) 해외 진출 관련

- 아시아권 진출
 - 2005년 6월 싱가포르 아시안아트마켓 공식 초청 : <그 림(the 林)>, <LDP 무용단>
 - 문화마을 <들소리> 공연단 마카오축제 초청
- 에딘버러프린지축제 진출
 - 2005년도 5~6팀의 공연단 진출예정
 - 에딘버러프린지축제 사무국에서 홍보 적극 지원 예정

집행예산 : 34,884천원

- 세미나 개최 및 쇼케이스 제작비 : 34,884천원



▶ 제1차 세미나 참석 아시아예술축제 연맹 회원들



▶ 제2차 세미나 기자간담회



▶ 2005년 1월 ISPA 총회

국제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사업

서울이 국제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력의 핵심은 세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킹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국제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사업’은, 세계 각 지역/권역별 문화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 형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시작하였다.

일본아트마켓을 필두로 하여 캐나다의 아트마켓에 참가하고, 아시아예술축제연맹, 뉴욕의 국제공연예술협회 및 미국공연예술기획자연맹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재단 직원들이 직접 뉴욕, 일본, 러시아, 동구유럽 등지를 방문하면서 확보한 1500여개의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는 추후 국내 아티스트들이 해외 지역에서 활동할 때 참조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며, 재단이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관련 공공기관들의 간담회를 조성하여, 국제문화교류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해외교류에 임하여 수립하는 문화정책들에 대한 심도 높은 고민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각 국가 및 대륙별로 대표적인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국제네트워킹 자료집』을 발간하여, 해외의 문화교류정책이나 연간 사업사례 혹은 해외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방식들을 소개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국제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란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사업이므로, 재단에서는 넓고 긴 안목의 지속적인 기획으로 해외문화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쌓기를 계속할 것이다.

추진방향

- 해외문화교류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문화교류 기관간의 네트워킹 제고
-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문화지원 기구들에 대한 조사, 연구 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내 및 해외문화교류 정책 수립에 다양한 모범 제시
- 국제 아트마켓 등 다양한 국제예술교류 관련 기구 등을 파악,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국제 네트워킹의 폭 심화
- 국제 문화예술시장의 경향 파악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경쟁력 강화전략 개발 및 구축

사업내용

- 해외문화교류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 제1차: 2004. 9. 15(11:30 ~ 13:30), 달개비
 - ▷ 진행 내역: 간담회
 - 제2차: 2004. 10. 29(19:30 ~ 11:30), 열린극장 창동
 - ▷ 진행 내역: 공연 관람 및 간담회
- 해외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세계 아트마켓 참석
 - 국제 예술인 네트워킹 기관 회원 등록
-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국제네트워킹 자료집 제작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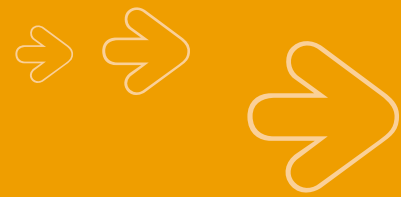
- 해외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세계 아트마켓 관련
 - 일본 동경아트마켓 TPAM(참석자 103명 주소록)
 - 캐나다아트마켓 CINARS(참석자 396명 주소록)
 - 미국 공연예술제작자연맹 APAP(참석자 736명 주소록)
 - 국제예술인 네트워킹기관 회원등록 및 행사 참석
 - 아시아예술축제연맹 AAPAF(회원국 10단체 주소록)
 - 국제공연예술협회 ISPA(참석자 256명 주소록)
 - 총 1,501명의 해외문화관련자 주소록 확보
- 자료집 발간 내역
 - 발행 부수: 2,000부
 - 내용: 각 국가 및 대륙별 대표적 문화예술기관 소개
 - 배포: 국내 해외교류 관련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집행예산: 22,595천원

- 자료집 제작: 22,595천원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2_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 076_ 책 읽는 서울
- 078_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운영
- 080_ 재단 브랜드 이미지 구축 사업
- 084_ Hi Seoul 페스티벌 2004
- 088_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2005년 10월, 서울의 600년 역사와 함께 한 청계천이 다시 태어납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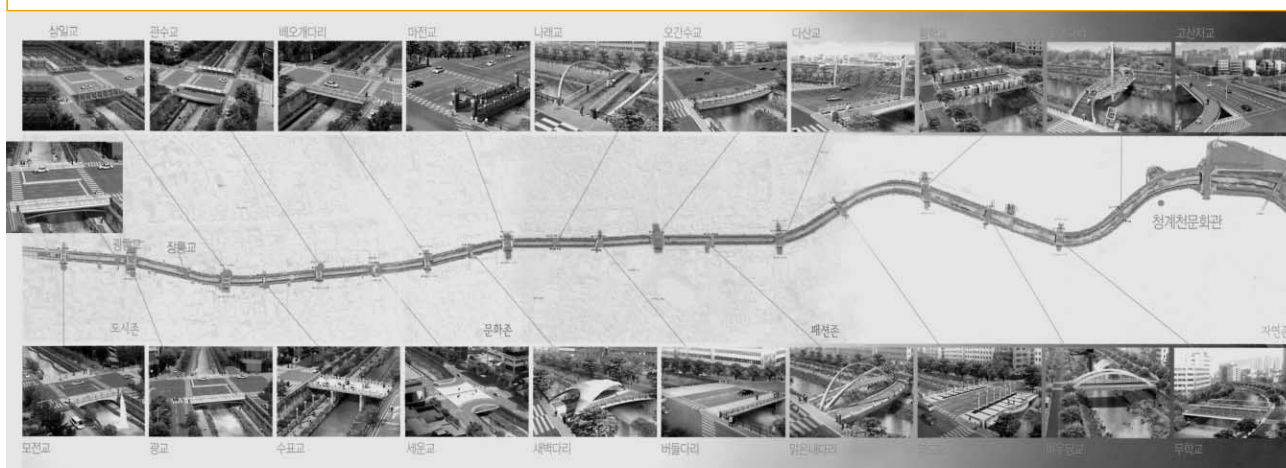
그동안 회색빛 고층빌딩과 고가도로, 자동차로 뒤덮였던 서울의 중심부가 청계천 복원으로 물이 흐르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문화가 함께 하는 청계천으로 탈바꿈하려고 한다.

자연을 복원하는 생태문화, 역사를 복원하는 생활문화, 청계천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정통성이 부여되는 지역문화, 도심 속에 숨통을 틔워주는 예술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청계천은 바로 '문화'인 것이다. 재단에서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변의 여러 문화공간 만들기 과정에서 핵심적 문화공간이 될 22개 문화의 다리를 조성하는데 서울시민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

청계천 다리복원은 단순한 복원공사가 아니다. 22개의 다리를 따라 흐르는 청계천에 문화예술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문화벨트가 조성되고, 복원될 청계천 권역을 도심의 문화중심 축으로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 모두의 정성이 담긴 22개의 다리가 새롭게 놓여지고, 버려졌던 하천에서 생명이 숨쉬는 낭만과 휴식의 공간 청계천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재단에서는 서울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높여 21세기 문화환경 도시 서울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계천의 22개 문화의 다리

모전교, 광통교, 광교, 장통교, 삼일교, 수표교, 관수교, 세운교, 비오개교, 새벽다리, 마전교, 나래교, 버들다리, 오간수교, 맑은내다리, 다산교, 영도교, 황학교, 비우당교, 무학교, 두물다리, 고산자교



추진방향

- 청계천의 친환경성, 역사적 문화자원, 역동적인 시민문화 참여활동 등을 종합하여 도심문화 활성화 계획수립·운영 및 청계천 문화조성
- 청계천을 시민 문화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종합적 도심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 문화가꿈행사(남산달리기행사) : 2004. 7월부터 지속진행 (총22회)
 - 성금모금 안내 센터 구축 및 운영관리 : 오프라인, 온라인상에서 동시 성금 납부 실시
 - 각종 행사시 부스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관련 및 재단 행사시 외부 부스 설치 운영
 - 각 기업 및 공공기관 기부 유치활동 전개
 - 홍보 리플렛 제작
 - 웹진 제작 추진 (온라인 제공)
 - 청아람 활동 활성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

추진실적(2004. 12. 31일 기준)

- 성금모금실적 : 총 1,930건 / 48,272천원 (전자결재 예약현황포함)
 - 개인기부 1,921건 39,472천원 / 기업기부 9건 8,800천원
- 문화 가꿈 행사 실시
 - 2004. 12. 22 기준, 제 22회 문화 가꿈 진행
 - 총 참가자 1,500여명 / 총모금액 9,040천원
- 기업 및 개인 기부 유치활동 전개
- 청계천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지하철광고 배포
- 청아람 운영 (청계천과 아름다운 사람들)
 - www.cyworld.com/chungechun - <http://cafe.daum.net/chungaram>
 - 총 방문자수 : 2,850명 (2004. 12. 30 현재)
 - 청계천 이벤트 행사 게재, 보도자료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제8회 SICAF 행사 참가
 - 청계천 성금모금 부스 설치 및 접수
 - 방문자수 3,000명
 - 시민들에게 청계천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 및 적극 홍보의 장 마련
- 서울광장축제 실시
 - 2004. 8. 12, 8. 19, 8. 26 (18:00 ~ 21:00)
 - 각종 문화행사시 성금모금홍보 활동 전개
 - 방문자수 1,500여명
- 한강마라톤 행사 참가
 - 행사참여자 7,000명 중 300명 방문
- 청아람 총 3회 세미나 개최



▶ 황학동 주변 조감도



▶ 문화가꿈 행사 - 남산산책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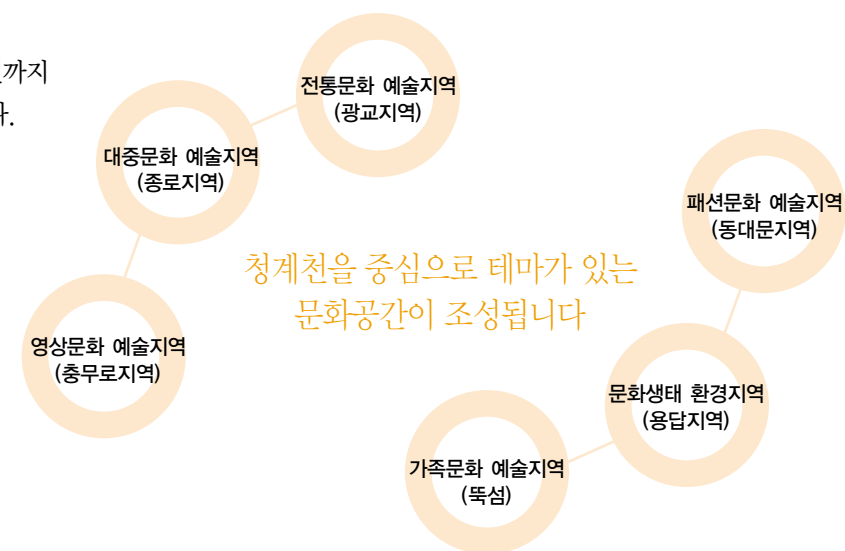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집행예산 : 139,790천원

- 성금모금센터운영 : 55,0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 65,000천원
- 홍보부스 설치·운영 : 19,790천원

성금 모금 활용방안

- 1) 전통문화, 영상예술, 패션과 생태공원까지
청계천은 문화쉼터로 다시 태어납니다.



- 2) 청계천변 산책로를 따라 걷노라면,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명예술작품과 조형물이 설치 돼 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계천 다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천변 녹지공원인 삼지 공원에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서울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세계도시의 예술가 작품이 설치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3) 천변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음악선율에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삶의 여유를 찾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청계천 문화관과 천변 야외문화공간이 흥겨운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를 선사합니다.

청계천의 복합 문화공간 '청계천 문화관'

청계천의 역사와 민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 다양한 테마의 행사와 공연, 기획전시, 음악회 등이 펼쳐지는 문화 콤플렉스로 탄생해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합니다.



- 4) 시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문화기부가 모여 '청계천'에 문화를 흐르게 하는 작지만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 기부

청계천 문화기부에 참여해 주시면, 기부금은 청계천 문화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에 참여해주신 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청계천문화와 함께 사이버상에 아로새겨집니다.



2004 책 읽는 서울

- 기초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문화관광부의 '2004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11권이며(월평균 0.9권), 국민의 여가생활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2002년 조사 시의 7.2%보다 감소되었다. 이것은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인 월평균 독서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작은 수치이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독서습관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재단에서는 문학, 연극 등과 같은 기초예술의 보고(寶庫)이자, 창의력의 원천인 책 읽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서울'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독서운동이 주던 딱딱한 느낌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좀 더 가깝게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다각적인 활동과 홍보를 모색했다.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학계·출판계·도서관계 등 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도서관·독서활동가·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독서캠페인을 열고자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9월 4일에는 서울광장에서 '2004 책 읽는 서울'의 개막식을 개최하였고, 책 만들기 체험, 인쇄체험, 북크로싱, 책나눔장터, 청소년 독서동아리 소개, 오디오북, 기초예술서적 전시, 독서퀴즈대회 등의 부대행사에 3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독서의 장에 참여하여 독서의 재미를 만끽했다. 또한 9~10월에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에서 각각 진행된 독서활성화 프로그램과 아나운서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책으로 여는 서울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울의 독서문화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고, 10월 28일 폐막식을 통하여, 서울의 독서왕, 기초예술독후감상, 독서활동단체상, 봉사상 등의 시상과 문화예술과 책을 결합한 공연 등으로 두 달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추진방향

- 독서 캠페인을 통하여, 책을 매개로 한 기초예술 활성화 및 기초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 독서활성화를 통한 참여형 도시문화 형성 및 가족문화 활성화
- 문화예술매체와 결합된 새로운 독서증진 프로그램 개발

사업내용

- 독서진흥 캠페인 진행
- 독서문화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아나운서 및 공연예술인이 참여한 도서관 방문 독서진흥 프로그램 시행

추진실적

- 「2004 책 읽는 서울」 개막행사
 - 일 시 : 2004. 9. 4 (11:00 ~ 17:00)
 - 장 소 : 서울광장 - 참가인원 : 3천여 명
 - 주요행사 : 축사(시장, 시의회의장, 서울시 교육감 등), 축시(김남조 시인), 북크로싱 등



▶ 개막식 행사

- 부대행사 : 책 만들기 체험, 인쇄체험, 북크로싱, 책나눔장터, 서울의 도서관 알아보기, 어린이 도서전시, 청소년 독서동아리, 오디오북, 기초예술서적 전시, 독서퀴즈대회 등

• 아나운서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04.10. 5 ~ 10.27
- 대 상 : 강남도서관, 광진도서관, 송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4개 도서관
- 참 여 : 국혜정, 김기만, 윤인구, 정용실 KBS 아나운서 및 공연예술인 등
- 내 용 : 아나운서, 공연자 등이 도서관을 방문, 동화구연, 우리말 강좌, 시낭송, 음악연주 등 행사 진행



▶ 아나운서 도서관 투어

• 독서문화활성화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4. 10. 5 (13:30 ~ 17: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 제 : 책으로 여는 서울의 문화
- 참여인원 : 시민, 도서관 관계자 등 180여 명

• 도서관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기 간 : 2004. 9 ~ 10
- 대 상 : 정독도서관 등 25개 공공도서관
- 프로그램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회, 독서강연, 저자와의 만남, 인형극 등



▶ 독서문화활성화 세미나

• 폐막식

- 일 시 : 2004. 10. 28 (16:00~17:00)
- 장 소 : 시청별관 후생동 강당
- 참석인원 : 서울시내 31개 도서관 관계자, 독서왕 등 200여 명
- 행사내용 ▷ 시 상 : 독서왕(28명), 기초예술 독후감상(5명), 독서활동가상(5그룹)
 - ▷ 이벤트 : 시각장애인 책 낭독, 아나운서 시낭송, '세레민' 연주, '뮤지컬 넘버' 공연 등

• 사업평가회

- 일 시 : 2004. 11. 18 (14:00 ~ 17:00)
- 장 소 : 재단 회의실
- 참석인원 : 김신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책 읽는 서울 운영위원),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책 읽는 서울 실무위원), 이권우(도서평론가/책 읽는 서울 실무위원), 재단 대표이사, 사무처장, 문화사업국장, 학술연구부장, 문화네트워크 부장 등
- 회의내용 : 2004년도 '책 읽는 서울'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검토 및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 방향 논의

집행예산 : 85,546천원

- 개·폐막식 행사 : 13,157천원
- 사업운영비 : 28,261천원
- 도서관 지원금 : 44,128천원

서울광장 예술 프로그램 운영

도심 속의 일상의 여유, 축제의 도시 서울!

자동차 중심의 거리에서 사람 중심의 거리를 만들고 또한 서울시내 중심부인 시청 앞에 푸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서울광장이 2004년 5월 1일 첫걸음을 떼었다. 신생된 광장에 문화의 입김을 불어넣고 나아가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신선하고 공익성을 가미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열림(open)’이라는 광장의 특성을 살려 서울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잔잔하게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평일 점심시간, 주말 오후를 활용, 작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일상의 여유’를 제공하려 하였다.

서울시민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광장’을 문화공간으로 네이밍(naming)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 예술단체나 직장 동아리,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나아가 젊은 예술가들의 등용문 및 기존 예술가들의 공헌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각 자치구 축제 및 초청 공연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계획이다. 시민공모 프로그램 등은 Hi Seoul 페스티벌과 연계, 문화도시 서울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동시에 시민 참여적 축제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일상의 작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잔잔히 퍼져가도록 하는 예술프로그램이다.

추진방향

- 메마른 도시 분위기를 해소하는 소규모 야외공연 축제 발굴 및 조성
- 시민참여 유도를 통한 시민 참여형 축제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
- 젊은 예술가들의 등용문 및 기존 예술가들의 공헌 시스템으로 활용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예술인, 작품을 발굴해서 연계

사업내용

- ‘일상의 여유’ 공연기획 : 평일 점심시간, 주말 오후 진행
 - 퍼레이드, 클래식, 재즈, 퓨전 음악, 안 데스 음악, 국악, 락, 라틴음악 등
 - 이동광장 공연, 양성 평등을 위한 창작지원 프로젝트
 - 힙합, 사물놀이, 라틴댄스 등
- 시민공모 축제 ‘서울광장 열린축제’ 기획
 - 시민공모 6팀 출연 (일반 시민 및 직장인 동아리)
 - 예술단체 3팀 출연 (서영은, 아소토유니온, 메이트리)

추진실적

- 사업 진행 : 2004. 6. 5 ~ 12. 10
 - 평일 12:20 ~ 12:50, 주말 15:00 ~ 16:00

- 7~8월 주말 야간 공연 진행 : 2004. 7. 4 ~ 8. 29
- 총 65회 기획 중 55회 진행 (우천시 행사 취소)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상황〉

기간	2004. 6월	7~8월	9월	10월	11월
공연요일	화·수·목·금 (점심공연) 토·일 (야간공연)	토·일 (야간공연)	화·수·목·금 (점심공연)	화·수·목·금 (점심공연) 토 (야간공연)	수·목·금 (점심공연) 일 (오후공연)
공연회수	17회 공연	8회 공연	14회 공연	9회 공연	7회
공연성격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직장동호회 등 시민공모단체	직장동호회 등 시민공모단체	시민공모단체 및 전문예술단체

- 시민공모 모집 : 2004. 7. 26 ~ 9. 15 / 약 30여팀 지원
- 언론보도 45건
- 시민공모축제 ‘서울광장 열린축제’ 기획 진행 : 2004. 11. 7

집행예산 : 87,013천원

-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55회 운영 : 87,013천원



▶ 장사의 공연



▶ 서울광장열린축제 메이트리 팀



▶ 커먼 그라운드 공연



▶ 아리코리아 공연

재단 브랜드 이미지 구축



서울문화재단 브랜드 이미지 구축사업은 신생 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문화예술계 및 일반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서울의 문화이미지와 시민 문화마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한 첫째 미션으로 친근하면서도 상징성이 강한 재단 C.I를 개발, 한글 고유의 조형적 재미를 강조하고,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지닌 C.I.시스템을 탄생시켰다. 2004년 10월 개발 완료 이후 재단 홍보물에 적용, 통일감을 연출하고 있으며 향후 캠페인물, 문화상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홍보 인쇄물은 재단의 정체성과 사업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수단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라 수용자인 예술가 및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통하는 정보전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예로 ‘책 읽는 서울’ 캠페인 포스터의 경우 도서관 대상과 일반 시민 대상으로 타겟을 세분화한 이미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책 읽는 서울’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서수첩’을 제작, 정보전달 수단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및 도서관 관련자를 대상으로 독서문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 리플릿, 달력, 수첩 등의 제작 역시 동일한 예산으로 창의력이 강조된 제작물을 탄생시켰으며 특히 50~60년대 서울의 풍속을 묘사한 아트 다이어리는 한국화가의 작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문화상품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으며 70~80년대 복고 트렌드와 맞물려 중장년층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언론홍보는 시청 출입기자과 문화부 기자를 대상으로 사안마다 적절한 홍보전략을 펼쳤으며 개별사업이나 재단에 대한 직접 홍보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의 사회적 중요성을 전하는 캠페인 성격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예로 MBC 라디오 ‘잠깐만’, 중앙일보 독서운동 특집기사 등 매스미디어와 연계한 문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언론매체를 활용한 문화 운동을 꾸준히 시도하여, 시민의 공감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추진방향

- 재단의 정체성을 친근감 있게 표현하며 향후 서식, 홍보물, 문화상품개발에 적용 가능한 이미지 시스템 구축
- 홍보인쇄물 자체에 문화와 예술이 녹아있는 제작물 지향
- 언론홍보,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문화시대, 문화시민의 중요성 강조

사업내용

- 재단 C.I. 개발
 - 전문 디자인 업체 용역을 통한 이미지 가이드라인 확립
- 홍보인쇄물 제작
 - 재단 소개 브로셔, 달력, 수첩 제작 (관계기관 및 예술인, 시민 대상 배포)
- 재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언론사 홍보 및 인물 기사 개발
 - 기자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
- ‘문화가 꿈, 문화 가꿈’ 캠페인
 - 라디오 방송, 서울시 전광판 등을 활용한 재단 홍보 및 문화 가꿈 캠페인 진행

추진실적

- 재단 C.I. 개발
 - 추진일정 : 2004. 4. 29 ~ 10. 31
 - 주요컨셉 : 문화의 정체성을 고유한 우리 한글에서 착안하여 한글 특유의 조형미를 강조하고 문화가 펼쳐지는 서울의 공간적 개념을 서울 지도 모양으로 구성. 블록 형태로 된 유기적인 모습은 재단과 시민, 예술가들의 조화로운 균형과 공존을 상징
 - 디자인 : (주)케이디에이
 - 결과물 : Basic & Application system 수록 매뉴얼북, 매뉴얼CD 각 50부
 - 활용내역 : 재단 기본마크, 자료집 및 홍보인쇄물, 기념품 디자인 가이드
 - ▷ 예)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 국제축제기획자네트워킹세미나, 문화사회공헌과 기업이미지 세미나, 달력, 수첩, 기념품 등
- 홍보인쇄물 제작
 - 재단 소개 브로셔(국문) 및 리플렛(영문) 제작
 - ▷ 부수 : 국문브로셔 2,000부, 영문리플릿 2,000부
 - ▷ 추진일정 : 2004. 7. 1 ~ 8. 5
 - ▷ 디자인 : (주)노가
 - ▷ 내 용 : 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조직 소개
 - ▷ 배 포 : 서울시 관계기관 및 문화예술기관, 자치구, 언론사, 예술인, 시민, 해외 유관기관
 - ‘책 읽는 서울’ 독서수첩 및 포스터 제작
 - ▷ 독서수첩 16,000부, 포스터 2종 각 2,000부, 지하철 광고포스터 2종 각 1,728부
 - ▷ 추진일정 : 2004. 8 ~ 10
 - ▷ 디자인 : (주)간택스트
 - ▷ 내 용 : ‘책 읽는 서울’ 캠페인 홍보 및 독서습관 유도, 서울시내 공공 도서관 안내
 - ▷ 배 포 : 서울시 공공 도서관, 책 읽는 따뜻한 교사들의 모임, 독서수첩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대회 행사 지원 및 나눔문화 등 관련 단체
 - 달력 제작
 - ▷ 부수 : 3,000부
 - ▷ 추진일정 : 2004. 10. 15 ~ 11. 30
 - ▷ 디자인 : (주)지앤에이디자인
 - ▷ 내 용 : 2004 주요 사업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위주)
 - ▷ 배 포 : 서울시 관계기관 및 문화예술기관, 언론사, 예술인, 시민, 서울열린극장 창동 이벤트
 - 업무수첩 제작
 - ▷ 부수 : 500부
 - ▷ 추진일정 : 2004. 11. 15 ~ 12. 20
 - ▷ 디자인 : 디자인발전소
 - ▷ 내 용 : 기본 다이어리 기능과 2005 주요사업 안내 및 서울시청, 문화예술공간 정보 수록
 - ▷ 배 포 : 재단 임직원, 서울시 관계기관 및 업무관련인사(자문위원 등), 서울시의회 등



재단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아트 다이어리 제작
 - ▷ 부수 : 2,000부
 - ▷ 추진일정 : 2004. 12. 10 ~ 12. 31
 - ▷ 디자인 : (주)지앤에이디자인
 - ▷ 내 용 : 유양옥 화백의 한국화 52점 수록
 - ▷ 배 포 : 서울시 관계기관, 기부관련 VIP, 해외문화원, 대사관 등
무료배포 및 일반 판매 병행(정가 10,000원)
 - 2004년 판매실적 : 500부
 - 하이서울 E-북 스토어 판매 협약 체결
 - 재단 발행 간행물의 시민접촉 기회마련 및 홍보를 위해
서울시 간행물 위탁 판매소인 하이서울 E-북 스토어와 협약,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판매 유도 (2004. 12)
 - 언론홍보 및 인물기사 개발
 - 기자간담회 개최 (총 4회)
 - ▷ 상반기 정기 간담회
 - ▶ 4. 22 시청출입기자 25인 (시청기자실)
 - ▶ 5. 1 문화부기자 25인 (프레스센터)
 - ▷ 하반기 정기 간담회
 - ▶ 8. 26 시청출입기자 20인 (시청기자실)
 - ▶ 9. 1 문화부기자 15인 (세종홀)
 - ▷ 수시 간담회 2회
 - ▶ 11. 26 국제축제기획자네트워킹 세미나 관련 (코엑스)
 - ▶ 12. 8 AIG 기부약정식 관련 (재단)
 - 보도자료 및 주간프레스 배포 : 57건
 - 매체노출 실적
 - ▷ 기사 및 뉴스 보도 : 330건
 - ▷ 월, 주간지 칼럼 : 30건
 - ▷ 방송 : 30건 (TV 18, 라디오 12)
 - ▷ 월/주간지 칼럼 : 30건
- 방송, 전광판 연계 홍보 및 캠페인 진행
 - 전광판 8건, 라디오방송 캠페인 및 홍보spot 8건, 기타 4건



집행예산 : 86,191천원

- 언론홍보비 : 2,837천원
- 홍보인쇄물 제작비 : 32,740천원
- CI개발비 : 50,614천원

Hi Seoul 페스티벌 2004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시민과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서울을 즐기는 축제 Hi Seoul 페스티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축제”

Hi Seoul 페스티벌은 이미 만들어진 축제를 관람만 하는 수동적인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를 함께 만들며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시민 축제

“서울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화축제”

Hi Seoul 페스티벌은 서울의 600년 역사에서 드러나듯 정도(定都) 서울의 다양성과 역사성이 묻어나는 문화축제

“서울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관광축제”

Hi Seoul 페스티벌은 고궁과 시내 곳곳의 장소를 통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내 외국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서울의 모습을 알고 느끼게 하는 관광축제. 단일 테마보다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축제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고 즐길 수 있는 거리축제



Hi Seoul

페스티벌 2004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추진방향

- 서울형 축제 프로그램 개발
 - 서울의 다양성을 반영한 서울형 축제의 아이덴티티(Identity) 정착 유도
- 전략적인 대외홍보 추진
 - 해외 관광객 유인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 추진
 - 그랜드 세일(Grand Sale)의 확대 및 적극적인 대외 홍보
 - 해외 유명축제 및 국내 우수 지방축제 문화교류 강화
 - ▷ 해외 축제 벤치마킹 활성화 및 축제 수준 제고
 - ▷ 국내 우수 지방축제를 초청, 지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축제 발전 유도
 - ※ 우수 지방축제 초청사례 : 청도 소싸움(2003), 영산 쇠머리대기(2004)
- 민간주도 축제로 점진 유도
 - 서울문화재단이 축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



▶ 불꽃놀이

사업내용

행 사 명	Hi Seoul 페스티벌 2004
축제 이미지	축제의 이미지 : RED Refreshing(새롭게), Exciting(재밌게), Dynamic(신나게)
행사 일시	2004. 5. 1 ~ 5. 9 (9일간)
행사 장소	서울광장 및 4대문안, 5대고궁, 세종문화회관, 시민열린마당, 상암월드컵공원 등
행사구성	• 메인행사 : 백야 한류축제(패션쇼 및 콘서트), 빛의 축제, 쇠머리대기 및 시민화합줄다리기, 퍼레이드, 지구촌한마당, 국악대축제, 상암 락 페스티벌 • 부대행사 : 서울 고궁축제, 시민걷기대회, 여성마라톤대회, 문자행위예술, 팔씨름대회, 웰컴투 코리아, 종이접기로 평화의나무 만들기, 공연예술제, 행복한 나눔 등 • 시민공모행사 : 시민열린마당 등 6개소 80작품 (무용, 퍼포먼스, 음악, 전시, 시범 등)
주최	Hi Seoul 페스티벌시민모임 • 서울특별시 • 한국관광공사
주관	(재) 서울문화재단
참여관중	총 160만여명

▶ 백야한류축제

- 일 시 : 2004. 5. 8, 17:00 ~ 5. 9. 02:00
- 행사장소 : 서울광장 / 거점별 행사(명동, 동대문, 종로, 인사동)
- 구 성
 - 백야한류 축제 : 대북공연, 리틀 퍼레이드, 시민화합응원전, 한류 패션쇼, 빛의축제, 한류 콘서트, 다이나믹 2004(북공연), 불꽃놀이, 인디밴드 공연 등
 - 거점별 공연 : 댄스 페스티벌, 거리 퍼포먼스, 시민댄스 대회, 개그 마당전통 공연 등

▶ 빛의 축제 (PiGi 쇼)

- 일 시 : 5. 1 ~ 5. 9
- 장 소 : 서울광장 잔디마당(시청 벽면)
- 제작단체 : 프랑스 스케르조(Skertzo)사(연출 및 대표: 장미셸 켄느)
- 구 성
 - 제1차(5. 1 ~ 7. 20:00 - 22:00, 매일 3회) : 시청청사를 활용한 건축적 이미지
 - 제2차(5. 8 ~ 9. 20:00 - 23:20) : 'e-Motion' - 자연, 건축, 창조, 개방,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강의 이미지 등을 표현
- 공연 중심이미지 : 미래, 풍경, 건축물, 도시전경, 나눔, 판타지, 꿈, 스피드, 색깔, 사랑, 생명, 자연의 균형 및 감정을 형상화 한 영상쇼

▶ 줄다리기 / 쇠머리대기

- 일 시 : 5. 9. 12:00 - 14:00
- 시민화합 줄다리기 :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25개구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 (총 1,000여명 참여)
- 쇠머리대기 :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진 두개의 팀이 서로 대결
- 행사장소 : 서울시청 앞 소공로 방면 도로 ~ 을지로 방면 도로

▶ Hi Seoul RED 퍼레이드

- 일 시 : 5. 9. 15:00 ~ 17:00
- 구 간 : 종묘앞 → 종로 → 종각 → 세종로 → 시청 (약 2Km)
- 참여단체 : 37개 단체 약 2,000여명
- 행렬길이 : 약 1Km
- 내 용 : 서울의 장, 세계의 장, 기업의 장

▶ 국악축제

- 일 시 : 5. 8 ~ 5. 9
- 축제장소 : 경희궁
- 참여분야 : 널뛰기, 엿장수, 봉산탈춤, 짚 만들기, 풍물놀이, 우리 가락 우리 춤 바로 배우기, 줄타기, 슬기둥, 궁중의상쇼, 경기창, 오은희 무용단, 한빛예무단, 서울예술단, 신모듬 국악공연, 뽕파전 외 다수



▶ Hi Seoul RED 퍼레이드



▶ Hi Seoul RED 퍼레이드



▶ 줄다리기 / 쇠머리대기

Hi Seoul

페스티벌 2004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 상암 락(樂) 페스티벌

- 일 시 : 5. 1 (16:30 ~ 22:30), 5. 2 (18:00 ~ 22:00), 5. 5 (16:30 ~ 21:00)
- 장 소 : 월드컵공원 남문광장 야외무대
- 참가팀 : 총 27팀(스쿨밴드 5팀, 인디밴드 21팀, 퍼포먼스 1팀)

▶ 시민공모 프로그램

- 일시 : 5. 8 ~ 5. 9
-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가, 시민들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세종로공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제일은행 본점앞, 동화면세점 앞, 덕수궁 돌담길

추진실적

- 「Hi Seoul」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2회에 걸친 축제를 통하여 서울의 브랜드인 「Hi Seoul」이 국내·외에 널리 홍보 되었고,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친근한 이미지로 정착
- 「서울광장」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서울의 중심부 시청 앞에 새로이 조성된 「서울광장」이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축제 성공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서울광장이 가족단위 시민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 5. 1 ~ 5. 9(축제기간)까지 서울광장 방문 시민 75만여명 (1일 평균 8.3만여명)
- 관광세일 및 서울마케팅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 확인
 - 한류스타가 참여하고 이태원, 동대문시장 등 시내 곳곳에서 그랜드세일(Grand Sale)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증가 효과
 - ▷ 일본관광객 48% 증가(2003 : 35천명 → 2004 : 52천명)
 - ▷ 중국관광객 185% 증가(2004 : 3.5천명 → 2004 : 10천명)
 - 관광특구 주요상가 및 호텔 객실 점유율도 30%이상 매출 신장



▶ 상암 락 페스티벌



▶ Hi Seoul 어린이 날 행사



▶ 백야한류축제



▶ 백야한류축제

- 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수준을 향상

- 세계적 수준의 PiGi쇼를 국내 최초로 선보임으로써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함께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줌. 특히, 시청사를 배경으로 서울의 과거·현재·미래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담아냄으로써 서울의 이미지를 크게 고양
- 한류 스타들의 대거 참여로 국내 팬은 물론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 관광객들의 관심 집중
- 서울 고궁축제(세종대왕 즉위식-경복궁, 왕세자 관례의식-경희궁, 인국의 서폐의식-창경궁, 종묘대제-종묘) 등 한국 고유문화 체험 기회 확대 제공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역할 및 적극 참여

- 각 프로별로 주요 방송사 방영 및 일간지 등 언론보도 다수

집행예산 : 1,349,000천원

- 행사운영비 : 1,217,000천원
- 시민공모행사 : 132,000천원



도시문화 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

2004년은 ‘문화도시’가 화두를 이룬 한해였고, 각계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와 기고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와 기고에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이에 재단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예술인 및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의 시각을 통해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에 대해 규명해 보고,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중장기 문화전략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에 대한 심층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서울의 문화환경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세계 각 도시를 여행하고 기록한 여행가 및 건축학, 사회학, 역사학, 조경학, 디자인학 등 관련 국내의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서울의 도시문화 정체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추진방향

- 서울의 문화적 성격에 대한 조사와 토론을 통해 재단의 향후 문화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전문가, 예술가 및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청취를 통해 서울의 문화현황에 대한 각계의 진단을 수렴함으로써 서울시민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도출
- 향후 서울의 중장기 문화전략개발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추진내용

- 사 업 명 :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
- 기 간 : 2004. 11. 23 ~ 24. 13:30 - 17: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내 용 : 서울의 도시문화정체성 및 중장기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논의
- 대 상 : 서울시민, 도시문화 관련 전문가,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예술인, 서울 거주 외국인 등

세미나 내용

- 주제 :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 제1일 (11. 23. 13:30 - 17:00)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현황〉

- ① 서울의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심층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발표
 - ▷ 주관 : 서울문화재단 학술연구부
 - ▷ 대상 : 서울시민 1,158명
 - ▷ 설문조사내용 : 서울의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
- ② 세계 속의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 ▷ 발제자 : 권기왕 (여행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33(세계편)』저자)
 - ▷ 토론자 : 권기욱 (서울시 GIS개발팀 팀장)
- ③ 서울시 야간경관의 변천과 새로운 비전
 - ▷ 발제자 : 조경진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 ▷ 토론자 : 정강화 (건국대 디자인학부 교수)
- ④ 서울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와 전략
 - ▷ 발제자 : 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 ▷ 토론자 : 이무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일(11. 24. 13:30 - 17:00)

〈서울의 문화적 성격 및 도시문화이미지 활성화 방안〉

- ① 거대도시 서울의 이미지, 하나인가, 여럿인가
 - ▷ 발제자 : 황기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 토론자 :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② 문화도시 서울의 건축이미지
 - ▷ 발제자 : 정기용 (기용건축 대표)
 - ▷ 토론자 : 조인숙 (건축사 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 ③ 서울 스펙타클 : 시각이미지를 중심으로
 - ▷ 발제자 : 김상숙 (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 강의교수)
 - ▷ 토론자 : 한동수 (한양대 건축대학원 교수)
- ④ 국제적인 문화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들
 - ▷ 발제자 : David James Hall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 ▷ 토론자 : Cynthia Rodriguez (사진작가)



집행예산 : 11,344천원

- 설문조사 : 3,516천원
- 자료집 제작 : 2,228천원
- 세미나개최 : 5,6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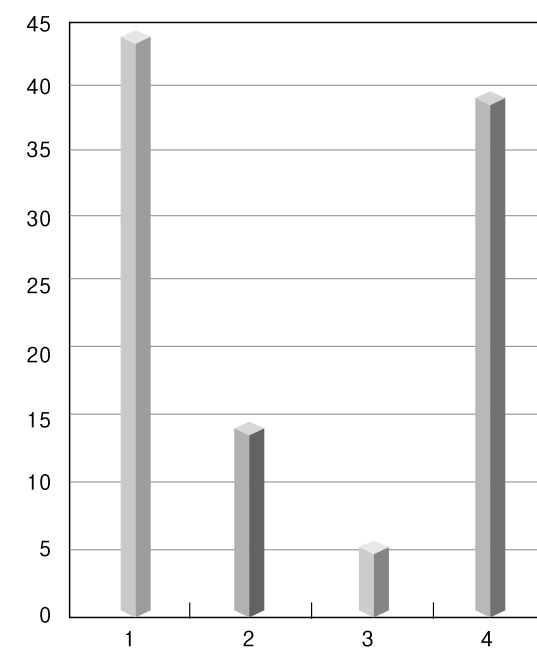
재정보고 2004

결산 _ 2004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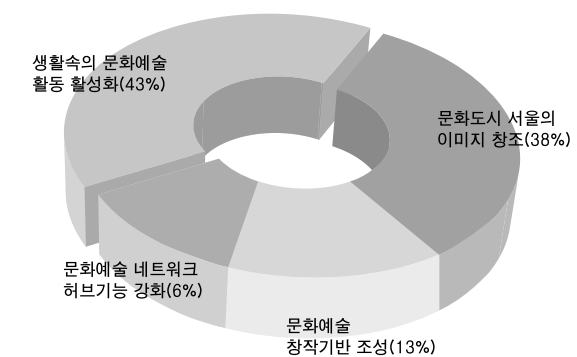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총계		57,693,000	총계		57,693,000
자체수입		1,326,681 (이자수입+사업수입)	순사업비 (경상운영비+사업운영비+예비비)		7,693,000
이자수입		1,179,681	경상운영비		2,775,000
사업수입		147,000	사업운영비	소계	4,818,000
기타수입		－		문예사업비	4,298,000
의존수입	소계	56,366,319		시설사업비	520,000
	기본재산출연금	50,000,000	예비비		100,000
	운영재산출연금	6,366,319	기본재산적립		50,000,000

» 그림으로 본 2004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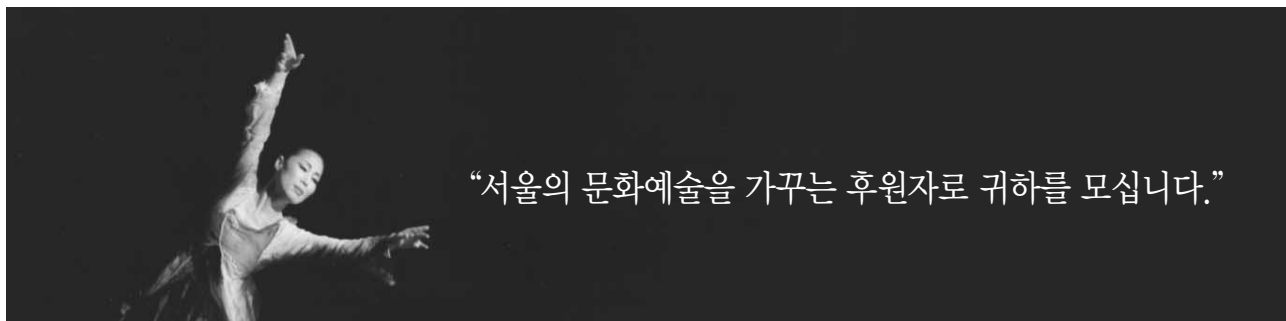
- 1.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2.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3.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기능 강화
- 4.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제외

부록

기부금 현황(기부자)	094
임·직원 및 재단을 도와주신 분	102
204 재단 간행물·홍보물	110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114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128



기부 프로그램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유산, 예술.

문화예술의 발전은 오랜 시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고 가꾸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참으로 많은 정성과 후원 속에서 성장하며, 그 힘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화의 세기, 당신의 작은 후원이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작은 후원, 기부는 바로 아름다운 예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바탕이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기부 및 문화제휴 프로그램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참여 방법으로, 또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활용되어 튼튼한 문화생태계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문화나눔 사업이다. 그렇기에 재단은 기부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순한 문화재원을 개발하는 일을 뛰어넘어, 기부자와 문화예술계가 win-win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문화가꿈’과 ‘문화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후원자가 된 당신은 작은 정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후원기업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마케팅의 기회까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원방법

- 후원자가 재단 또는 예술단체의 특정 문화사업을 지정, 후원할 수 있다.
- 특정사업 등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 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기부종류

- 서울문화사랑기금
 - 개인이나 기업이 서울문화재단의 포괄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기부금
 - 후원방법
 - ▷ 비지정후원(순수기부금) : 서울문화재단이 책임지고 운용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활용
 - ▷ 지정후원(조건부기부금) : 재단의 특성사업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 문화마을 가꾸기 기금
 - 일상생활 속의 문화환경을 가꾸고, 시민들의 풀뿌리 문화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
 - 기금의 활용
 - ▷ 시민과 예술가, 도시환경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문화적인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쓰여짐
 - ▷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숨어있는 마을 축제를 발굴 지원
- 문화희망기금
 - 소외계층에 문화생활의 혜택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기금
 - 기금의 활용
 - ▷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 사업을 공정하게 선정, 문화혜택의 나눔을 통해 삶의 희망을 북돋아 줌

-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가꾸기 기금
 - 복원된 청계천변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가꿈 기금
 - 기금의 성격
 - ▷ 청계천 다리에 예술작품 설치
 - ▷ 청계천 문화관에 전시관과 공연장을 만들어 상설 활용
 - ▷ 청계천 다리에서 각종 예술, 문화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 ▷ 청계천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사업에 쓰여짐
 - 후원방법
 - ▷ 개인 : 1구좌 5천원(문화벽돌 1장)
 - ▷ 기업/단체 : 1구좌 50만원(문화벽돌 100장)
 - ▷ 총 22개 다리 중 본인이 원하는 다리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 ▷ 벽돌마다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지며, 추후 청계천 문화관에서 확인 가능



기부방식

일시기부, 정기기부(매월, 연)

기부자 세제혜택

당해연도 개인 소득의 10%(사업소득의 경우 5%), 법인소득 8%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을 인정 받을 수 있음.

2004 문화기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연번	구분	기부자	소속	기금종류	기금명 / 내용
1	법인	(주)대림산업		조건부기부금	Hi-Seoul 페스티벌 운영
2	법인	(주)신영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	법인	(주)LG전자		조건부기부금	Hi-Seoul 페스티벌 운영
4	법인	(주)LG화학		조건부기부금	Hi-Seoul 페스티벌 운영
5	법인	서울상공회의소		조건부기부금	Hi-Seoul 페스티벌 운영
6	법인	오리콤, AIG 생명		조건부기부금	서울공연예술분야발전
7	개인	김경철	CTS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8	개인	강승규	서울특별시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9	개인	권영규	재단이사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0	개인	김순직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1	개인	김영수	케드콤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2	개인	김영호	서울특별시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3	개인	김혜자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4	개인	도동환	(사)민족문화영상협회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5	개인	박기태	KDA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6	개인	박영건	(주) 법건축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7	개인	박원홍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8	개인	서명현	태산인팩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19	개인	신용선	(주)지오엔탈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0	개인	신현일	보문통상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1	개인	안필연	경기대학교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2	개인	안해원	경주조선호텔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3	개인	앙드레킴	앙드레킴의상실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4	개인	오세훈	법무법인지성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5	개인	유인춘	재단 대표이사	조건부기부금	서울공연예술분야발전
26	개인	윤병천	뉴라이트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7	개인	이규홍	곤지암C.C.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8	개인	이재형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29	개인	이종환	옴니디자인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0	개인	이춘호	재단이사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1	개인	조안준	조안준디자인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2	개인	진수일	서울의료원	조건부기부금	문화마을가꾸기기금
33	개인	진수일	서울의료원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4	개인	최경희	재단이사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5	개인	한동훈	한건축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6	개인	홍경택	비노그룹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7	개인	홍승기	세진종합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8	개인	황병주	동영기업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39	개인	황을수	한국학원	순수기부금	서울문화사랑기금(비지정후원)

청계천 문화성금 (기업 및 기관기부자)

부록 - 기부금 현황(기부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연번	기업 및 기관명	대표자	다리지정
1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이영현	수표교
2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 정진철	이영현	수표교
3	2004 대학생 도보 국토순례단	박영석	비우당교
4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협의회	이의민	다산교
5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이춘식	새벽다리
6	서울특별시 체육회	이명박	모전교
7	자전거 할머니전봉순	전봉순	세운교
8	자전거 할머니전봉순	전봉순	배오개다리
9	지역문화 전문기획사 (주)상상공장 일동	류재현	다산교

청계천 문화성금 (일반기부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 가나다 순)

간찬기	강신정	고래건	구분왕	권용호	김경수	김규엽	김덕남	김명근
강경숙	강영진	고수복	구성철	권윤섭	김경숙	김근백	김도연	김명숙
강귀분	강용구	고순화	구성현	권은숙	김경순	김기부	김동규	김명실
강남태	강우영	고영주	구세영	권은주	김경애	김기수	김동기	김명자
강대섭	강유리	고영희	구자경	권정미	김경오	김기영	김동남	김명환
강도현	강윤복	고윤진	구형만	권정우	김경옥	김기완	김동녀	김무조
강동우	강이수	고은지	국중연	권준민	김경운	김기주	김동복	김문선
강동주	강인봉	고재동	국중진	권춘자	김경자	김기중	김동식	김문식
강동준	강종훈	고혜진	권경주	권태철	김경태	김기철	김동엽	김문오
강명훈	강철우	고효진	권기범	권택현	김경학	김기한	김동완	김문자
강명숙	강학수	공은영	권대진	권혁두	김경화	김기홍	김동운	김미연
강명희	강현구	곽노길	권수안	권혁미	김경훈	김나희	김동은	김미은
강민수	강현우	곽민석	권수연	권혁소	김경희	김남선	김동일	김미관
강백석	강형우	곽민수	권순복	권화산	김고은	김남진	김동철	김민관
강병우	강혜경	곽병한	권순숙	금강산	김관식	김남창	김동현	김민기
강병운	강혜리	곽옥자	권승주	금윤서	김관진	김남현	김동훈	김민자
강상규	경민희	곽인환	권영규	금정미	김관호	김능중	김두기	김민정
강서준	경영환	곽정수	권영돈	김성형	김광득	김다나	김두진	김민준
강성욱	경자인	곽철학	권영찬	김강수	김광석	김다운	김두호	김민호
강순규	고 강	곽태수	권오룡	김강휘	김구환	김대성	김득원	김민희
강승규	고경석	곽한웅	권오혁	김 건	김권기	김대휘	김랑휘	김배식
강신교	고두규	구군자	권용심	김경민	김권일	김대희	김말선	김범수

청계천 문화성금
(일반기부자)

부록 - 기부금 현황(기부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 가나다 순)

김병규	김성호	김완구	김재관	김중후	김항미	남미라	마지선	박길자
김병두	김성희	김완기	김재덕	김지연	김혁수	남선우	목영만	박나은
김병선	김세원	김완이	김재민	김지영	김현수	남아림	목원제	박남기
김병수	김세진	김용국	김재범	김지완	김현오	남완용	문경숙	박노섭
김병옥	김세한	김용범	김재숙	김지원	김현정	남윤수	문경은	박노숙
김병준	김소희	김용석	김재연	김지현	김현주	남 전	문권숙	박대홍
김병하	김수경	김용수	김재영	김진남	김현호	남재우	문기철	박덕수
김보름	김수남	김용술	김재웅	김진만	김형구	남춘미	문영호	박동길
김보영	김수민	김용자	김재철	김진복	김형덕	남해성	문미주	박동재
김복선	김수영	김용준	김재현	김진성	김형래	남현지	문미혜	박래경
김복수	김수진	김용현	김재홍	김진용	김형섭	노갑진	문병중	박래웅
김복자	김순근	김용희	김재훈	김진종	김형수	노경래	문성만	박명식
김봉철	김순옥	김용홍	김재희	김진호	김형옥	노경찬	문성은	박미경
김빈나	김순자	김우석	김점선	김찬우	김혜섭	노미선	문영미	박미선
김시혜	김순직	김우점	김정광	김창기	김혜숙	노범준	문용현	박미숙
김산하	김술기	김원철	김정구	김창대	김혜정	노선정	문정빈	박민지
김삼봉	김승곤	김원현	김정래	김창덕	김호곤	노양래	문종수	박법진
김삼수	김승태	김원형	김정례	김창수	김호섭	노영규	문종필	박병도
김상교	김승현	김월순	김정록	김창식	김호식	노용균	문천주	박병원
김상국	김승훈	김유리	김정배	김창준	김호열	노인숙	문태영	박병일
김상언	김신미	김유배	김정숙	김천희	김홍균	노창근	문현준	박병흠
김상주	김신성	김유화	김정심	김춘녀	김홍기	노태규	문현철	박병희
김상철	김애숙	김윤규	김정완	김춘희	김홍남	노태원	문혜영	박복순
김상훈	김양희	김윤기	김정은	김충환	김홍숙	노필연	문혜정	박봉수
김서라	김연수	김윤분	김정한	김태두	김홍한	노현석	민덕기	박상국
김서연	김연아	김윤수	김정호	김태명	김화중	노희원	민문규	박상권
김석근	김영걸	김윤숙	김정화	김태성	김화평	노희천	민선기	박상원
김석기	김영남	김은경	김정환	김태연	김효경	데이비드	민승훈	박상하
김석중	김영문	김은순	김정훈	김태영	김효성	도라지	민지희	박상호
김선민	김영보	김은실	김 종	김태윤	김효식	두김표	민형일	박상훈
김선식	김영석	김은정	김종경	김태중	김효진	두병준	민희준	박생규
김선임	김영수	김은주	김종명	김태현	김희민	두지영	박 훈	박석안
김선희	김영식	김은하	김종문	김태호	김희수	라진구	박경숙	박선순
김성권	김영아	김익승	김종민	김태환	김희용	류근학	박경애	박선자
김성길	김영옥	김익열	김종범	김필래	김희웅	류기진	박경철	박성근
김성도	김영일	김익환	김종웅	김하나	나석근	류대근	박관선	박성수
김성민	김영준	김익환	김종윤	김하년	나성채	류동걸	박관현	박성신
김성복	김영창	김인겸	김종호	김학범	나세리	류삼우	박광희	박성준
김성수	김영한	김인권	김주아	김학빈	나승일	류수아	박귀덕	박소명
김성언	김영호	김인수	김주영	김학성	나승훈	류인오	박귀서	박소영
김성완	김영환	김인숙	김주형	김한용	나윤진	류장훈	박귀원	박수연
김성용	김영훈	김인태	김준표	김한준	나은솔	류재형	박기연	박수원
김성원	김영흠	김일문	김준호	김해보	나천식	류혜영	박기영	박수임
김성은	김영희	김지중	김중건	김해옥	나형락	마낙승	박기용	박수화
김성일	김예숙	김재겸	김중섭	김해웅	남기만	마상순	박기웅	박승길
김성진	김옥례	김재경	김중태	김해정	남무석	마순원	박기형	박안석

(2004년 12월 31일 현재 / 가나다 순)

박양규	박지혜	백경구	선용진	송호창	안병기	양유창	오미영	유봉임
박양서	박진배	백민경	선주성	송환영	안병복	양윤석	오민호	유수정
박영란	박진석	백민지	성기영	송 훈	안병운	양은모	오복일	유수형
박영래	박진우	백성숙	성옥순	신근자	안병진	양일석	오부자	유승득
박영뢰	박진화	백성운	성은지	신길영	안병호	양정규	오석근	유양우
박영상	박진희	백승우	성인선	신동문	안성미	양정민	오성민	유연식
박영섭	박차리	백운경	소상희	신동준	안성진	양정안	오세진	유영춘
박영준	박찬규	백원성	소영신	신명수	안성택	양종원	오세훈	유영팔
박영희	박찬진	백장현	손경하	신명희	안수건	양주춘	오수년	유영한
박완규	박찬학	백종태	손기만	신문자	안신엽	양 진	오수영	유영호
박용구	박창균	백 철	손동준	신병식	안양주	양춘배	오수임	유오식
박용민	박창복	백행자	손병환	신봉근	안영윤	양현모	오승주	유완중
박용철	박창연	변상교	손병희	신삼수	안원숙	양희상	오연순	유용희
박우서	박재영	변재홍	손양신	신상호	안유순	양희현	오영석	유유진
박우성	박철성	변희자	손용수	신선혜	안윤성	어계란	오은경	유재기
박원대	박종규	사카모토	손인수	신선호	안은녀	어승원	오은빈	유재룡
박유미	박종길	서강민	손인식	신선화	안은석	엄복현	오은희	유재영
박윤임	박치준	서강원	손재수	신송엽	안재성	엄정민	오재섭	유재옥
박익규	박태원	서귀덕	손종석	신수용	안재환	엄주홍	오재호	유재인
박인용	박태진	서대백	손진순	신숙자	안정훈	엄태규	오정석	유재필
박인호	박현태	서대창	손해성	신승수	안중엽	엄태순	오정용	유정석
박일연	박현희	서동연	손해옥	신연배	안지선	엄태용	오정희	유진선
박지영	박형무	서동인	손현준	신영권	안지훈	엔젤린트레이	오종석	유철응
박장열	박형숙	서명수	손혜리	신용구	안진희	여미영	오진이	유철준
박장혁	박형진	서명준	송구자	신원자	안찬율	여용석	오치균	유충식
박재균	박호언	서문수	송근백	신윤오	안창남	여운현	오현숙	유태선
박재명	박홍봉	서보상	송기현	신은경	안철환	여창배	옥덕천	유태용
박재범	박홍표	서상귀	송득범	신은영	안현주	여화자	우부형	유현선
박재용	박효은	서승건	송병주	신의철	안형준	연강석	우상설	유형식
박재원	박홍수	서영옥	송성영	신인철	안호진	연광흠	우장근	윤기현
박재호	반영실	서옥석	송성동	신자경	안희성	연규송	우재곤	윤강호
박정국	방복순	서완석	송순옥	신재일	양경철	연보라	우정훈	윤건혁
박정규	방세원	서원근	송승익	신재한	양경화	연성흠	우진택	윤관형
박정수	방종순	서은정	송연홍	신종균	양공수	연소라	우창원	윤기두
박정순	배경원	서일권	송영철	신종수	양대현	연소영	원영구	윤기명
박정원	배기백	서정관	송운용	신지영	양동규	연윤서	원재연	윤달섭
박정준	배낙훈	서정태	송정자	신현기	양두호	연제덕	위광식	윤덕목
박종구	배덕진	서정협	송정호	심광순	양목이	연준택	위기희	윤봉섭
박종웅	배명철	서하얀	송중환	심도환	양민수	염재옥	위성동	윤석민
박종일	배수용	서학자	송준규	심상학	양사선	오경아	위재영	윤석빈
박중하	배 숙	서현영	송준서	심승훈	양삼분	오경민	유경순	윤석수
박주남	배순영	서혜경	송진희	심재성	양석원	오경진	유경식	윤석은
박주용	배종우	서호석	송창섭	심재홍	양성태	오광준	유경희	윤세향
박주호	배지훈	석순동	송현규	심희원	양순철	오 권	유광영	윤송이
박준희	배진수	석용배	송혁진	안금란	양영대	오권학	유기운	윤수길
박지성	배희정	선오임	송호성	안두호	양영상	오기봉	유대식	윤수열

청계천 문화성금

(일반기부자)

부록 - 기부금 현황(기부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 가나다 순)

윤숙연	이교영	이병석	이승준	이윤근	이중훈	이현준	임영중	장왕일
윤양원	이국호	이병엽	이승진	이윤미	이주용	이현경	임영준	장용호
윤연옥	이규희	이병재	이승현	이윤주	이주현	이현미	임영탁	장우국
윤영남	이기숙	이병준	이승희	이은경	이준수	이현숙	임예순	장옥청
윤영대	이기원	이병희	이시훈	이은기	이준승	이현정	임용채	장은섭
윤영민	이기찬	이보현	이어진	이은숙	이준하	이현희	임윤태	장을용
윤영일	이기춘	이복희	이에스더	이은영	이지연	이형우	임인구	장익군
윤옥섭	이기훈	이봉건	이 영	이은주	이지은	이혜경	임인순	장인규
윤옥진	이남옥	이봉구	이영균	이은하	이지현	이혜선	임재오	장자성
윤원섭	이남형	이봉균	이영미	이익주	이진수	이혜은	임재화	장장순
윤정민	이남호	이봉돈	이영부	이인근	이진영	이혜인	임정수	장재복
윤정연	이다연	이분자	이영분	이인철	이진옥	이호기	임정식	장재환
윤정현	이덕배	이산하	이영실	이인혜	이진화	이호준	임종숙	장정숙
윤정희	이덕순	이상빈	이영우	이임섭	이찬웅	이호철	임종순	장준래
윤제길	이도경	이상성	이영재	이자영	이창갑	이호현	임준채	장지은
윤종민	이도현	이상수	이영주	이장숙	이창로	이흥규	임지현	장진희
윤좌지자	이동권	이상용	이영희	이재갑	이창범	이흥철	임진혁	장찬식
윤주형	이동근	이상옥	이오영	이재관	이창식	이화신	임태관	장형락
윤지환	이동영	이상원	이옥상	이재광	이창열	이화옥	임태수	장 택
윤택진	이동옥	이상이	이옥순	이재복	이창우	이화재	임태순	장 현
윤희경	이동원	이상주	이옥자	이재상	이창학	이효빈	임하정	장홍석
유희국	이동화	이상진	이용문	이재석	이창호	이효준	임형수	전계목
유희원	이두영	이상호	이용수	이재수	이창환	이 훈	임호빈	전범재
유희진	이두원	이상화	이용우	이재신	이철구	이흥재	임홍선	전봉순
음신혜	이두호	이상훈	이용재	이재용	이철상	이희복	장건석	전석현
음인혜	이란우	이상희	이용태	이재찬	이철영	이희승	장경애	전성은
이기인	이만원	이새롬	이우상	이정관	이철우	이희신	장경옥	전성주
이강덕	이명배	이석인	이우선	이정근	이철호	이희준	장경호	전용덕
이경광	이명수	이석화	이우진	이정돈	이춘숙	임건상	장구중	전원찬
이경만	이명아	이선영	이우진	이정래	이춘희	임계호	장길석	전인택
이경복	이명우	이선혜	이옥침	이정복	이탁월	임규삼	장길아	전춘희
이경수	이명주	이상림	이웅길	이정석	이태영	임대빈	장덕석	전혜만
이경연	이명희	이성민	이원근	이정수	이태형	임대성	장동우	전현옥
이경용	이무림	이성수	이원구	이정식	이택근	임동국	장병선	전형문
이경자	이문세	이성열	이원영	이정엽	이풍식	임두선	장병준	전희진
이경재	이문자	이성준	이원일	이정표	이필희	임명언	장새결	정경인
이경현	이문희	이성하	이원탄	이정훈	이하원	임미라	장석조	정광용
이계열	이미경	이성혁	이원휘	이제영	이학구	임병길	장석현	정기영
이계자	이미라	이성호	이월복	이종근	이한규	임병환	장석호	정기택
이관희	이미정	이소덕	이유국	이종규	이한상	임보영	장성욱	정다솔
이광석	이민경	이숙자	이유라	이종숙	이한서	임상규	장수철	정달근
이광식	이민배	이숙재	이유신	이종순	이한진	임성임	장순형	정동수
이광열	이민옥	이순경	이유진	이종왕	이한필	임성진	장양규	정동운
이광진	이민재	이순남	이유채	이종원	이한희	임승호	장영기	정동진
이광현	이범순	이순자	이윤경	이종호	이해우	임양목	장영배	정두홍
이교범	이병로	이승주	이윤권	이중화	이해중	임영미	장영선	정로사

(2004년 12월 31일 현재 / 가나다 순)

정명래	정일영	조동환	주어진	천정애	최연우	최진석	한후석	홍진수
정명진	정일찬	조등자	주영근	최경환	최연호	최진원	함명수	홍현구
정명희	정재기	조명수	주 우	최경희	최영묵	최창혁	함영훈	홍현오
정민정	정재열	조 문	주은영	최고요	최영미	최태규	허간도	홍현정
정범모	정재용	조백순	주창식	최광규	최영우	최혁수	허동경	홍혜란
정범수	정재은	조병만	주춘선	최구섭	최영재	최현동	허석규	황미령
정범준	정중규	조상명	주한식	최규은	최영태	최현수	허성한	황 민
정병규	정진극	조석호	주홍윤	최규중	최영화	최호권	허소제	황병순
정병일	정진근	조상익	지동렬	최길수	최영희	최홍순	허 영	황봉연
정병준	정진송	조성철	지석배	최다정	최예은	최희원	허정진	황상호
정병하	정친영	조성출	지윤미	최달수	최원정	추상기	허찬희	황선웅
정상옥	정찬웅	조성현	지은택	최대성	최용일	태범스님	허태관	황선희
정상은	정찬익	조성호	지재웅	최대우	최우석	패트리스	한병일	황성용
정상철	정철연	조세연	진경천	최동선	최우식	패트리스 슈와이처	호 산	황수경
정상훈	정철희	조승완	진미향	최동윤	최원석	하길랑	홍광길	황술연
정석호	정태구	조시웅	진병용	최동필	최유준	하동준	홍대식	황용희
정석훈	정태옥	조연익	진수일	최두엄	최윤식	하명희	홍동연	황유라
정선일	정태인	조영하	진승원	최명수	최윤희	하성우	홍륜희	황의석
정선하	정한영	조오영	진안평	최문옥	최은주	하윤선	홍명찬	황의태
정선희	정해원	조용만	진영옥	최미경	최은지	하은화	홍민자	황인동
정상민	정해화	조용상	진용황	최미선	최의수	하태엽	홍복자	황인범
정세환	정행교	조용지	진재선	최민주	최익기	하현우	홍사용	황인아
정승일	정헌재	조우진	진재원	최병률	최인호	하현석	홍상만	황인재
정승혜	정현교	조원신	진중언	최병철	최재완	하형만	홍성범	황인준
정승환	정현민	조원필	진주언	최병출	최재웅	하호영	홍성욱	황인필
정시윤	정현숙	조원희	진준지	최병휘	최재학	한공영	홍수열	황정애
정연실	정혜윤	조은주	진지만	최보근	최전분	한국영	홍순성	황정자
정영석	정혜인	조은희	차명숙	최복수	최점영	한금님	홍순화	황종화
정영숙	정혜진	조재경	차명호	최부득	최정규	한금주	홍승표	황지은
정영훈	정홍범	조정희	차명화	최상진	최정순	한동희	홍영두	황지혜
정예슬	정효성	조준호	차상준	최상태	최정원	한만수	홍용완	황지후
정응대	제삼차	조중원	차식환	최선미	최정자	한문철	홍용표	황차호
정우복	제타롱	조창훈	차재혁	최선아	최종민	한강수	홍원석	황하수
정우진	조경숙	조택연	차주호	최선영	최종수	한영희	홍은기	황희연
정원동	조광빈	조항규	차창훈	최선철	최종익	한웅희	홍은진	황희춘
정원준	조규일	조현석	채명준	최성옥	최종호	한유석	홍이지	
정유리	조금주	조효상	채수영	최성일	최준호	한정윤	홍재희	
정윤상	조기현	조희경	채수훈	최수진	최중덕	한제현	홍종명	
정윤숙	조남숙	조희정	채홍석	최순영	최중식	한지연	홍종수	
정은영	조남춘	주갑진	천길성	최순임	최지영	한 철	홍준표	
정은주	조동래	주남국	천민호	최승각	최지웅	한철희	홍지수	
정의철	조동철	주남송	천일범	최승대	최진규	한혜경	홍진규	

재단 임·직원

재단을 도와주신 분 (가나다 순)

부록 - 임·직원 및 재단을 도와주신 분

재단 임직원

■ 이사장	정 연 희	■ 사무처장	이 정 관
■ 대표이사	유 인 촌	■ 기획운영국장	허 만
		■ 문화사업국장	김 영 수

• 기획운영국

〈 기획조정부 〉

부장 이윤근, 차장 김홍남, 차장 하동준, 백승우, 김해보, 장재환, 강혜리

〈 운영지원부 〉

부장 황봉연, 차장 조원필, 차장 김문식, 주한식, 백성운, 이인혜, 노혜은

〈 문화네트워크부 〉

부장 오진이, 박상혁, 김보영, 강지영, 고운진

• 문화사업국

〈 문예지원부 〉

부장 김혁수, 차장 손혜리, 한지연, 김수현, 김보름

〈 문화사업부 〉

부장 이진왕, 차장 김영호, 임미혜, 이박규현, 이규승, 이현아

〈 학술연구부 〉

부장 김경옥, 차장 정혜원, 차장 김현자, 남미진

• TF팀

〈 청계천 문화사업팀 〉

부장 최중철, 유수정

〈 이동식공연장 운영팀 〉

부장 김주형, 무대기술감독 윤기중, 김면규, 피예경, 조권주, 안미영, 이현주

Hi Seoul 페스티벌 2004 시민모임 위원

• 시민위원회

○ 문화예술·학계 분야 위원

김신환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박명진 (서울대 교수)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유인촌 (재단 대표이사)
윤석화 (월간 객석 대표)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이우태 (서울학연구소장)
최불암 (방송인)

○ 언론·홍보 분야 위원

구삼열 (아리랑TV 사장)
남승욱 (교통방송 본부장)
노석기 (한국방송아카데미 이사장)
박래부 (한국일보 논설위원)
류 건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국정 (SBS-TV 부사장)
이문태 (KBS 예능국장)
이영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조일형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회장)
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 민간기업 분야 위원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안바른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
천호균 (쌈지 회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황영기 (우리는행장)
Michael L. Breen (FIAC 위원)

○ 유관기관, 시의회 분야 위원

공창규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김기성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김장환 (명동·남대문·북창 관광특구연합회 회장)
김종혁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국장)
김홍식 (서울시 교육문화위원)
배관석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회장)
성기택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
임기완 ((사)서울토박이회 상임부회장)

임재식 (서울 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정연희 (서울시 교육문화위원)
정우식 (한국일반여행협회장)

• 실무위원회

○ 기획·연구 분야위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
안이영노 (문화기획자)
이규석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전경옥 (고려대 교수)

○ 공연·연출 분야위원

김성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
김춘식 (천안대 교수)
류재현 (상상공장 대표)
설도운 (설앤컴퍼니 대표이사)
양정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예술감독)
이동연 (한국기술대 교수)
정강환 (배재대 관광경영대학원장)

○ 사업·운영 분야위원

권구연 (한국스카우트연맹 문화기획팀장)
박연근 (경북공 관리소장)
이각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장)
전성민 (유네스코 문화교류센터 소장)
전효관 (문화기획자)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

○ 관광·홍보 분야위원

김광일 (조선일보 문화부차장)
김재훈 (명동·남대문·북창 관광특구연합회 사무국장)
박상철 (한국관광공사 이벤트팀장)
송병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
이병목 ((주)메트로신문사 부국장)
이홍재 (문화관광부 문화정보센터 소장)
정동천 (SBS 문화사업팀장)

○ 평가·분석 분야위원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무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
이 훈 (한양대 교수)

재단을 도와주신 분 (가나다 순)

부록 - 임·직원 및 재단을 도와주신 분

2004 문예지원공모사업

운영심의위원

- | | | | |
|--------|--------------------|--------|-----------------------|
| - 문학 | 정연희 (소설가) | - 문화일반 | 강효주 (세종문화회관 이사) |
| - 미술 | 강석영 (이화여대 교수) | | 김기성 (서울시의회의원) |
| - 음악 | 최경희 (주부환경단체푸른솔 회장) | | 김석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연극 | 최치림 (중앙대 교수) | | 손기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
| - 무용 | 김복희 (한양대 교수) | | 이세기 (대한매일논설위원) |
| - 전통예술 | 이상규 (한양대 교수) | | 이치화 (서울시의회의원) |
| - 영화 | 이미례 (영화감독) | | 정홍익 (서울대 교수) |
| | | | 차광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전문위원) |

평가위원

- | | | | |
|------|--|--------|---|
| - 문학 | 박명진 (중앙대 교수)
이승원 (서울여대 교수)
현재원 (성균관대 강사) | - 전통예술 | 김선평 (중앙대 교수)
문 현 (국립국악원)
박전열 (중앙대 교수)
현경채 (국악작곡가) |
| - 미술 | 강석영 (이화여대 교수)
김태호 (서울여대 교수)
이영기 (성균관대 강사)
임영균 (중앙대 교수)
정상곤 (동서울대 교수) | - 연극 | 김두영 (경희대 객원교수)
최정일 (중앙대 교수)
한상철 (전 한림대 교수) |
| - 음악 | 김홍승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태경 (경원대 강사)
원현미 (명지대학 강사)
이순정 (숙명여대 강사)
한상우 (음악평론가) | - 무용 | 김복희 (한양대 교수)
박성혜 (월간 몸 편집장)
성기숙 (전통원 강사)
이경희 (서울여대 교수)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 |
| | | - 문화일반 | 권종민 (문예당 대표)
손기상 (전 삼성문화재단 고문)
최경희 (주부환경단체 푸른솔 회장) |

2004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

- | | |
|------|--|
| - 연극 | 김운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용재 (스포츠조선 기자)
서연호 (고려대 교수)
신선희 (서울예술단 단장)
안치운 (호서대 교수)
이강백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병진 (청주대 교수) |
| - 무용 | 김말애 (경희대 교수)
김화숙 (원광대 교수)
박인자 (숙명여대 교수)
서종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종호 (연합뉴스 문화부장)
장광렬 (무용평론가)
정승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음악 | 김신자 (이화여대 교수)
신동호 (중앙대 교수)
신봉애 (연세대 교수)
이강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준수 (경희대 교수)
한상우 (음악평론가)
황성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국악 | 김성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장)
부두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송혜진 (숙명여대 교수)
유영대 (고려대 교수)
이상규 (한양대 교수)
최종민 (동국대 교수)
현경채 (국악작곡가) |

심의평가위원

- | | |
|------|--|
| - 연극 | 김윤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연호 (고려대 교수)
안치운 (호서대 교수)
최치림 (중앙대 교수) |
| - 무용 | 김말애 (경희대 교수)
김숙자 (한성대 교수)
박인자 (숙명여대 교수)
이종호 (연합뉴스 문화부장)
장광렬 (무용평론가)
정승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 음악 | 김경희 (숙명여대 교수)
김규현 (음악평론가)
김신자 (이화여대 교수)
신동호 (중앙대 교수)
탁계석 (음악평론가)
한상우 (음악평론가) |
| - 국악 | 박문희 (국립국악원 강사)
박소현 (한양대 강사)
서정호 (국악방송 PD)
윤희린 (서울대 강사)
최종민 (동국대 교수)
현경채 (국악작곡가) |

재단을 도와주신 분 (가나다 순)

부록 - 임·직원 및 재단을 도와주신 분

문화예술집중육성프로그램

자문위원

- 연극 김방옥 (동국대 교수)
김윤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연호 (고려대 교수)
윤광진 (용인대 교수)
최치림 (중앙대 교수)
- 무용 김영태 (무용평론)
김운미 (한양대 교수)
김태원 (동아대 교수)
김현자 (국립무용단장)
정병호 (문화재위원)
- 미술 김영나 (서울대 교수)
김태호 (서울여대 교수)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성용 (조성용 도시건축 대표)
조인숙 (다리건축 대표)
주태석 (홍익대 교수)

심의위원

- 연극 김미혜 (한양대 교수)
윤호진 (단국대 교수)
최치림 (중앙대 교수)
- 무용 김경애 (댄스포럼 대표)
김태원 (동아대 교수)
정병호 (문화재위원)
- 미술 김영나 (서울대 교수)
성완경 (인하대 교수)
주태석 (홍익대 교수)
최병식 (경희대 교수)

평가위원

- 연극 김미혜 (한양대 교수)
최치림 (중앙대 교수)
- 무용 김태원 (동아대 교수)
이병옥 (용인대 교수)

책 읽는 서울

자문위원

-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
- 김후란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 여석기 (고려대 명예교수, 국제교류진흥회 이사장)
- 유현목 (전 영화감독협회 회장, 대한민국예술원회원)
-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
- 이영덕 (전 국무총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 정명환 (학술원회원)
- 정연희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 차범석 (전 연극협회이사장, 대한민국예술원회원)
- 한운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고문)

운영위원

- 강재룡 (정독도서관 관장)
- 김 남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
- 김신일 (서울대 교수)
- 김인호 (한국출판인회 이사)
- 변지애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 이병포 (마포평생학습관 관장)
- 이정춘 (중앙대 교수)
- 임성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 정용실 (KBS 아나운서협회)
- 조우석 (중앙일보 출판전문기자)
-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재단을 도와주신 분 (가나다 순)

부록 - 임·직원 및 재단을 도와주신 분

기타

CI 자문위원	김두섭 (눈디자인 대표)	웹사이트 자문위원	고경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정보시스템 지원팀장)
	백종원 (네이트 시스템 대표이사)		김종덕 (디자인업체 보라존 대표이사)
	이유순 (삼성패션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원제 (상명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홍석기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전수환 (명지대 문화기획과 겸임교수)

편집위원

- 정기간행물 「지금 여기 서울」
 - 안상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 조선희 (소설가, 전 씨네21 편집장)
 - 홍지웅 (열린책들 대표이사)
 - 백승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예술현장 실무매뉴얼 편집위원 『국제교류』편
 - 책임편집 : 정재왈 (엘지아트센터 운영부장)
 - 편집위원 : 김종현 (PMC 상무)
 - 박지선 (춘천국제마임축제 기획실장)
 - 우 연 (서울세계무용축제 기획실장)
 - 윤보미 (전 크레디아 공연기획팀장)
 - 이진수 (월간미술 편집장)
 - 이규석 (프린지 네트워크 대표)
 - 정명주 (런던대 골드스미스칼리지 예술경영 박사과정)
-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매뉴얼
 - 전문가필진 : 김영현 (공공문화개발센터 유알아트 대표)
 - 김유석 (아트레시피 대표)
 - 김진숙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 사무국장)
 - 백혜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예술현장 실무매뉴얼 편집위원 『홍보』편
 - 책임편집 : 정재왈 (엘지아트센터 운영부장)
 - 편집위원 : 김선화 (영&앞섬 대표)
 - 김준기 (사비나미술관 학예실장)
 - 박현숙 (극단 미추 기획실장)
 - 송한샘 (라이즈온 공연사업부 마케팅팀장)
 - 윤동진 (예술의 전당 무대기술팀 과장)
 - 이순녀 (서울신문 기자)

2004 문화사랑지킴이

강경옥	연극 - 문화일반	이승연 1	음악 - 무용
김관식	무용 - 전통예술	이승연 2	전통예술 - 문학
김근화	문학 - 영화	이승희	음악 - 미술
김민정	연극 - 음악	이은수	연극 - 전통예술
김성은	문화일반 - 음악	임미숙	무용 - 문화일반
김아름	무용 - 문화일반	임수진	연극 - 무용
김안숙	문학 - 영화	장동연	미술 - 영화
김애라	연극 - 미술	장보순	음악 - 문화일반
김연숙	전통예술 - 음악	장용구	미술 - 무용
김 완	음악 - 연극	전선민	연극 - 영화
김윤서	음악 - 연극	정 준	음악 - 연극
김자영	음악 - 무용	정지현	미술 - 무용
김주희	문학 - 미술	조시영	영화 - 문학
김지민	전통예술 - 음악	차민선	음악 - 미술
김진경	연극 - 음악	최성란	문학 - 전통예술
김혜미	음악 - 문화일반	한은미	연극 - 무용
김혜완	음악 - 미술	한재숙	전통예술 - 연극
박언경	영화 - 음악		
박율우	연극 - 음악		
박은혜	영화 - 음악		
박종웅	미술 - 영화		
변수경	무용 - 미술		
손혜정	연극 - 영화		
신지선	미술 - 연극		
심향아	음악 - 문학		
안지은	무용 - 문학		
양기석	연극 - 문화일반		
오준섭	연극 - 문화일반		
이선경	영화 - 음악		
이소연	문화일반 - 영화		

사랑방장 명단

강승희	영화
박미향	문화일반, 문학
박은혜	무용
서은영	연극
이윤조	전통예술
이진향	미술
이효숙	음악

재단 간행물·홍보물

부록 - 2004 재단 간행물·홍보물



정기간행물 - 지금 여기 서울
단행본 - 예술현장 실무매뉴얼 시리즈 1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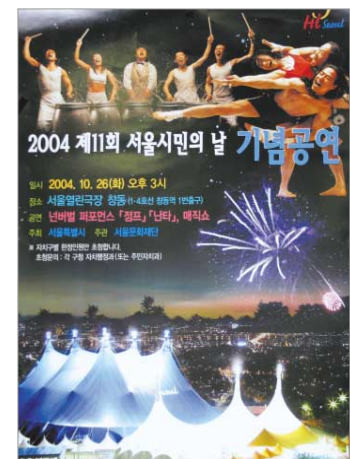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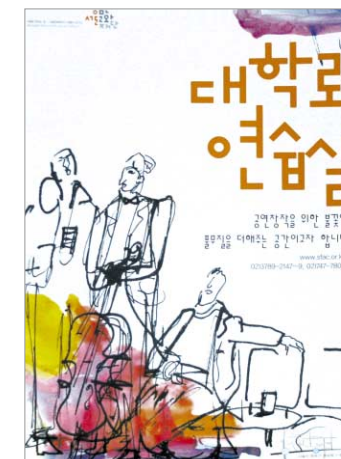
- 자료집
- 2004 서울의 도시문화 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 I
 - 2004 서울의 도시문화 이미지 활성화방안 세미나 II
 - 문화사회공헌과 기업이미지 전략
 - 서울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SINSFO)
 -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 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자료집
-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 국제네트워킹 자료집
 - 책 읽는 서울
 - (재)서울문화재단 2005년도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



포스터
- 책 읽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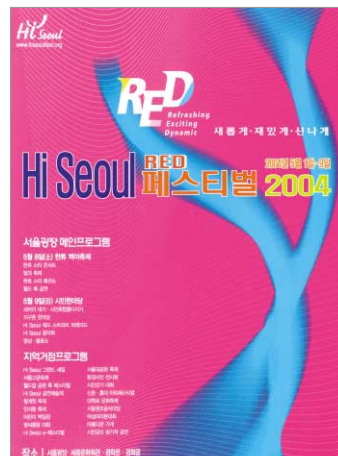
포스터 - 열린극장 창동
- 대학로연습실
- 2004 제11회 서울시민의 날

재단 간행물·홍보물

부록 - 2004 재단 간행물·홍보물



- 리플릿**
- 일상의 여유(서울광장예술프로그램운영)
 - 2004 서울국제 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 대학로연습실
 - 청계천
 - 서울열린극장 창동



- 포스터**
-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청소년 문화벤처단
 -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 Hi Seoul 페스티벌 2004 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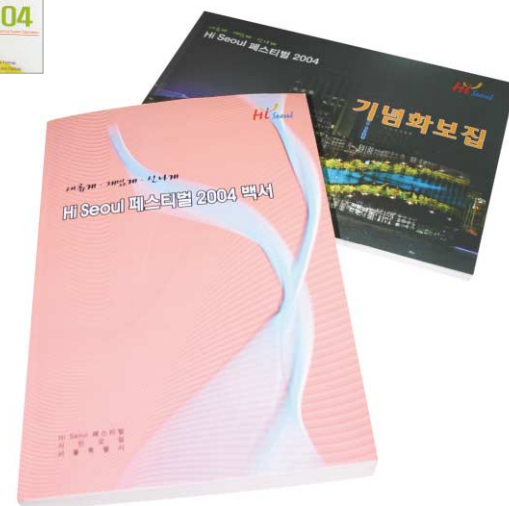


- 리플릿**
- 서울문화재단 소개 리플릿(영문본 / 국문본)
 - Hi Seoul 페스티벌 2004
 - 문화기부

- 다이어리**
- 아트 다이어리 '그림으로 보는 서울이야기' (Seoul in drawings)
 - 일반 다이어리

- 화보집**
- Hi Seoul 페스티벌 2004

- 자료집**
- Hi Seoul 페스티벌 2004 백서



독서수첩



2005년 달력

언론에 실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이모저모 ...

부록 -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동아일보

2004년 5월 17일

서울문화재단 유인촌대표 “지원금 나눠갓기식” 타파

“우리 재단이 어떤 색깔이 되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서울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기금 5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문화예술법인 '서울문화재단'이 18일 공식 출범한다. 총 목표기금이 3000억원인 매머드급 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는 연극인이자 대학교수(중앙대)인 유인촌(柳仁村)씨. 그는 재단의 지원금으로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작품'을 만들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조금씩 여러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곳에선 불만이 많을 겁니다.”

유 대표는 자신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사업과 차별되는, 서울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매일 문화계 인사들을, 많게는 수십명씩 만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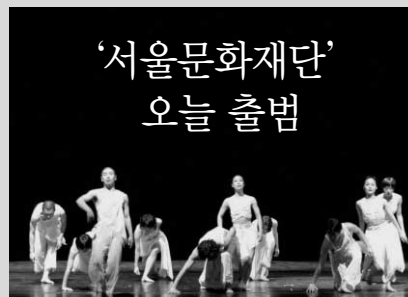
유 대표는 예술단체들이 홍보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기업은 거액의 지원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임기 3년간 기업계와 문화계 사이를 잇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올해 안으로 서울에 있는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일일이 다 만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유 대표는 일부 문화계 인사들이 자신의 선임을 놓고 '서울시의 말실행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국구 국회의원도 거절했는데, 감투 욕심은 없다. 이게 우리(문화계) 일이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 출범식은 18일 오후 5시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출범식은 김덕수 한울림예술단, 정의숙 아지드 현대무용단, 서울예고 합창단 등이 참가해 한 편의 공연처럼 진행된다.

기자 / 장광명

연합뉴스

2004년 5월 18일



‘서울문화재단’ 오늘 출범

서울문화재단(대표 유인촌)이 18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 형식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5일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로부터 기금 500억을 출연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문화예술 전문법인. 앞으로 서울시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기금지원사업 등을 펴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기존의 출범식과는 달리 사회자 없는 한 편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은 김덕수 씨가 이끄는 한울림예술단의 '비나리' 공연을 시작으로 정의숙 아지드 현대무용단의 현대무용과 테너 신동호씨의 애국가 독창,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의 피아노 독주, 서울시 소녀 합창단의 축하노래 등으로 1시간 동안 꾸며졌다.

특히 재단 대표 유인촌 씨는 출범 선포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재단 이사장 정연희 씨와 이명박 서울시장은 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축하 글과 출범 기념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림 예총 회장, 차범석 예술원 회원, 김후란 문학의 집 대표, 김용배 예술의 전당 사장, 김의준 LG아트센터 극장장,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탈린트 최불암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와 서울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 / 홍성록

26

2004. 5. 20 목요일

스포츠조선

“시민위한 문화복지에 온힘”

18일 출범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 인터뷰

“먹고 살기 힘들어져 문화생활을 못하고 사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 복지'에 가장 많이 신경 쓸 생각입니다. 이밖에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민들만만 정책 개발, 다채로운 축제 만들기 등 4가지 역점사업을 당장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의 유인촌 대표(53)가 최근 남산의 재단 사무실에서 사업 방향과 청사진을 밝혔다.

서울시 출연금 500억원으로 땀을 흘린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2006년 말까지 서울시 출연금 1500억원을 포함해 각 기업체로부터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 유대표는 극장 대표(유시여타)이자 배우, 교수로 풍부한 경험을 갖춰, 재단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행정에 그대로 대입시키겠다”는 유인촌 대표. <신보선 기자 sbs@>

2006년까지 기금 3000억원 조성 예술단체들 지원

가장 잘 꾸려나갈 책임자로 선출돼 중책을 맡았다.

유대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서울 시민들의 문화 복지. '우리 동네 문화가꾸기' 행사와 '청소년 문화벤처단' 출범, 매달 '문화의 날' 지정 등이 서울문화재단의 아이디어다. 오는 9월엔 도봉구 장동에 35억원을 들여 이동식 킷극장을 짓는다. 대규모 아파트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된 이곳에 '공연예술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

“예술단체 지원은 일단 개인만 충분히 확보되면, 소견다익의 원칙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적은 액수를 많은 단체에 제공해, 제대로 된 공연 제작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

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수를 줄이더라도, 실제 제작에 도움이 될만한 금액을 제공하겠습니다.”

유대표는 뚜렷한 기금 확보와 확실한 심사, 부작용없는 결과를 토대로 어느 누구도 군말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기에 결코 능력있는 단체를 선정, 매년 불필요한 심사를 배제한 채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지원해주는 '다년식 지원'도 검토중이다. 대학로 객석빌딩 지하엔 연습실 3개를 마련해 공연 단체에게 반값에 빌려줄 예정이다.

요즘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는 유대표는 “정작 유시여타의 운영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며 웃는다.

<서주영 기자>

FOCUS 2004년 7월 27일 화요일

서울광장서 한여름밤의 축제

29일~내달 29일까지 한달간

서울시는 29일~내달 2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려 70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29일에는 서울시 합창단의 오케라 아리아, 서울시 무용단의 부채춤과 강고춤, 서울시 뮤지컬단의 난선스, 캐츠 등 뮤지컬 하이라이트가 무대에 오른다.

29일에는 서울시 극단의 가족극 '별주부전'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1970~80년대를 돌아봤던 가수 김도향, 정계현의 팝송이 공연된다.

내달 12일에는 서울시 예술단이 출연, 오케라 아리아와 열화음악을 연주하며 19일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스페르코비치의 페스타바 서곡 등을 공연한다.

연한다.

21일에는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바블리 친구들의 재즈 콘서트가 공연되며, 28일에는 서울시 합창단의 오케라 아리아, 서울시 무용단의 부채춤과 강고춤, 서울시 뮤지컬단의 난선스, 캐츠 등 뮤지컬 하이라이트가 무대에 오른다.

28일에는 12인조 에시드 소울 밴드 '카먼그라운드'가 불라스 사운드와 화려한 리듬으로 놀라운 소리를 들려주며, 29일에는 더 에들스가 레이 주드, 에스테이, 펫 잇 비 등 비틀스의 명곡을 무대에 올린다.

서울문화재단

연합뉴스

2004년 7월 11일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발전 토론회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은 7월15일 오후 2시 대학로 중앙대 공연영상예술원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이규석 프리지네트워크 대표,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 이흥재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김현수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1부장, 박인배 민예총 기획실장, 백기영 미술인회의 사무처장, 이윤관 부천문화재단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서울문화재단의 정체성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 / 이윤영

언론에 실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이모저모 ...

부록 -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옛 '남산 안기부' 시민쉼터 대변신

〈현 서울문화재단 건물〉



공사 전 모습



높은 담장과 때에 찌든 서울문화재단의 옛 건물(왼쪽)과 담을 낮추고 나무 등을 심어 산뜻하게 바뀐 공사 뒤의 모습(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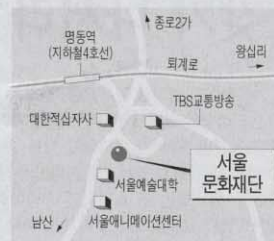
내달 공사 끝난 뒤 예상도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청사를 사용하는 서울 문화재단 건물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퇴계로 명동전철역에서 소월길(남산순환도로)을 따라 올라가는 중간쯤에서는 2층짜리 건물 안팎에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09평 앞마당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낸 자리에 잔디와 느티나무 등 17종의 나무 800그루를 심고 잘라낸 원목을 깔아 자연친화적으로 꾸미고 있다. 잔디밭에는 태양광을 충전했다가 밤에 빛나는 조명등 7개가 설치돼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벤치도 2개를 설치해 이 공간을 문화인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휴식처로 개방할 계획이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3m 높이의 담벼락도 '예술품'으로 바뀌고 있다. 담장은 위쪽에 꽃혔던 쇠막대를 뽑아내고 곡선형으로 개조됐다. 또 담 바깥으로 담장이던 굴 하단을 만들어 소월길을 다니는 이들에게 '녹색 보도'를 제공할 예정이며, 담에는 벽화를 그려 미적 감각을 한껏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콘크리트 뜯고 나무 심어
조명·벤치 설치 7월 개방
건물 내부도 예술품 가득



건물 내부는 이미 문화재단답게 치장됐다. 1·2층 사이의 계단 벽면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창문 2개가 그려져 있고, 담 위를 서성이는 고양이 그림도 살아있는 듯 생겼다. 이대 조소과 졸업생들이 검은색 테이프를 이용해 만든 설치미술 작품이다.

지난 3월 이 건물에 입주했던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내 방에 들어서면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당시 서울문화재단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문화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유 대표는 곧바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초대해 "문화 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냄새를 지우고 싶다"고 요청, 46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고 한다.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옛 흔적도 남아 있다. 2층 대표방 창 밖에 처했던 쇠창살은 사라졌지만 녹슨 자국은 그대로였다. 유 대표는 "공사가 끝나는 7월 중순 건물 외벽 물청소까지 마치면 진짜 문화단체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표기자 bowler1@chosun.com

A28 2004년 8월 18일 수요일

제25842호 동아일보



서울 서대문구 대학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왼쪽)와 호주 멜버른의 칼튼가든 놀이터. 서울의 놀이터는 미끄럼틀 그네 등 획일적인 형식이지만 외국의 놀이터는 예술가들이 놀이터 조성에 참여해 조형미가 돋보인다.

"아파트 놀이터를 미술관처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서울의 아파트가 문화의 향기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놀이터가 제각기 다른 형태로 꾸며지고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꾸미는 문화마당도 열린다.

예술가가 직접 조형물등 제작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화재단 오진이 문화네트워크 부장은 "문화마을 가꾸기는 각박해진 도시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아파트라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술품 속 놀이터=문화재단

이 구상 중인 놀이터는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으로 이뤄진 획일적인 놀이터와 차원을 달리한다. 화가 조각가 등 예술가들이 놀이터를 제작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미는 것.

다양한 조형물과 그림 등을 배치해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함께 즐기는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단은 장기적으로는 25개 자치구마다 세다른 조형식 놀이터를 만들어 3~6개월에 한번씩 순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

토털컬러의 노준의 박장은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조각가를 초빙해 바다를 놀이터를 만들고 6개월마다 순환 배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단은 여성건설인협회와 함께 올해 말까지 놀이터 정비를

만들어 전시회를 가진 뒤 2005년 공공 놀이터부터 바뀔 나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스스로 꾸미는 아파트 공연=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상설화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아파트 주민과 함께 협회체를 구성해 공연 프로그램을 짜고 연극 클래식 전공자들을 문화활동가로 양성해 아파트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주민 스스로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은 기업 후원 등을 받아 관련 시설을 제작한 뒤 각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
창태윤기자 poetee@donga.com

한국일보

2004년 8월 22일

이동식 천막극장 강북주민 문화갈증 푼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윤선미(28·여)씨는 가끔 영화 말고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우아한' 공연을 즐기고 싶지만 여간간히 큰맘을 먹지 않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술의 전당(양재동)이나 LG아트센터(역삼동)까지 내왕하려면 두세시간은 족히 걸려 공연도 보기 전에 잔이 다 빠지기 일쑤. 그러나 앞으로 '서울종단'에 나서지 않고도 다양한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다음 달이면 '문화 불모지대' 강북에 첫 이동식 공연장이 문을 열기 때문이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이동식 천막극장, 일명 빅탑 시어터(Big Top Theater)가 다음달 10일 창동에 문을 연다.

서울시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봉구 창동운동장에 38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빅탑 시어터는 총 1,200석 규모, 운동장 부지 내 3,481평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공연장은 티켓 박스와 로비, 메인테트 등 3종류의 텐트로 구성된다. 6개의 최기둥 위로 세워지는 메인테트는 무대설비와 장비 등이 설치된 후무대와 가로 16m·세로 12m·높이 7m의 대형 메인무대, 카펫이 깔린 1,200여 관객석으로 나뉜다. 천막극장이라고 해서 '선풍기' 또는 '석유난로'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현대 화장실과 냉난방설비가 완비되고, 스테바 등 판매시설과 휴게공간도 들어서 최고급 극장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시 관계자는 "소방 보안시스템도 설치, 안전에도 최대한 신경을 썼으며, 텐트는 초속 40m의 강풍과 30cm가량 눈이 쌓여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 설계됐다"고 말했다.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갈증 해소를 위한 이동식 극장은 당분간 창동에서 운영되다 곧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체와 설치가 쉬운 만큼 운용공간이 있는 지역에서 '게릴라식'으로 운영하며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한다는 게 시의 방침.

현재 창동운동장 외에 천막극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상암동 서교기지와 노원구 태릉일대, 한강시민공원 등이다. 개관 후 첫 3일간(9월10일~12일)은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등의 개관기념 공연으로 꾸며지며, 운영은 서울문화재단이 맡는다. 이후 본격적인 공연프로그램이 개막되는 17일부터 가족뮤지컬 '정글이야기', 체조동작을 원용한 퍼포먼스 '점프', 마당놀이 '행파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연달까지 이어지며 강북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주게 된다.

기자 / 박선영

언론에 실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이모저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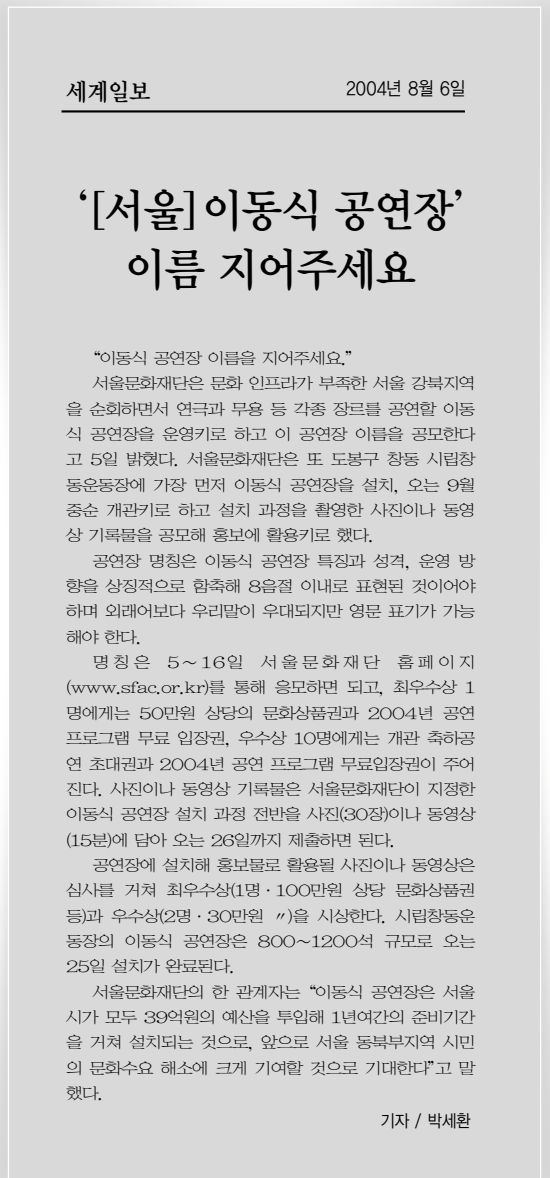
부록 -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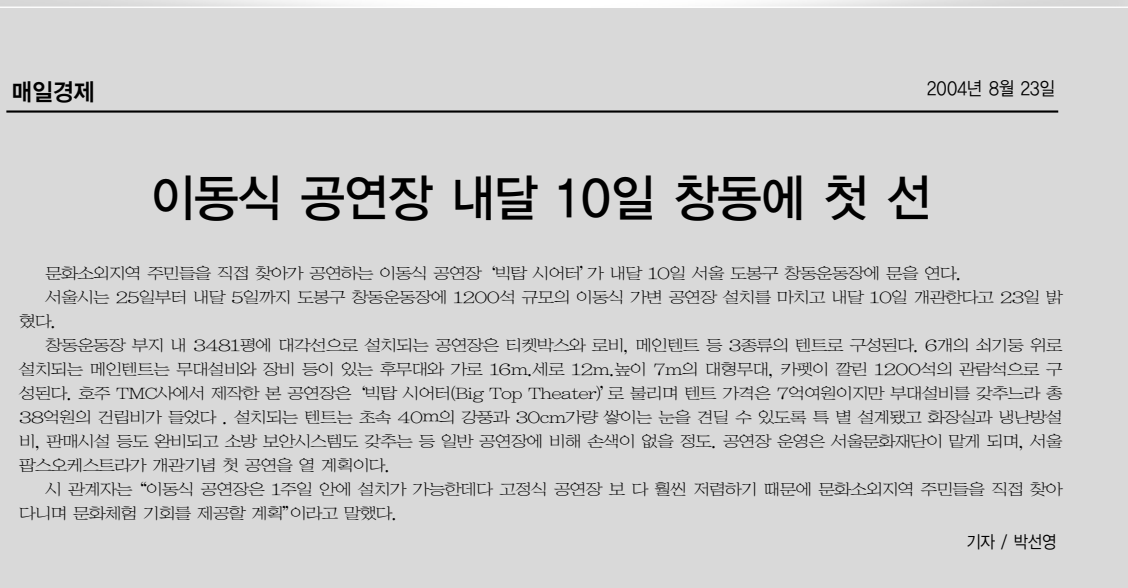
한국교육신문 /
2004년 9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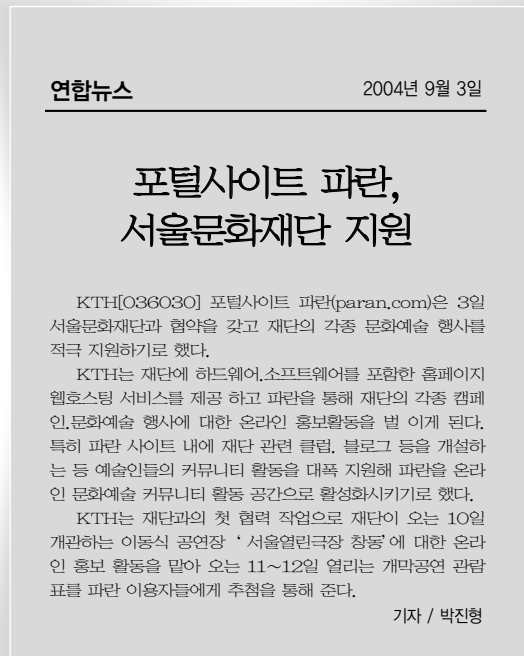
기자 / 송복규



기자 / 박세환



기자 / 박선영



기자 / 박진형

언론에 실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이모저모 ...

부록 -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신음하는 기초예술 책임기로 살립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서울시내 31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서울-기초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행사를 연다.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독서를 통해 위기에 처한 기초예술을 살리고 지역도서관을 복합 문화센터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행사기간에 각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표창초〉

개막식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지며 축하공연과 함께 책 만들기·인쇄 등 체험행사와 책 나눔장터도 열린다. 다음달 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서울문화재단은 또 분기별로 독서수첩을 공모해 책 읽는 어린이·가족·직장인 등에 시상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 2004년 9월 4일

조선일보

2004년 9월 8일

예술의전당 부럽잖은 이동 공연장, 창동서 내일 문 열어

‘꼭마단을 아십니까?’

둥그렇게 쳐진 텐트에 쪼그리고 앉아 신나게 서커스를 보던 기억을 되살리는 공연장이 도봉구 창동에 들어선다.

서울문화재단이 10일 지하철 4호선 창동역 부근에 문을 여는 이동식 공연장이다. 겉모습은 꼭마단 공연장 같지만, 안은 예술의전당 못지않은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800~1200석 범위 안에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객석과 스네바,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를 돌봐줄 놀이방 등이 800평 부지에 들어서 있다. 무대가 바뀔 때마다 장면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장치도 설치했다.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필요에 따라 해체 후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

이번에 창동에 공연장을 짓는 데 든 비용은 약 35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공연장을 운영할 서울문화재단측은 “서울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윤기홍(42) 이동공연장 무대감독은 “시민들에게 다가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은 개관 기념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했다. 10일 오후 7시에는 '서울시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오프닝 팍스 콘서트'를 연다. 서울시교향악단, 뮤지컬배우 이소정씨와 가수 테이(Tea)가 주옥같은 팍스와 발라드를 들려준다. 11일 오후 6시부터는 청소년들을 즐겁게 해줄 교통방송 특집 공개방송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썸 콘서트'가 열린다. UN, 에픽하이, 서문탁, 노을, 이정, 불독맨션, 김종국, 클레오, 듀크 등이 출연한다. 12일 오후 7시에는 한울림예술단의 '우리음악 공연'과 김덕수 사물놀이가 이어진다.

기자 / 홍현표

한국일보

수도권

“사색의 가을엔 책을 펼쳐보세요”

■市 공공도서관 독서체험 프로그램 풍성

“가을 독서여행을 떠나보자.” 아침 저녁으로 솔솔 부는 바람과 책장 넘기는 소리가 잘 어울리는 9월, 서울시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시내 공공도서관과 함께 마련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이번엔 마련된 프로그램들은 어린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인형극 공연과 미술작품 전시회, 가족사진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곁들여져 가족 주말 나들이로도 제격이다.

책도 읽고 작기도 만나고 독서 습관도 아낀다. 구로도서관은 9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들에게 글짓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글쓰기 교실을, 종로 어린이도서관은 오는 16일 어린이 독서운동 마포평생학습관과 성북정보도서관

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습관을 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매우 유익하다”며 “학습 효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독서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독서 습관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 연중 문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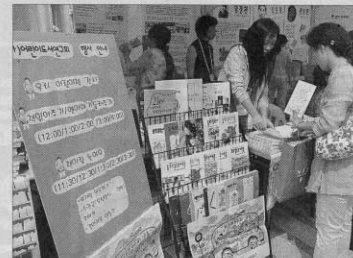
글짓기교실 등 교양강좌에 인형극 등 가족문화행사도

은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어린이 독후감 쓰기 대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독서 및 글짓기 습관을 길러줄 계획이다. 남산도서관과 정독도서관 등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독서 지도법에 관한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작가를 직접 만나보는 것도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 남산도서관과 개포도서관은 6일과 16일 각각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마련. 작가로부터 책에 대한 설명과 작품 세계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엔 다양한 도시교향악단 마포평생학습관

은 오는 13~26일 도예 및 색채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금천구립도서관은 내달 중 가족사진 콘서트를 열어 우수작에는 상금을 할 계획이다.

고척도서관은 23일부터 내달 4일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책 읽는 서울' 개막식 행사에서 어린이도서관 구획가 우형 통화책들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제공

서울시내 주요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명	프로그램	날짜	문의(02)
강남도서관	행동과 그림책 인형극 공연 책 잔치 이야기 잔치	9월18일 10월28일	3448-4744
강동도서관	재미있게 학습하는 M&E 독감	9월15일	483-0728
강북문화정보센터	우리 도서관 그리기	9월14일	945-7575
강서도서관	우리 함께 통화책 놀자	10월중	2853-1233
개포도서관	장기와의 대화	9월16일	573-5780
고척평생학습관	강동가족 문화의 밤	9월25일	426-2053 (교향222)
고척도서관	어린이 주부 독서회 어린이를 위한 풍요·풍요 전시회	9월14, 28일 9월15~21일	2615-0526
구로도서관	버스도서관과 함께 하는 어린이 독서 캠페인	10월중	861-6495
금천구립도서관	도시 바퀴보이 행사	10월2일	963-9545
남산도서관	자녀 독서지도 및 독서지도 교양 강좌	9월15일	754-7338
동대문도서관	이과재지 실험체와 꿈꾸는 예술과 인형극 공연	9월20일	2254-1846
상계정보도서관	제1회 상계구 어린이 독후감 쓰기 대회	9월19일	2290-4054
송파도서관	책 나눔터	9월17일	404-7914
양천도서관	문학 강연회	9월13일	2643-3805
영등포평생학습관	모름 독서인 시상	9월21일	2676-8883
정독도서관	자녀 독서지도 강좌	10월7~8일	2011-5799
종로도서관	문화교실 도예반 작품전시회	9월13~26일	737-1703

까지 미술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 미술행사를 선보이며 종로도서관은 13~26일 도예 및 색채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금천구립도서관은 내달 중 가족사진 콘서트를 열어 우수작에는 상금을 할 계획이다.

시민 김석훈(40·동대문구 장안동)씨는 “일반 도서관에도 문화센터 못지않게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았다”며 “주말 가족 나들이에 참이 참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태현기자 baegme@hk.co.kr

한국일보 / 2004년 9월 6일

독서캠페인 책 읽는 서울 개막

서울.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독서 캠페인 '책 읽는 서울'이 내달 28일까지 서울 시내 31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열린다. '기초예술-책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독서 캠페인은 위기에 처한 기초예술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독서 운동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상규기자 boyondal@focus.co.kr

포커스 / 2004년 9월 4일

출판 동네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은 서울 시내 31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서울' 독서운동을 시작한다.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책 만들기에서부터 인쇄, 책 나눔 장터, 기초예술서적 전시 등이 펼쳐진다. 이어 5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룸에서는 서울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28일에는 '책 읽는 서울' 시상식이 열린다. (02)3789-2136.

한겨레 / 2004년 9월 4일

언론에 실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이모저모 ...

부록 -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OCH○컬처뉴스

2004년 11월 19일

서울 국제페스티벌기획가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11월 26, 27일과 1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코엑스 아셈홀에서

서울문화재단(대표 유인촌)과 아시아공연예술축제연맹 한국본부는 '페스티벌 운영을 통한 도시마케팅과 관광문화산업 발전 전략 모색'을 주제로 <2004 서울 국제페스티벌기획가 네트워킹 세미나(SINSFO)>를 11월 26, 27일과 12월8일 두 차례로 나눠 코엑스 아셈홀과 흥국생명빌딩에서 각각 개최한다.

세계 각 축제의 도시 마케팅 전략 및 사례를 벤치 마킹하고 나아가 서울의 축제지원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더글라스 고포에(홍콩 아트페스티벌 위원장), 고창리(싱가폴 아트페스티벌 위원장), 사키오 이치무라(동경 국제예술축제 위원장), 첸 쉹 라이(국제예술축제 위원장), 로빈아처(2005 영국 리버풀 축제 집행위원장), 폴 거진(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집행위원장) 등 해외 유명 축제 기획가가 대거 참가해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될 제1차 세미나(아시아권)에서는 축제운영을 통한 아시아권 도시마케팅 성공 사례를 통해 각 나라 정부의 축제 지원 전략 및 도시개발 사례가 집중 조명되며, 12월8일 오후 4시부터는 열리는 제2차 세미나(영국, 호주)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축제 정체성에 대한 각국 패널들의 제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유지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수택(한국공연예술축제협의회 회장), 이훈(한양대 교수), 남정숙(성균관대 문화전략연구소 소장), 김주호(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정만혁(과천 한마당축제 기획팀장), 최석규(춘천 마임페스티벌 부예술감독), 김혁수(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부장)이 저정토론자로 나선다.

부대행사로는 26일, 2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코엑스 아트홀에서 연극 3팀, 무용 3팀, 음악공연 2팀 등 총 8개 단체가 참가해 각각 20분간 무료 공연을 펼치며, 12월 7일에는 영국문화원(흥국생명빌딩 4층) 이벤트 룸에서 에딘버러 진출 관련 기획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기자 / 오치화

헤럴드경제

2004년 11월 23일

“서울광장서 늦가을 느껴요”

24~26일 축제... 레인독 등 공연
늦가을, 낙엽이 발밑을 스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도심 속에 머물러 있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서울광장에 가 보자. 작지만 따뜻한 공연인 서울광장축제 일상의 여유가 24~26일 점심시간(12시20~50분)에 시민들을 찾는다.

24일에는 6인조 재즈 밴드 레인독(Rain Doc)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보컬 이필연을 필두로 블루스, 팝 등을 연주하는 이 팀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재즈를 들려줄 예정이다.

25일에는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곡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전 피노키오 보컬 강주원의 무대가 마련된다.

2004년 서울광장축제는 26일 여행스케치가 멋지게 마무리하게 된다. 1989년 여름, 각 대학의 노래꾼들이 모여 결성한 그룹 여행스케치는 별이 진다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웬지 느낌이 좋아 등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민들의 가슴을 적셔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축제 일상의 여유가 그 동안 시민들이 지나는 길에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축제를 마련해 서울광장에 신선함과 공익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부(02)3789-2148, 2149

기자 / 이태경

경향신문

2004년 12월 7일

유인촌 문화재단 대표 기부금 받고 CF

서울문화재단은 유인촌 대표가 최근 AIG생명보험으로부터 공연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2억 7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회사 광고에 출연했다고 7일 밝혔다.

유대표는 지난 3월 발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공익광고 외에는 일절 출연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5백억원을 들여 지난 3월 출범한 문화재단은 최근 오세훈 변호사가 1천만원, 박원홍 변호사가 6백90만원을 기부하는 등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 / 김창영

동아일보

2004년 12월 7일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 “광고출연료 2억7000만원 기부”

“한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유인촌(柳仁村·53·사진)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최근 자신이 출연한 광고 출연료 전액을 문화재단의 공연예술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문화재단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예장동 재단 사무실에서 AIG생명보험과 2억7000만 원의 기부금 약정식을 갖는다. 이번 기부약정은 유 대표가 내년 11월까지 1년간 AIG생명보험의 전속광고모델로 활동하는 조건. 유 대표는 7일 “문화 발전을 위해선 독지가들의 지원과 기부가 절실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 문화계에 대한 지원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늘 안타까웠다”며 “문화재단이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문화 북덕방’ 역할을 맡아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기업 등으로부터 총 30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는다는 목표다. 유 대표의 CF 출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 대표는 2001년부터 3년간 중앙대 출신 연예인들과 함께 출연한 CF 출연료를 모교발전기금으로 냈고 ‘이웃사랑회’, ‘위기가정 지원이 운동’ 기금 마련에도 참여한 바 있다.

기자 / 황태훈

언론에 실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이모저모 ...

부록 -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KMY©컬처뉴스 2004년 11월 19일

서울문화재단, 11월 3째주 학술주간 진행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춘)은 11월 셋째주를 ‘학술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문화예술의 학술정보 모색과 관련해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 ‘국제페스티벌기획자 네트워크’, ‘문화사회공헌’ 등을 주제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 된다.

첫 번째 행사로 11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열릴 ‘서울의 도시문화 이미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서울 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의 도시문화이미지를 분석하고, 서울의 중장기 문화전략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시아예술축제연맹(AAPAF) 공동주최로 11월 26일(금), 27일(토) 그리고 12월 8일(수) 3회에 걸쳐 진행될 ‘서울 국제페스티벌 기획자 네트워크’ 세미나는 홍콩,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의 축제기획자를 초청, 각 축제의 도시 마케팅 전략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축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문화기부와 관련해 기업의 사회공헌분야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고 학계 전문 의견을 토론허게 될 ‘문화사회공헌’ 세미나는 26일(금) 1시 30분부터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열린극장 마당놀이 ‘뽕파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열린극장 창동에 서는 12월 5일까지 마당놀이 ‘뽕파전’ (극단 예인)을 선보인다. 판소리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뽕떡어머를 현실적이고 절약정신이 강한 주인공으로 그렸다.

특히 이번 공연은 효심을 되새기는 의미로 60세 이상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만원으로 어느 좌석이건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금 7시30분, 토요일 4시, 7시30분, 일요일 2시, 6시(월 쉼).

문의=02)3444-0651, www.ppaengpa.com

한국교육신문 / 2004년 11월 15일

헤럴드경제

2004년 12월 16일

‘하이 서울페스티벌...’ 발족

서울시는 내년도 하이 서울(Hi Seoul) 페스티벌을 앞두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 시민 모임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시민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로, 시민모임은 문화예술·학계, 방송·언론계, 관광 분야, 민간기업 등 각 분야의 시민대표 66명으로 구성됐다. 박용성 서울상공회의소 회장과 방송인 최불암 씨가 지난해에 이어 공동대표로 위촉됐다. 또 표재순 연세대 교수는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는 예술 총감독을 맡고, 유인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행사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2005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내년 4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기자 / 장연주

한국일보

2004년 12월 25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개관

서울문화재단은 27일부터 종로구 동숭동 동숭아트센터 맞은편 한석빌딩 내 지상1층, 지하2층에 ‘대학로 연습실’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총 310평 규모의 대학로 연습실은 뮤지컬 등 중·대형 공연작품을 연습할 수 있는 70여평 규모의 연습실 2개와 50여평 규모의 연습실 2개 및 세미나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전면거울과 이동식 바, TV 오디오 시설을 갖춰 전문적인 공연 연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연습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대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 겸 자유로운 교류의 장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기 위해 대학로 연습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운영되며 대관료는 시간당3,000~7,000원 선이다. 문의 (02)3789_2148~9

기자 / 양홍주

한국일보

2004년 12월 7일

“서울 공연장 정말 욕심나네요”

“서울의 공연장 세 곳을 둘러보았는데 시설이 너무 훌륭해 영국 에든버러로 가져가고 싶더군요.” 폴 거진(41)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위원장이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춘) 초청으로 5일 서울을 찾았다.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는 1947년 출범한 에든버러 국제 예술제에 초청 받지 못한 작은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시작된 행사.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고 57년 협회를 결성하면서 세계적 축제가 됐다.

축제를 총괄하는 거진 위원장은 단번에 입장권 판매와 참가자수를 급증시킨 ‘미다스의 손’, 99년 부임 이후 이 축제가 오히려 에든버러 국제 예술제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방한은 국내 축제 기획자들에게 성공 노하우를 전하고,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참가를 원하는 공연단체에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다. 한 해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작품 1,700편을 무대에 올리지만 에든버러시의 지원은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하다고 한다.

99년 축제에 참가한 한국 작품 ‘난타’ ‘도깨비 스톱프’를 인상 깊게 보았다는 그는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작품 참가가 늘어 한국 공연물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은 언어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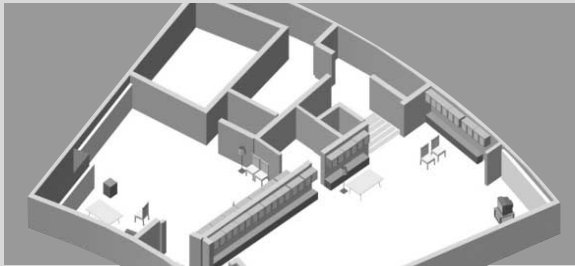
기자 / 라제기

언론에 실린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이모저모 ...

부록 - 2004 재단 언론보도자료

중앙일보

2005년 1월 6일



‘감성 놀이터’ 만든다

통나무 수로 ... 생태연못 ... 진흙놀이

덩 빈 모래밭 위 녹슨 미끄럼틀은 가라. 대신 동그런 잔디 언덕 위에서 테 골테굴 굴러보자.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수로에는 나뭇잎배와 종이배가 경주를 한다. 놀이터 벽면은 가족이 함께 그린 모자이크로 장식돼 정겨움이 더 하고, 휴일 저녁이면 놀이터 한 쪽에서는 주민들의 하모니카,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진다.

동네 놀이터가 지역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문화재단(대표 유인촌)은 6일 “확실적이고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놀이터를 창조적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모델을 개발했다”며 이날 조감도를 공개했다.

‘문화가 있는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서울 시내 세 곳의 공공 놀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획과 설계는 서울문화재단과 한국어 성건설인협회가 공동으로 맡아 리모델링을 통해 실현적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인촌 대표는 “기존 놀이터는 시설이 낡아 안전, 위생 문제 등이 있는 데다 다양해진 교육,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어른과 아이들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의 활발한 교류도 이뤄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이 제시한 모델은 어린이들이 노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만나고 소규모의 문화행사를 벌일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서의 놀이터다. 이를 위해 놀이, 집회 및 휴식, 체육공간 등을 고려해 전 연령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의 장’이 되도록 했다. 또 목재로 만든 수로에서의 물놀이, 진흙 놀이, 나무 징검다리 건너기 등 감성 계발을 유도할 수 있는 열세가지 놀이와 넉넉 기르기, 생태 연못 만들기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일곱 가지를 제시해 지역 특색에 따라 골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를 맡은 한국어성건설인협회 김혜정(51)회장은 “건축법규상의 조건만을 충족시킨 형식적인 놀이터가 아닌 지역문화가 싹트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서울도시개발공사(SH)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내 보육시설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 건설업체와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자 / 김은하

매일경제

2005년 1월 12일

서울시, 임대아파트 30곳에 열린 공부방 설치

저소득층이 밀집한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에 ‘열린 공부방’ 30곳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관악구 봉천본동 두산임대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연 데 이어 SH공사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등과 연계해 올해 15곳, 내년 14곳에 공부방을 추가 설치해 총 30곳을 열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문을 연 두산임대아파트 단지 공부방은 SH공사가 제공한 단지 내 상가건물에 62평 규모로 조성됐다. 조리실과 식당, 집단지도실, 교실 등이 마련돼 있다. 공부방에서는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대학생 교사의 지도 아래 숙제와 놀이 등을 하게 된다. 시설운영은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담당하며, 관악구 주민연대 공부방네트워크가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 교사들을 지원한다.

또 서울문화재단은 공부방 지원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로 열린 공부방을 개설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자 / 손세호

문화일보

2005년 1월 12일

‘서울풍속도 담긴 다이어리 선보여’



서울문화재단(대표 유인촌)은 1950~60년대 풍속과 인물 그림으로 이뤄진 아트 다이어리 ‘그림으로 보는 서울이야기’를 선보였다. 이 아트다이어리는 서양명화 위주의 일반상품과 달리 서울의 풍경과 사람을 그린 한국화가 유양욱 씨의 수묵·채색화로 엮은 문화상품.

유씨는 종로예식장 뒤쪽의 연못에서 수영하는 모습, 1950년대 인사동의 개천길, 거리의 옛장수 외에, “길 좀 비켜달라”며 지팡이로 여학생의 치마를 들추던 김은호화백을 비롯해 화가 변관식 장육진, 고고학자 김원용, 흉부외과전문의 김경식 등 그 시절 그 이야기를 그렸다. 02-3789-2137

한국일보

2005년 1월 7일

“서울의 풍경과 추억을 나눠드립니다”

“서울에만 있을 때는 자꾸 어디론가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어딘가로 가면 금세 서울이 그리워진다. 서울의 활기 때문이라. 서울에 살고 있을 때는 서울을 미워한다. 서울은 떠나 있을 때 오히려 그리운 곳이다. 서울의 역동성 때문이라.”(소설가 신경숙)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이 2월부터 격월간으로 발행할 예정인 ‘지금 여기, 서울’ 창간준비호가 이제하, 신경숙 반철환, 박성원 씨 등 문화예술인 8명이 서울에서 살며 느낀 단상을 실었다.

50년 넘게 서울에서 살고 있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제하 씨는 “한강이 흐르고, 그 강이 심상치 않게 아름답다는 것을 상경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세계 어디서든 유례가 드물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쳐진 서울을 제대로 알고 소중히 여기자”고 말했다.

건축가 서윤영 씨는 20년 전 살았던 시민아파트의 추억을 떠올렸다. 모든 집이 현관문을 열어둘 정도로 이웃과 가깝게 지냈던 시절이다. 당시 여중생이던 서씨는 이웃집 대학생을 짝사랑하고 귀여운 스토킹까지 하면서 느꼈던 짜릿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 세대의 봉사 끝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거될 그 시민아파트는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고 회상했다.

시인 반철환 씨는 “서울은 뽀족하고 딱딱한 것 투성이”라며 “셋강을 살리고 공원을 만들면서 훈훈한 문화의 입김으로 엄마의 젖가슴처럼 말랑말랑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5,000부가 발행돼 무료 배포되는 이 잡지는 앞으로 문화예술인과 외국인인 물론 일반 시민들이 체험하고 감동받은 서울의 삶과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인촌 대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선 거칠고 척박한 서울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새벽이슬처럼, 소중한 문화예술의 싹을 틔우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 최진환

일반 문예지원 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신청 및 지원 대상사업 결정현황

- 지원신청 : 655개사업 26,088백만원
- 지원결정 : 248개사업 1,760백만원

〈분야별 신청 및 지원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지 원 신 청		지 원 결 정	
	사 업 수	신 청 액	사 업 수	지 원 액
계	655	26,088	248	1,760
문 학	37	693	12	71
미 술	119	5,620	37	279
음 악	85	3,575	27	180
연 극	133	5,867	44	335
무 용	70	2,625	31	223
전통예술	116	3,614	56	403
문화일반	84	3,600	31	197
영 화	11	494	10	72

〈연극〉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김우옥	2004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및 아시아 아동청소년 연극제	15,000
2	(사)연극배우협회	허현호	악극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0,000
3	(사)한국연극협회	최종원	사랑티켓	15,000
4	(사)한국연극협회	최종원	제8회 서울 청소년 연극제	10,000
5	(주)떼아씨네	오세관	왕은 죽어가다	5,000
6	극단 김상열 연극사랑회	한보경	김상열연극세계 재조명4 〈애니깽〉	10,000
7	극단 남비공비	정상식	피아노 할머니	5,000
8	극단 모시는 사람들	김정숙	소극장 창작 뮤지컬 〈7인의 천사〉	5,000
9	극단 목화레퍼터리컴퍼니	오태석	함경도판 '기생비생 춘향전' - 극단목화 창단20주년기념 레퍼터리	7,000
10	극단 민들레	송인현	석양으로 날아간 학	5,000
11	극단 민예	정 현	위험한 시선	10,000
12	극단 백수광부	이성열	친자노 생일파티	6,000
13	극단 성좌	권오일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10,000
14	극단 세실	채윤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0,000
15	극단 아름다운 세상	서은영	가족과 함께하는 창작 가족인형극〈애기똥풀〉	5,000
16	극단 아리랑	방은미	창작뮤지컬 상호군 장영실	5,000
17	극단 여백	오경환	이슬털기 공연	5,000
18	극단 예휘	송윤석	〈형값 인형〉시리즈 및 예휘콘서트	5,000
19	극단 오늘	위성신	고도를 기다리며	5,000
20	극단 즐거운 사람들	김창래	심청 - 그 사랑의 노래	5,000
21	극단 지구극 연구소	차태호	민화연극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5,000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22	극단 춘추	문고현	연극 오토바이 옆에서	10,000
23	극단 파티	윤영선	자객열전	6,000
24	극단 한빛무예단	장효선	검의 혼(월광무 6)	7,000
25	극단 한양레퍼토리	최형인	연극 상사주를 부어라	10,000
26	극단 화살표	형영배	암극〈타오르는 어둠속에서〉	5,000
27	극단 휠	송정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연극형식을통한 장애인 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5,000
28	꿈나무인형극단	이여화	남산골 한옥마을 인형극 무료공연	5,000
29	베세토연극제 한국위원회	신일수	제11회 베세토연극제, 도쿄 2004	20,000
30	사다리연극놀이 연구소	천정명	가족이 함께 보는 공연 함께 하는 연극놀이	6,000
31	서울공연예술가들의 모임	김중우	제7회 서울 변방연극제	17,000
32	어린이 문화예술학교	김숙희	제8차 서울지역 소아병동 어린이를위한 인형극 순회공연	5,000
33	어린이뮤지컬극단 뮤지컬 키즈	왕해전	제2기 정기공연 〈미녀와 야수〉	5,000
34	연희단 거리패	정동숙	꿈의 기록	7,000
35	우리극 연구소	윤광진	현대작가 초대전:브라이언프리티엘〈루나사에서의 춤〉	6,000
36	장애여성 공감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연극공연팀〈춤추는 허리〉 프로젝트 2004	5,000
37	제5스튜디오	나상만	제2회 STS Festival	10,000
38	직장인 연극단체협의회	윤정용	제4회 직연협 연극제	7,000
39	청소년전문극단 진동	박중우	서울지역 실업계교 청소년을 위한순회공연〈렛츠 알바〉	5,000
40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마승락	연극〈차력사와 아코디언〉 공연	5,000
41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김홍우	제12회 젊은 연극제	10,000
42	한국마임협의회	조성진	한국마임 2004	5,000
43	한국매드사이언스(주)짐월드	박기영	어린이 과학체험 뮤지컬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소	10,000
44	호모루덴스 컴퍼니	남궁호	히트 앤드 런	6,000

〈영화〉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서울넷페스티벌	문원립	제5회 서울넷&필름페스티벌	10,000
2	(사)서울영상위원회	황기성	2004 로케이션사진공모전	7,000
3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윤석남	제9회 여성관객영화상 심포지엄	5,000
4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황철민	인디다큐페스티발 2004(제4회)	10,000
5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최정운	Cinematheque in Seoul	5,000
6	(주)에이넷 · 코리아	김주섭	바보각시	10,000
7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김연호	제4회 인디비디오 페스티벌	5,000
8	시네마테크 문화학교 서울	김성욱	프랑스 아방가르드 시네마 특별전	5,000
9	인디포럼 작가회의	오정훈	독립영화축제인디포럼 2004(제9회)	10,000
10	청소년 영상 미디어 센터	이정민	8회 고딩 영화제	5,000

일반 문예지원 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전통예술〉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남사당	남기수	2004세계박물관대회 기념남사당놀이 여섯마당 대축제	10,000
2	(사)대한시우회 잠실지회	감명섭	제2회 전국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5,000
3	(사)대한시조협회 송파지회	이두실	전국남녀 시조, 가사 가곡경창대회	5,000
4	(사)새울전통타악진흥회	김청만	鼓 聲	5,000
5	(사)서도소리보존회서울시지회	신태순	서도소리 창극 〈배치기〉 공연	5,000
6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황용주	공개행사 및 발표공연(경복궁지경다지기 놀이)	10,000
7	(사)전통한지공예가협회서울시지부	김화성	회원전	5,000
8	(사)중앙국악예술협회중앙가무단	채향순	제2회 한중일 아시아가무단공연〈亞, 舞, 打의 몸짓〉	15,000
9	(사)한국공연예술원	김천홍	공연예술의 뿌리를 찾아서 2 - 샤마니카	10,000
10	(사)한국국악협회	이영희	2004 서울국악제	20,000
11	(사)한국민속연보존회	노유상	2004 서울 연날리기 축제	8,000
12	(사)한국어린이국악교육협회	정성자	2004 초등학교순회 우리문화체험교실	4,000
13	(사)한국여성국악예술협회	홍성덕	제2회 대한민국 여성전통음악공쿨	10,000
14	(사)한국전통예악개발보급총연합회	정병조	제10회 세종대상부 전국시조경창대회	10,000
15	가무악 Corea	이상균	마당놀이 〈에루화 해어화전〉	5,000
16	김상훈	김상훈	아쟁독주회	3,000
17	김천홍	김천홍	〈심소 김천홍 선생의 우리춤 이야기〉 출간	5,000
18	대한시우회	이영준	제28회전국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10,000
19	동춘곡예단	박세환	곡예공연	10,000
20	백인영	백인영	백인영의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 발표회	5,000
21	사단법인 예가회	김철륜	예가인 가야금의 밤	5,000
22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영희	제3회 전국국악대전	8,000
23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농요보존회	김완수	마들농요 발표회	5,000
24	선가락 예술단	강규화	강규화의 국악의 밤	3,000
25	세종국악관현악단	박호성	2004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8,000
26	송파산대놀이 보존회	김학석	중요무형문화재 제49회 송파산대놀이 공연	5,000
27	수당 정명숙 전통춤 보존회	정명숙	제19회 정명숙의 전통춤 한마당	5,000
28	신래동 거문고 산조 보존회	김영재	금현 신래동 선생님의 음악세계	5,000
29	실내악단 '풍경이 있는 소리'	한광수	제6회 정기연주회	5,000
30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름	유은선	다스름과 함께하는 궁궐음악여행 "노래야 나오너라"	8,000
31	왕기철	왕기철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판소리 레퀴엠" 공연	8,000
32	衣藝思연구회	채금석	"우리저고리2000년전" 전시	5,000
33	이주은	이주은	이주은의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5,000
34	작은소리학교	한선모	제1회 서울시 청소년 어릿광대 축제〈청소년 잡색굿 2004〉	5,000
35	전통타악연구소	방승환	찾아가는 문화활동	8,000
36	젊은소리 청 챔버오케스트라	태성연	제5회 정기연주회	4,000
37	정명희 가야금병창 전수소	정명희	정명희 가야금병창 문하생 발표회	5,000
38	정옥향 판소리연구소	정옥향	제6회 어르신 위안 국악한마당	7,000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39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북청 사자놀이보존회	이근화선	북청사자놀이 정기 발표 공연 행사	5,000
40	중요무형문화재제34호 강령탈춤보존회	김정순	정기공연	3,000
41	천광곡예단	이승원	씨커스 공연	10,000
42	타 루	이자람	제3회 정기공연(Dear My Lovely Friend)(나무야 나무야 2)	5,000
43	하늘물빛	홍선표	전통 천연염색	3,000
44	한국 의생활문화원 친잠례보존회	오이순	제5회 조선왕조 친잠례 재현행사	10,000
45	한국곡예예술단	박한국	곡예공연	10,000
46	한국궁중복식연구원	유송옥	명헌태후 칠순친찬복식 고증제작전	10,000
47	한국대금음악연구회	길덕석	한주환의 음악세계(한국대금음악연구회 제3회 정기연주회)	3,000
48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오용록	어린이 전래국악동요 한마당〈꼬마야 놀자〉	7,000
49	한국여성국악협회	김미보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웃음과 해학의 마당극시리즈 1	5,000
50	한국연합회	이기태	제2회 서울시 전통문화대전 및 제5회 서울시민 연날리기 대회	13,000
51	한국음악발전연구원	최지애	한국음악발전연구회 제9주년 정기연주회	10,000
52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인남순	조선왕조 궁중연희	20,000
53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회	김대원	창립10주년기념행사 및 무의탁 할머니할아버지 위안의 밤 국악 한마당	5,000
54	한국전통타악연구소 판	류인상	창작굿 "眞音"	5,000
55	한동희 스미 범음법패보존회	한동희	1600년 불교육법공양악식 무대예술화공연〈영산〉	5,000
56	한충은	한충은	한충은 제1회 소금독주회 〈모자이크〉 공연	10,000

〈무용〉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한국무용협회	조흥동	제26회 서울무용제	20,000
2	(사)한국무용협회	조흥동	2004 서울시민을 위한 무용 순회공연	10,000
3	(사)한국발레연구학회	김화례	제19회 한국발레연구학회 정기공연	5,000
4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육완순	제1회 전국 청소년 무용축제	10,000
5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육완순	2004 Korea ADF 국제 하계 현대무용 페스티벌	7,000
6	(주)아이엠지 예술기획	이성봉	광화문 댄스페스티벌	10,000
7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이종호	제7회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2003	10,000
8	권금희 발레단	권금희	까미유	5,000
9	김민정 플레이 댄스그룹	김민정	유랑퍼포먼스가무쇼단의 댄스플레이 다시 돌아온 불후의 명작	5,000
10	김민희 한양발레아카데미	김민희	김민희 한양발레아카데미 4가지 색깔과 창작발레와의 만남	5,000
11	김정웅	김정웅	김정웅의 춤 〈계속되는 질주〉	5,000
12	레드 펄 댄스 씨어터	김주연	Night of Heidelberg	5,000
13	발레블랑	권금희	2004 발레블랑 정기공연	7,000
14	벽사춤 무용단	조하나	조하나 창작춤 외로운 것들은 다 섬이된다	5,000

일반 문예지원 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5	서울국제크로스오버즉흥춤페스티벌운영위원회	장광열	제4회 서울국제크로스오버즉흥춤 페스티벌	8,000
16	설무리무용단	박연술	예기	7,000
17	씨어터제로	심철중	제16회 한일 댄스페스티벌	10,000
18	오페르(주) Soo DanceCompany	박명수	오페르 Soo Dance Company(춤꾼 댄스 엘리스)	5,000
19	월간 춤과 사람들	김복희	2004 젊은 작가전	10,000
20	장은정 현대무용단	장은정	Dance Binnale Tokyo 2004 초청공연<고려되지 않은>	5,000
21	정귀인 무용단	정귀인	서울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	5,000
22	조훈일 무용단	조훈일	조훈일의 창작 춤<강철새잎>	7,000
23	창무회	김선미	창무 큰 출판	7,000
24	창작춤집단 가관	최은화	창작무용<아라비아에서 온 편지>	6,000
25	포스트 극장	김매자	드림 앤 비전 댄스 페스티벌	10,000
26	프로젝트 댄스그룹 즐거운녀석들	김길용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4인의 안무가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는 기적만들기)	5,000
27	Dance Image of the Future	이지현	이지현의 재즈 <The Present...>	5,000
28	Dance Sport Company	이순원	정기 공연	5,000
29	LDP 무용단	정지윤	LDP 무용단 해외레퍼터리공연	5,000
30	madeindance.com	이연수	카타르시스의 분열	7,000
31	O&K PerformingArts Company	오은희	하나로 아리랑 테퍼토리화	7,000

〈문화일반〉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고려다종이공예협회	전흥자	제9회 전국다종이접기 가족 놀이마당	5,000
2	(사)국제화훼원예디자인협회	김혜숙	고아원 원생 꽃기술 교육, 예절 교육	5,000
3	(사)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윤화자	제3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축제(‘푸른계절 우리도 청춘’)	5,000
4	(사)색동회 산하 극단 눈술	허정원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전래문화 순회 및 초청공연	5,000
5	(사)서울문화사학회	홍일식	「서울역사문화 학술대회」 개최	5,000
6	(사)서울약령시협회	박상중	서울약령시 대축제(보재원제향, 무료진료, 투약 및 부대행사)	10,000
7	(사)서울지하철문화연구본부설 지하철공연문화협의회	나석호	도시철도 5678 문화 한마당	5,000
8	(사)서울도박이전통문화진흥회	이재연	서울전통문화 발굴 보전과 유물발굴 기증사업	8,000
9	(사)예명원	손민영	2004년 예절의날 기념제18회 전통문화 큰잔치 제8회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	5,000
10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공창규	인사동문화학교 운영	5,000
11	(사)철도/지하철 예술진흥연구원	채광수	철도,지하철 문화마당 Rail Art	5,000
12	(사)한국장기협회	김응술	제8회 서울시 학생(초,중,고)민속장기대회	3,000
13	(사)한국장기협회	김응술	제8회 서울시 노인 민속장기대회	3,000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4	(사)한국차인연합회	박동선	제24회 차의날 기념 국제 차문화 큰잔치	5,000
15	(사)한중친선협회	서청원	북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한중 친선 문화 도보행진	8,000
16	(사)현정회	이항녕	어천절 및 개천절 춘·추 사직대제·명절 단군성전 진설 행사	10,000
17	극단 현장	박인배	청소년과 교사를 위한<우리시대의 탈놀이>강습	4,000
18	만담보존회	김영운	추억의 만담	5,000
19	비영리민간단체 한 사랑	전상현	“포도대장과 그 순라꾼들” 운영	5,000
20	서울스코프	조유현	月刊 서울스코프	10,000
21	성균관 한시 수련원	김중석	한시이론과 작법 강설	5,000
22	역사문화연구소	박경룡	서울시 인물 사료 번역 총서 1 -심제 편	5,000
23	윤명원	윤명원	서울시 디지털 국악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7,000
24	이애경 춤패 “지킴이”	이애경	코리아 가.무.악 2004	7,000
25	재단법인 정동극장	박형식	강북지역 도심권 직장인을 위한 정오의 예술무대	10,000
26	재단법인 평화방송	염수정	한국 동요 80주년 기념전	5,000
27	전국문화원연합회	김영섭	제5회 서울문화 가족한마당 큰잔치	7,000
28	(주)공간사	이상림	제22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10,000
29	한국색종이공예	신영희	신영희 색종이 오리기 공예회	5,000
3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성림	2004 환경음악회	10,000
31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인남순	파리 유네스코 본부 세계문화유산 걸작공연	10,000

〈미술〉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권창륜	2004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전	5,000
2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최재연	제34회 묵향전	5,000
3	(사)서울미술협회	김봉구	청계천의 어제, 오늘, 내일전	20,000
4	(사)서울미술협회	김봉구	제2회 서울미술대상전	20,000
5	(사)세계미술교류협회	제정자	제36회 세계미술교류협회전 및 제7회공모전	10,000
6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백영환	2004 서울시민사진촬영대회	5,000
7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백영환	제25회 한국국제사진공모전	5,000
8	(사)한국서각협회	안민관	대한민국 서각대전	5,000
9	(사)한국서예협회 서울지부	변영문	2004 Hi Seoul 페스티벌	5,000
10	(사)한국서화교육협회	이인섭	제15회 대한민국서법예술대전	8,000
11	(사)한국예술작가협회	박찬봉	한중수교12주년기념 한중서법대전	5,000
12	(사)한국판화미술진흥회	엄중구	서울판화미술제 2004 (Seoul Print Art Fair 2004)	10,000
13	고강연묵회	전우천	제11회 고강연묵회	5,000
14	국민예술협회	이흥남	제8회 서울미술전람회	5,000

일반 문예지원 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5	국제미술교류협회	안 영	2004 베세토미술제 서울전	10,000
16	마니프조작위원회	김영석	제10회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10,000
17	서울아카데미회	강건호	서울아카데미회 제23회 정기전	5,000
18	서울조각회	전준	韓國美의 재발견	5,000
19	신 작 전	최낙경	제22회 신작전 정기전	10,000
20	아트링크	이경은	꿈이 자라는 놀이터-어린이 놀이터 프로젝트	10,000
21	아트서울조작위원회	이두식	제2회 아트 서울(이두식)	10,000
22	예술법인 21세기청년작가협회	송운창	2004 서울깃발.설치 미술제	5,000
23	예술의 전당	김순규	표암 강세황과 18세기 조선의 문예동향' 학술대회	5,000
24	오픈아트	김한준	MAPP 2004 (Media Artist Promotion Program 2004)	10,000
25	以形會	장두건	2004 이형회 작품전(제21회)	7,000
26	(주)공간사	이상림	The 13th SPACE INTERNATIONAL BIENNALE,SEOUL,2004	5,000
27	최순호	최순호	북간도 아리랑(중국 조선족 사진전시회)	5,000
28	춘추회	차영규	제31회 춘추회전	7,000
29	평창동 토탈미술관	노준의	발칸반도국의 문화상황과 현대미술	7,000
30	韓 · 中 水墨畫展	하태진	韓 · 中 水墨畫展	5,000
31	한국구상조각회	한진섭	움직이는 조각전	10,000
32	한국민화작가회	이정동	전통민화재현 전시회	5,000
33	한국수채화협회	전성기	한국수채화협회전	5,000
34	한국화여성작가회	김춘옥	꽃 봄 그리고 여성전	10,000
35	현대미술신기회	신범승	한국현대미술신기회 제60회 기념특별전	5,000
36	현대한국화협회	이창주	제23회 현대한국화협회전	5,000
37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윤동구	사루비아다방 프로젝트-창의적 실험적 작가를 위한 전시지원	10,000

〈문학〉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제25회 전국만해백일장 대회	5,000
2	(사)시사랑문화인협회의회	최동호	서울사랑노랫말 사이버 영상 모집 및 노래부르기	5,000
3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	김형덕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마당	10,000
4	(사)전통문화연구회	이계황	고전문화 교양강좌	5,000
5	(사)한국수필가협회	조경희	제10회 한국수필가협회 해외심포지엄	10,000
6	(사)한국한시협회	하영섭	제1회 학생 및 청년 한시백일장개최 및 시집발간	5,000
7	(사)한국한시협회	하영섭	제12회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및시집 발간	10,000
8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성기조	제11회 국제문학심포지엄	5,000
9	백두산문인협회	김윤호	제3회 서울사랑 시화전	3,000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0	서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모임	신봉승	복원된 창경궁의 아름다움을 시민과 전문가의 역사 문학적만남을 통한 재조명	5,000
11	한국문학회	이철호	2004김소월의 삶과 시세계 세미나	5,000
12	한국아동문학학회	이재철	제8회 아동문학연구 발표대회	3,000

〈음악〉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글로리아 오페라단	양수화	한 · 불 문화교류기념 초청 오페라 “춘향전”	10,000
2	(사)김자경오페라단	심현식,김자경	김자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길거리음악회	5,000
3	(사)베누스토 음악인연합회	이상철	섬머 클래식 페스티벌	6,000
4	(사)중앙국악예술협회	박범훈	제27회 중앙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10,000
5	(사)한국음악협회	김용진	제36회 서울창작음악회	10,000
6	(사)한국음악협회	김용진	제23회 대한민국작곡상	20,000
7	공연기획 예술세계	홍인숙	가족과 함께하는 아버지합창단 페스티벌	5,000
8	그린문화예술악단	모방길	그린문화예술악단 2004년 서울 시민을 위한 자선음악공연	10,000
9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형진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	5,000
10	대한민국 관악인 총연합회	김정수	사회인 밴드 페스티벌	5,000
11	모던팝스오케스트라	홍성용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즐거운 우리 동네”	10,000
12	문화뱅크	박상열	2004 벚꽃 음악회	5,000
13	미래악회	장정익	미래악회 제12회 작곡가의 초상	5,000
14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김영환	서울심포니 관현악과 협연의밤	5,000
15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유정희	제59회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정기 연주회	5,000
16	서울음악교사합창단	주광식	사제동행음악회	3,000
17	서울챔버앙상블	김준차	서울챔버앙상블 제27회 정기연주회	7,000
18	이미치예술단	김재창	온가족과 함께 하는 맛있는 클래식	3,000
19	이화챔버오케스트라	김기순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5,000
20	채리티체임버오케스트라	김현곤	채리티체임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000
21	카메라타서울	최영철	장애인을 위한 8인의 첼로 앙상블과 러시아 그네신국립아카데미 교수들과의 합동연주회	5,000
22	한국가곡작사가협회	박영원	제11회 서울 창작 가곡제	5,000
23	한국관악협회서울지부	이정건	제10회 서울관악제	5,000
24	한국반주협회	임현원	제10회 한국반주협회 정기연주회	1,000
25	한국심포니오케스트라	하성호	작은 별 음악회	5,000
26	한국포스트모더니즘음악회	김동환	한국포스트모더니즘음악회 제19회 창작곡 발표회	5,000
27	한국 피아노 두오협회	이민숙	한국 피아노 두오협회 스페셜 콘서트 2+3=∞	15,000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분야별 신청 및 지원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야별	신 청 내 역				결 정 / 배 분 내 역			
	작품수	비율	신청금액	비율	작품수	비율	신청금액	비율
연극	207	46%	11,741	53%	51	35%	1,428	37%
무용	87	20%	4,078	19%	24	16%	940	24%
음악	86	19%	4,007	18%	43	30%	878	22%
국악	68	15%	2,225	10%	28	19%	654	17%
계	448	100%	22,051	100%	146	100%	3,900	100%

〈연극〉

(단위 : 천원)

번 호	세부구분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년버벌	극단 달판춤	강만홍	두타	20,000
2	마당극	민족예술단우금치	류기형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	15,000
3	마임	고재경마임컴퍼니	고재경	놀이가 있는 마임	20,000
4	뮤지컬	교육극단 달팽이	박주영	날으는 신발끈	20,000
5	뮤지컬	비단수엔터테인먼트	조 민	아리아	40,000
6	뮤지컬	서울뮤지컬컴퍼니	김용현	와이키키브라더스	70,000
7	뮤지컬	우리극연구소	윤광진	푸른하늘 은하수	30,000
8	뮤지컬	극단 님비곰비	정상식	우당탕 장승	15,000
9	뮤지컬	극단 학전	김민기	세꼬마	40,000
10	뮤지컬	(주)PMC프리덕션	송승환	세우깡	25,000
11	번역극	극단 76단	기주봉	흐르지 않는 시간	25,000
12	번역극	극단 가변	송형중	아! 이아고	20,000
13	번역극	극단 김금지	김금지	노부인의 방문	40,000
14	번역극	극단 로얄씨어터	윤여성	어둠의 힘	35,000
15	번역극	극단 미학	정일성	파우스트	40,000
16	번역극	극단 백수광부	이성열	굿모닝 • 체홀-2004	25,000
17	번역극	극단 비파	김영환	심벨린	40,000
18	번역극	극단 서울공장	임형택	세자매	30,000
19	번역극	극단 수레무대	김태용	꼬메디아델아르테에피소드	20,000
20	번역극	극단 알과핵	임수택	쥐사냥	15,000
21	번역극	극단 여인극장	강유정	아름다운 여인과의 작별	30,000
22	번역극	극단 자유	이병복	피의 결혼	40,000
23	번역극	극단 차이무	민복기	거기	20,000
24	번역극	극단 파크	박광정	타오르는 어둠속에서	25,000
25	번역극	극단 풍경	박정희	유다의 키스	23,000

번 호	세부구분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26	번역극	한양레퍼터리	최형인	해피엔드	20,000
27	번역극	Labo.C.J.K	송선호	바다와 양산	30,000
28	연극	극단 단막극장/극단 겨자씨	금동현	2004한국문학단편제 황톳길	25,000
29	연극	극단 독립극장	원영애	사랑을 사르고	40,000
30	연극	극단 오늘	위성신	늙은 부부이야기	15,000
31	연극	극단 이루	손기호	아부지	20,000
32	연극	Project Group 자유항해	함형식	Project Group 자유항해	20,000
33	창작	(사)남사당	남기수	산넘어 진동아	10,000
34	창작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윤석남	여인극장 - 첫번째 보따리	15,000
35	창작	극단 김동수컴퍼니	김동수	신용사회	30,000
36	창작	극단 인혁	이기도	파행	30,000
37	창작	극단 대학로극장	정재진	열대야	30,000
38	창작	극단 목화레퍼터리컴퍼니	오태석	만파식적	50,000
39	창작	극단 민예	정 현	하얀 자화상	30,000
40	창작	극단 반도	주요철	갑옷을 입은 투란도트	40,000
41	창작	극단 배우세상	김갑수	플라스틱오렌지	30,000
42	창작	극단 실험극장	이한승	동천홍	40,000
43	창작	극단 은행나무	송바울	굴비는 맛이 좋다	30,000
44	창작	극단 전망	심재찬	천국은 게임 중	30,000
45	창작	극단 청우	김광보	뽕약별	25,000
46	창작	극단 초인	박정의	기차	10,000
47	창작	반딧불이	김윤태	소년공화국	20,000
48	창작	서울공연예술가들의모임	김종우	길 위에서	30,000
49	창작	악어컴퍼니	조행덕	남자총동	30,000
50	창작	연극집단 뽕토스	오경숙	뽕토스3부작	30,000
51	창작	연극집단 청춘오월당	전용환	착한사람	25,000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무용〉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육원순	제9회 바블레서울안무대회	10,000
2	(사)리움춤연구원	황희연	"배정혜춤인생 55주년 및 리움무용단 창단 20주년 특별기념공연 <법 - 타고남은 재 II>"	80,000
3	(사)밀물현대무용단	이숙재	찬기파랑가	50,000
4	(사)벽사춤아카데미	정재만	2004 전국남성명무전 <목연의 꽃>	30,000
5	(사)한국발레협회	김학자	제24회 한국발레페스티벌 <발레와 애니메이션의 만남>	30,000
6	공연기획 MCT	장승헌	"우리시대 무용가 2004 <몸의 만유인력, 2인무>"	40,000
7	권금향무용단	권금향	2004 권금향의 춤 <역마>	40,000
8	김나영댄스프로젝트	김나영	<그녀는 노래한다(Elle chante - homage...)>	30,000
9	김은희무용단	김은희	<산해경>	40,000
10	박인숙지구댄스씨어터	박인숙	Beyond Imagination <마리아 콤플렉스 II>	60,000
11	성균관임학선무용단	임학선	2004 임학선의 춤 <공자>	80,000
12	손관중&가림다현대무용단	손관중	검은 소나타	40,000
13	안애순무용단	안애순	안애순무용단 2004년 신작공연 <JUST>	50,000
14	우봉 이매방 전통무용보존회	이매방	외길인생 우봉 이매방 <춤인생 70주년 기념공연>	20,000
15	유정숙무용단	유정숙	유정숙의 춤 <바리>	20,000
16	이경옥무용단	이경옥	"이경옥의 춤 <장화, 홍련>"	40,000
17	장선희발레단	장선희	장선희창작발레 <붓>	40,000
18	정귀인 현대무용단	정귀인	정귀인의 레파토리공연	30,000
19	조윤라발레단	조윤라	2004 조윤라발레단 우수레파토리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45,000
20	창무회	김선미	2004 창무회 신작공연 <이어도>	40,000
21	최지연 무브먼트	최지연	<칼(다갈라불망비: 원제- 오페리아의 들판)>	30,000
22	한혜경무용단	한혜경	우리 춤의 脈	20,000
23	Hong Dance Company	홍혜전	2004 Hong Dance Project	20,000
24	SEO발레단	서미숙	서미숙창작발레공연 <프리티티브(Primitif)>	55,000

〈음악〉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강화자	마술피리	50,000
2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양수화	2004 서울세계여성대회축하기념오페라 <춘향전>	50,000
3	(사)서울그랜드오페라단	이경애	까발레리아 루스카나 <팔리아치>	30,000
4	(사)서울오페라단	김봉임	푸치니 <나비부인>	50,000
5	(사)서울튜티앙상블	이옥희	제31회 정기연주회	5,000
6	(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홍기	글린카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20,000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7	(사)한국오페라단	박기현	그랜드오페라 <루치아>	80,000
8	(사)한국페스티벌앙상블	서민석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정기연주회	15,000
9	(재)안익태기념재단	김형진	안익태기념음악회	20,000
10	(전)기원오페라단	김기원	라 트라비아타	50,000
11	(전)서울신포니에타	서정실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환경콘서트>	10,000
12	(주)부암아트	지주은	음악가들의 창작공간 2004	15,000
13	21세기악회	홍수연	제50/51/52회 정기연주회	10,000
14	민족음악연구회	이소영	작은소리 열린공간	11,000
15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장동진	서울시민을 위한 10 Great Opera	10,000
16	서울뮤지컬앙상블	김동수	제7회 정기연주회	5,000
17	서울바로크싱어즈	강기성	제7회 정기연주회	15,000
18	서울바로크합주단	김경원	서울바로크합주단 제105회 정기연주회	15,000
19	서울원드앙상블	서현석	제78회 정기연주회	12,000
20	서울챔버오케스트라	김용윤	제64/65 정기연주회	20,000
21	솔리스트앙상블	정승일	솔리스트앙상블 제21회 정기연주회	15,000
22	신음악회	주영자	<콘트라베이스와 만날까요・>	5,000
23	신작가곡연구회	박경종	제5회 신작가곡발표회	5,000
24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이강구	제14회 정기연주회	15,000
25	오페라무대 新	박경일	세빌리아의 이발사	30,000
26	운지회	백영은	한국현대관현악작품연주회	30,000
27	작곡 21	김진우	제5회 서울창작실내악축제	10,000
28	작곡단체 OPUS130-701	우동희	"OPUS130-701창작실내악발표회<나무,소리>"	10,000
29	전국음악대학심포니밴드협회	서현석	전국음악대학심포니밴드축제	10,000
30	창악회	김준홍	창작관현악의 밤	30,000
31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	김복수	제16회 정기연주회	8,000
32	코리아남성합창단	박정호	제5회 정기연주회	10,000
33	판아트	손형원	"노래의 선, 악기의 선 2"	10,000
34	한국독일가곡연구회	박정하	슈베르트가곡전국연주	7,000
35	한국성악학회	김종수	민족통일염원음악회	5,000
36	한국소극장오페라연합	장수동	제6회 서울소극장오페타 페스티벌	80,000
37	한국여성작곡가회	이찬해	2004한국여성작곡가회 관현악축제 <영혼의 소리>	30,000
38	한국작곡가회	한만섭	제5회 서울창작합창제	10,000
39	한국클라리넷협회	이종욱	제5회 한국클라리넷오케스트라연주회 <우리는 하나>	5,000
40	한국프랑스가곡연주회	조길자	G.Faure가곡 전국연주회	5,000
41	현대음악앙상블(소리)	니인용	현대음악앙상블소리 제4회 정기연주회	10,000
42	협스트링스앙상블	이종협	제19회 정기연주회	5,000
43	화희오페라단	심우현	오페라 <하멜>	40,000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지원선정 단체

〈국악〉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지원액
1	(사)경서도창악회	백영춘	가려나! 갈거나!	40,000
2	(사)뿌리파예술단	전인근	타악전사 - 리듬 파이터	10,000
3	(사)서도소리보존회	김광숙	중요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창극 - 배따라기	40,000
4	21세기피리음악연구회	곽태규	서울메아리 21세기피리음악연구회 제6회 정기연주회	10,000
5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이준호	2004 슬기둥 한여름밤의 야외콘서트	20,000
6	대금연구회	이상룡	제 4회 정기연주회 및 학술발표회 - 향음제	20,000
7	목계월경기소리보존회	유 창	유창의 경기소리극 - 맹인굿 & 경기 춘향가	40,000
8	민속악회 메나리	이태백	그 빛깔 그대로	10,000
9	배뱅이굿 보존회	이은관	경서도소리극 - 아차산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40,000
10	서라벌국악예술단	홍성덕	판소리의 창극과 여성국극의 만남 〈효녀 심청〉	40,000
11	서울국악관현악단	김성경	제19회 정기연주회 - 新歌樂	20,000
12	서울국악실내악단	김진성	樂 歌 舞 두번째 마당	12,000
13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보존회	박상옥	서울시 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 발표공연	10,000
14	솔리스트 앙상블 상상	허윤경	2004 행복한 콘서트	15,000
15	앙금연구회	양연섭	서울 풍류의 밤 - 앙금연구회	15,000
16	우리음악연구원	김혜란	배따라기	40,000
17	전통가곡연구회	김진홍	전통 가곡연주회	15,000
18	정옥향판소리연구소	정옥향	신뎡파전 한마당축제	80,000
19	(주)솔담	장재철	퓨전국악그룹 - The림(林) 단독콘서트 - 몽(夢) (가제)	10,000
20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	김대균	2004 남산축제 줄타기연회극 판	22,000
21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존회	정재국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존회 정기연주회	10,000
22	한국가곡보존회	박홍규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공연〈전통을 계승하여 창작으로〉	10,000
23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민화국악관현악단	노부영	창작 국악관현악 공연 - 하늘빛 소리	20,000
24	한국정가단	이준아	제6회 한국정가단 정기공연 - 행복의 노래	10,000
25	한국창극연구회	안숙선	야외전통창극 - 춘향 : 사랑과 절개	40,000
26	한국창작음악연구회	김정수	2004 다악페스티벌 - 사군자에 스며있는 차향	20,000
27	한양대금앙상블	윤병천	생동(生動)의 대금소리 - 서울	20,000
28	향종피리연구회	박인기	개량 피리연주회	15,000

문화예술 집중육성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단위 : 천원)

장르	지원사업명	지원단체	2004 지원액	기타
연극	‘가면과 사람’ 프로젝트 - 전통과 실험의 충돌에 의한 대안적 공연 프로젝트 -	연극발전연구소	45,000	3년 지원
무용	한국 근대춤의 원형모색과 현대적 계승	한누리춤연구회	45,000	3년 지원

청소년 문화벤처단 지원선정 단체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활동분야	지원금(강사료제외)	강사지원	지원액
1	창세기	대중(보컬그룹)	2,500	20회	4,500
2	RIZ	대중(재즈댄스)	2,000	16회	3,600
3	어울림	대중(힙합댄스)	3,000	20회	5,000
4	청소년 댄스동아리 HUSH	대중(힙합댄스)	2,000	20회	4,000
5	ADDICT	대중(힙합댄스)	2,000	20회	4,000
6	마음그림	미술	1,500	16회	3,100
7	이주노동자를 향한 씨앗틔움	사진	1,500	20회	3,500
8	꿈틀학교	애니메이션	2,000	20회	4,000
9	개구쟁이 연극	연극	1,500	10회	2,500
10	난나극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연극	1,500	10회	2,500
11	대안학교 '한들'	연극	2,000	20회	4,000
12	대진여고 연극부 '일막일장첫구절'	연극	2,000	20회	4,000
13	작은아씨들	연극	2,000	15회	3,500
14	청소년 동아리 스타	연극	2,000	20회	4,000
15	청소년 연극동아리 연합팀	연극	3,000	20회	5,000
16	Challenger 13	연극	2,000	20회	4,000
17	가양별곡	영상예술	2,000	10회	3,000
18	해오름 영상동아리	영상예술	2,000		2,000
19	성장학교 별 문예공연단	음악	3,000	19회	4,900
20	코스타니안 플룻앙상블	음악	2,000		2,000
21	춤사랑	전통(무용)	2,000	16회	3,600
22	세명컴퓨터고등학교 탈춤반	전통(탈춤)	2,000	20회	4,000
23	동풍	전통(풍물)	1,800	20회	3,800
24	모두리	전통(풍물)	2,000	20회	4,000
25	어울림	전통(풍물)	1,500	20회	3,500
26	웃도드리	전통(풍물)	2,000	20회	4,000
27	풍물교실	전통(풍물)	1,500	10회	2,500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지원선정 단체

부록 - 2004 재단 지원공모사업 지원선정 단체

(단위 : 천원)

번 호	단체명	사 업 명	공 연 명	지원액
1	(사)경기민요보존회 양천지부	경기민요보존회 양천지부 정기발표회	양천문화회관	2,000
2	(주)동화사랑	동화를 통한 희망 만들기	광진구민회관	2,000
3	관악 문인협회	주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 경연대회	관악문화원 공연장	2,000
4	관악 문화원	문화학교 학급별 특기경연대회	관악문화원 공연장	2,000
5	구로구 솔아소리 민요단	국악 발표회(아마추어 전통국악예술 발표회)	구로구민회관	5,000
6	금천문화원 자원봉사팀	금천구 관내 복지시설 위문공연	금천구내 사회복지시설	3,000
7	도봉문화원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2,000
8	문화공간 어울림	문화공간 어울림 정기연주회	아리랑아트홀(성북구 돈암동)	5,000
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004서대문 우리문화 한아름축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	2,000
10	서울지역 노래동아리협의회	2004서울노래동아리페스티벌	대학로 질러홀	2,000
11	스트라이크 프로젝트	스트라이크(영상매직년버벌퍼포먼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가산문화센터	2,000
12	시민미술단체 늦바람	우리동네 숨은 이야기	경동초등학교 외벽	2,600
13	신월6동문화의집 주민자율운영위원회	교육강좌(고전무용,스포츠댄스)운영	신월6동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2,000
14	양천구민전통예술단	양천예술제 국악대공연	양천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0
15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풍물굿패 발달	강북구 저소득소외계층 무료방과후교실과 함께하는 전통재수굿 한마당	강북구 일대	4,740
16	예술창조에이씨지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 '틴틴콘서트'	마포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5,000
17	용마루 풍물패	풍물강습 및 풍물패 공연	중랑구 망우3동 사회복지시설	2,000
18	중랑문화원 한빛풍물패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풍물패 운영	복지관 및 노일정, 병원, 요양원 등	2,000
19	참여,자치,나눔의 공동체 광진주민연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마당 우리마을 푸르고 건강하게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광장	3,020
20	필넷 오케스트라	필넷 오케스트라 제8회정기연주회	마포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3,000
21	한국문화복지협의회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서울시내 5개지역(5회공연)	3,000
22	호산나만돌린 오케스트라	호산나만돌린 제9회 정기연주회	관악문화관	4,000
23	희망시장 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어린이 희망시장 예술교육강좌	마포문화체육센터	2,000
24	희곡연예술단	중구공연문화발전과 소외계층 문화향수증진을 위한 자선공연	고아원, 재활원 등	5,000